

마음이 지혜로운 자

[전도서 묵상]

제임스 김 목사

목 차

서론	4
헛된 세상 (1:1-11)	5
헛된 지혜 (1:12-18)	11
헛된 쾌락 (2:1-11)	15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2:12-26)	23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1) (3:1-14)	29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2) (3:1-14)	35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3:14)	38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3) (3:14-22)	40
“위로자가 없도다” (4:1-3)	44
“평온함” (4:4-6)	50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4:7-12)	56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지혜 (4:13-16)	60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5:1-7)	65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5:8-9)	72
잠을 달게 자는 노동자 (5:10-12)	77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5:13-20)	81
사람에게 무거운 것 (6:1-6)	85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6:3, 6)	89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 (6:7-12)	91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7:1-4)	96
죽음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7:2)	99
지혜자의 책망 (7:5-7)	103
왜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7:7)	108
지혜자의 섬김 (7:8-10)	110
인생의 경주 (7:8-10, 14)	114
지혜의 아름다움 (7:11-14)	118

지혜의 근본 (7:15-18)	122
지혜자로 능력 있게 하는 지혜 (7:19-22)	126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7:23-29)	130
“사람의 지혜는” (8:1-8)	135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8:9-13)	139
더딘 하나님의 징벌 (8:11)	141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행사 (8:14-9:1)	143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입니다 (9:2-6)	148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사람 (9:7-10)	153
시기와 기회 (9:11-12)	157
“가난한 지혜자” (9:13-18)	162
나 자신이 미련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마십시오 (10:1-4)	166
침착하라! (10:4)	170
“한 가지 폐단” (10:5-7)	173
성공하기에 유익한 지혜 (10:8-11)	177
어리석은 자의 입술 (10:12-15)	182
화 받는 나라 (10:16-20)	186
그 날을 생각하십시오 (11:1-8)	191
“청년이여” (11:9-10)	195
“너는 청년의 때 ...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12:1-8)	198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2:9-14)	202
결론	206

서론

전도서를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가 좀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전1:2)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저는 지혜의 책 중에 하나인 전도서를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 자신의 미련함이 들춰지고 있었기에 저는 이렇게 헛되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는 심정으로 전도서를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수요기도회 때마다 시편 책을 묵상하고 설교하고 또 다시금 묵상하기를 다 마친 후, 전도서 책을 선택하여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묵상하고 설교한 후 다시금 묵상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서 책을 묵상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2009년 10월 17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날 저녁 수요기도회 때 “헛된 세상” 이란 제목 아래 전도서의 첫 부분인 1장 1-11절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한 후 다시금 묵상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의 매주 수요기도회 때마다 약 1년 2개월 동안 전도서 책을 묵상하고 설교한 후 다시금 묵상하다가 지난 2010년 12월 22일에 “일의 결구를 다 들었으니” 란 제목 아래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인 전도서 12장 9-14절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한 후 다시금 묵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도서 책을 묵상하고 설교한 후 다시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은혜로 보람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체가 보람이 되었고 또한 그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7:23-29)]이 있었기에 보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죽음의 관점을 가지십시오(7:2)]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 (6:7-12)이요 이 “헛된 세상” (1:1-11)에 살면서 “헛된 지혜” (1:12-18)인 “사람의 지혜…” (8:1-8)와 “헛된 쾌락” (2:1-11)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지혜” (4:13-16), “지혜자로 능력 있게 하는 지혜” (7:19-22), “성공하기에 유익한 지혜” (10:12-15), “지혜의 아름다움” (7:11-14)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싶은 이유는 제 자신이 미련하다는 사실을 더 이상 입증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나 자신이 미련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마십시오(10:1-4)]. 오히려 저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너는 청년의 때 …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2:1-8)]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5:1-7)] “인생의 경주” (7:8-10, 14)를 즐거움을 누리면서[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6:3, 6)]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동기 부여로 약 5년 전에 묵상했던 전도서 책 원고들을 다시금 보면서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수정을 끝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이제는 이 전도서 책 말씀 묵상 원고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나눔을 통하여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사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지체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5년 8월 5일, 수요기도회를 앞둔 이 오후에 승리 목양실에서)

헛된 세상

[전도서 1장 1-11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생은 텅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인생을 논한다면 “텅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텅없는 인생’에서 ‘텅’의 사전적 의미는 ‘사이’, ‘동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텅없다’는 말은 ‘사이가 없다’, ‘동안이 없다’로서 ‘상주함이 없다’, ‘빨리 변한다.’는 뜻에서 ‘무상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인터넷). 저는 인터넷에서 이 단어를 뒤져보다가 일장춘몽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장춘몽’이란 단어의 의미는 ‘한바탕의 봄꿈’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헛된 영화나 텅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인터넷).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일생을 일장춘몽이라고 하나봅니다. 시편 기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시90:12). 우리 또한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 내용이 내포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란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치소서”와 “인생을 가치 있게 지내야 할 것을 가르치소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1) 첫째로, 인생은 다시 흠으로 돌아가기에 허무합니다. 성경 시편 90편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2) 둘째로, 인생은 잠깐이기에 허무합니다. 성경 시편 90편 4-6절을 보십시오: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 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3) 셋째로, 인생은 일평생 수고와 슬픔뿐이기에 허무합니다. 성경 시편 90편 1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년 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 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늘 본문 전도서 1장1-11절은 전도서 전체에 대한 서론 부분입니다. 이 서론 부분을 두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전도서의 저자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인 솔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11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세상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헛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2절). 이

고백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져보고 누려보았던 전도자 솔로몬 왕의 경험 속에서 나온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바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솔로몬 왕이 말하는 ‘헛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 의미는 바로 ‘입김(breath)’입니다. 이것은 “견고하고 지구성 있는 것과 반대되는 덧없는 것을 비유합니다”(시90:9)(박윤선).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님은 전도서 전체에서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적어도 한 3가지 의미로 전도자 솔로몬 왕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첫째 의미는, 해 아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덧없다(fleeting)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에 헛되다는 말입니다(약 4:14).

2) 둘째 의미는, 해 아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무익하다(futile) 혹은 무의미하다(meaningless)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우주의 저주받은 상태에서 사람의 이 지구상에서의 경험에 끼친 약하게 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3) 셋째 의미는, 해 아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incomprehensible) 혹은 불가사의하다(enigmatic)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심사숙고한 가운데 내리는 결론입니다(맥아더).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헛된 세상**’이란 제목 아래 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헛된지 한 4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헛됨을 좀 더 철저히 깨닫게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된바 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헛된 세상입니까?

첫째로, 이 세상이 헛된 이유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헛된 이유는 아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이 말씀은 해 아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아무 유익도 없고 남는 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시편 90편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년 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 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시90편)는 칠·팔십사는 인생, 그것도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그 년 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칠, 팔십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모든 수고를 통해서 무엇을

남겼는가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전도자 솔로몬 왕은 전도서 5장 15-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별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 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수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업적은 그의 사후에 남을 것이 없”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1:3)(박윤선).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이 헛된 이유는 한 평생 사는 인생은 결국 별 수 없이 티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5-6절을 보십시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의기양양하여 한평생 활동하지만 별 수 없이 티끌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박윤선). 아무리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하고 든든히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시39:5) 결국 사람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벧전1:24-25).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시39:6). 우리 인생은 바람과 같습니다. 마치 바람이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결국에는 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6절) 흙으로 온 우리 인생도 결국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세상이 헛된 이유는 인간의 욕심에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도다.” 눈이나 귀가 보고 또한 들어도 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마치 바다가 언제가 흘러오는 물로 차지 못함 같이(7절) 사람의 욕심도 만족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박윤선). 참으로 우리 사람의 “욕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요일2:16). 우리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전4:8). 그런데도 우리는 그 끝없는 욕심을 만족시키고자 이 헛된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추구해 봅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솔로몬 왕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습니다'(2:10). 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 자신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라고 말하였지만(2:10)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11절). 결론적으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잠27:20).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런 저런 새로운 기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기계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올 텐데,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살 것이지만 그것들을 사더라도 결코 우리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순간적인 것들로 절대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일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됩니다.

마지막 넷째로, 이 세상이 헛된 이유는 후세의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을 기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11절을 보십시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솔로몬 왕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9-10절).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고 이전 것을 거듭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러한 가운데서 솔로몬 왕은 “후세의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을 기억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헛되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11절) (박윤선). 아무리 지금 현재 사람의 부와 권력과 힘 등이 많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죽어서 세월이 흘러가면 다 잊히는 것들이 아닙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것입니다(3절). 그리고 지나간 세대는 기억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사자가 살았을 때에는 산중의 왕이지만 죽은 다음에는 그 뼈를 개가 물고 다닌다고 합니다(박윤선).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습니다.

아무리 살아있을 때 이런 저런 것들을 다 누려보았다 할지라도 죽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잊힙니다. 참으로 헛되고 헛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헛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이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업적은 그의 사후에 남을 것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10:10). 우리는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약1:5)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3:17-18).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헛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헛된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업적을 남기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시39:4).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종말과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흠으로 왔다가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 헛된 세상에서 주어진 짧은 칠·팔십 인생,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대답을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됴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즉, 우리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시90:12) 하나님께 서 주시는 지혜로 이 땅에 주어진 제한된 값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 아삽은 시편 73편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헛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원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풍부함과 궁핍함 가운데서, 즉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빌4:11). 우리는 예수님 한분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분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후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과 손자들까지는 모르겠지만, 지나면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사43:4).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바 된 사람이었습니다(행 10:4).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살았던 고넬료처럼 이 헛된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게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바 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헛된 세상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세상, 다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헛된 세상에서 욕심을 부려보지만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기에 이 세상은 헛된 세상입니다. 또한 후세의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을 기억함이 없기에 이 세상은 헛된 세상입니다. 이러한 헛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헛된 세상에서 유익하게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주어진 기간 동안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기억된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헛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받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께 기억된바 되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앉기길 기원하면서)

헛된 지혜

[전도서 1장 12-18절 말씀 묵상]

우리는 전도서 1장1-11절 말씀 중심으로 ‘헛된 세상’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왜 이 세상이 헛된 가 우리는 네 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1)유익한 것이 없기에 또는 남는 것이 없기에, (2)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3)인간의 욕심에 만족이 없기에, (4)이전 시대에 기억함이 없을 것이기에 이 세상은 헛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4 가지로 이 세상의 헛됨에 대해서 묵상한 후 이렇게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4 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네 가지 교훈 중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10:10).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를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 좋은 예로 우리는 야고보서 3장 13-18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종류의 지혜를 가리켜 사도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the wisdom from abov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7절).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습니다(17절).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성도들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입니다(13절).

(2) 두 번째 종류의 지혜는 “세상 적이요 정욕 적이요 마귀 적”인 지혜(earthly, natural, demonic wisdom)입니다(15절). 이러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16절). 이러한 세상 적이요 정욕 적이요 마귀 적인 지혜를 가진 자들의 모임 안에는 싸움과 다툼이 있는 이유는 그들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났기 때문입니다(4:1). 그리고 이들은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께 잘못 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3절).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12-18절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경험적 탐구(empirical research)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맥아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라.” 솔로몬 왕은 자기 자신이 살면서 경험한 세상의 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자신의 큰 지혜를 의지하여 경험적 탐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고(14절) 또한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폈습니다(13절). 이렇게 그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면서 궁구하며 살피는 가운데 얻는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즉, 그의 경험적 탐구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3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 첫째로, 솔로몬 왕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궁구하며 살피는 가운데 얻는 결론을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의 경험적 탐구의 첫 번째 결론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에게 괴로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사 수고케 하신 것이다’입니다. 그는 전도서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2) 둘째로, 솔로몬 왕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궁구하며 살피는 가운데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15절). 여기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제외한 지혜나 지식은 사실상 궁극적으로 아무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는 말씀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곧, 인간의 지혜로는 망할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박운선). 솔로몬 왕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궁구하며 살피는 가운데 내린 두 번째 결론은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 셋째로, 솔로몬 왕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궁구하며 살피는 가운데 얻는 결론은 한 마디로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였습니다(14절). 사람이 바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그 만큼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떠나서) 이 세상에서 행하며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다 헛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인줄을 깨달았도다.” 결국 솔로몬 왕은 자기 자신의 “큰 지혜”(16절)를 의지하여 자기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탐구한 결과 이것은 괴로운 것이며(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사 수고케 하신 것이며), 인간의 지혜로는 망할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또한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솔로몬 왕의 고백은 해 아래의 지혜, 즉 이 세상 지혜는 헛되고 헛되다는 결론입니다.

왜 이 세상의 지혜가 헛된 것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한 마디로, 이 세상의 지혜가 헛된 이유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헛된 이유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스스로 구원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23절에서 말하였던 이러한 헛된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인들(22절)에게 있어서 바울과 그의 동역 자들이 전파했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23절).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지혜의 관점으로 바울과 그의 동역 자들이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24절).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4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30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 (고전1:27).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참 미련한 우리를 택하시 세상의 헛된 지혜를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십시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고(31절)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 왔던 솔로몬 왕이 그의 큰 지혜로 해 아래의 지혜, 곧 이 세상 지혜를 살펴본 결과 결론적으로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지혜를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참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지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더욱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지혜로워 지면 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말씀 인격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헛된 세상에 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된 지혜자는 참된 증인입니다. 그리고 참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러한 참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다니엘 12:3).

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자랑하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헛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헛된 지혜를 추구하므로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헛된 쾌락

[전도서 2장 1-11절 말씀 묵상]

쾌락주의란 무엇입니까? 인터넷 위키 백과사전을 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며 최고의 선이라 하여,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을 도덕원리로 삼는 윤리설이다’ (인터넷). 결국 쾌락주의란 쾌락은 본질적 선이며 고통은 악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증진하는 것은 모두 선이라고 주장하는 행복주의의 한 형태입니다(인터넷). 쾌락주의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고 행복은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달성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쾌락주의”하면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학파가 생각납니다. 에피쿠로스학파는 헬레니즘 시대의 경향을 대표하는 철학 중 하나로서(다른 하나는 스토아학파) 기원전 300년경에 등장했는데 이 학파의 창시자는 에피쿠로스입니다. 이 학파는 고통이 없는 쾌락의 상태를 통해 행복에 도달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인터넷). 이 학파는 순간적·감각적·육체적 쾌락보다는 영원한 정신적 쾌락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순간적이고 감감 적이며, 육체적인 쾌락에는 욕망이 개입되어있고, 그 욕망으로 인하여 고통이 비롯되기 때문에 에피쿠로스학파는 육체적인 쾌락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하므로 고통 없는 쾌락을 추구했던 이 학파는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정신적 쾌락에도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지적 욕구) 그것을 최소화하므로 말미암아 고통도 최소화 할 때 인간은 행복해 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을 최소화한 상태를 에피쿠로스학파에서는 “아타락시아”(ataraxia), 즉 “번뇌가 없는 마음의 평정 상태”라고 부릅니다(인터넷). 이 학파는 마음의 평정을 이성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으로 본 것입니다. 이 학파 외에 고대 그리스의 쾌락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학파는 “키레네학파”라고 합니다. 이 키레네학파의 쾌락주의는 이 학파의 창시자이자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아리스티포스가 처음 내놓았습니다. 아리스티포스는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 덕이 있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행복의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덕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며, 이러한 즐거움은 쾌락의 충족으로 얻어집니다. 쾌락은 유일한 선이자 최고의 선입니다. 키레네학파의 사상가들은 미래가 우리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의 감각적·육체적 쾌락을 강조했습니다. 아리스티포스에 따르면, 현명한 사람, 즉 철인은 현재를 즐길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쾌락주의의 이상은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되 지혜로써 쾌락을 지배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 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1절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 왕이 “시험적으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여 낙을 누리게 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시험적으로 쾌락을 추구한 것입니다(1-2절). 오늘 본문 1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너를 즐겁게 하리니”란 말씀은 솔로몬 왕이 자기 자신을 희락 또는 쾌락으로 시험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 자기로 하여금 쾌락을 누리게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가 시험적으로 쾌락을 누리보려고 시도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3 가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헛된 세상을 지혜롭게 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솔로몬 왕이 쾌락을 누리보려고 시험적으로 시도해 본 것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하여.” 솔로몬이 제일 처음으로 시험적으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보려고 시도한 것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그는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로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였는데 그 술 마심에 있어서도 자기의 마음의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을 즐겼습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의 키레네학파의 주장처럼 술을 즐기되 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되어 지혜로서 술을 지배하면서 솔로몬 왕은 술을 즐겨 마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키레네학파의 주장처럼 술의 쾌락을 자신의 지혜로 지배하는 가운데 술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시도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음을 취하여서”였습니다(3절). 한 마디로, 솔로몬 왕의 결론은 ‘술 취함으로 쾌락을 누리보려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술이 주는 쾌락이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것일까요? 인터넷 한 기사를 보니깐 술을 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마시는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인터넷): ‘월요일은- 월래가 마시는 날; 화요일은- 화끈하게 마시는 날; 수요일은- 수시로 마시는 날; 목요일은- 목을 룡해서 마시는 날; 금요일은- 금 방 마시고 또 마시는 날; 토요일은- 토 하도록 마시는 날; 일요일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시는 날. 그 인터넷 기사에 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잔은- 건강을 위하여 마신다고 하나, 얼큰하면 - 쾌락을 위하여 마시게 되고, 취하게 되면 - 방중한 행동을 하게 되고, 만취가 되면- 광기를 부리게 된다(인터넷).” 술을 마시는 이유 중 하나는 기분이 좋아서 일 것입니다. 왜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알코올을 조금 마시면 처음에는 중추 및 말초신경이 흥분되고 위산 분비가 촉진되며 또한 도파민(dopamine)이라는 신경 전달물질이 분비되므로 말미암아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술을

과음하거나 장기간 남용 또는 과용하면 술이 불행하게도 뇌세포 파괴를 촉진시켜 우리 뇌의 기능을 억제시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매일 십만 개씩 뇌세포가 자동 사멸하는데, 알코올을 다량으로 마시면 더 많은 뇌세포가 죽습니다. 학업이나 기억 또는 사고능력 모두 저하되는데, 이들의 저하는 알코올의 농도에 정비례하여 나타난다고 합니다. 알코올을 과음하면 취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소위 ‘필름이 끊기는 현상’ 이 나타납니다(인터넷). 또 다른 사람은 술을 이럴 때 자기는 마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신다. 나쁜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신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신다. 친해지기 위해 술을 마신다. 고백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 그리운 사람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 속이 상할 때 술을 마신다. 누군가 보고플 때 술을 마신다. 마음이 울적 할 때 비가 올 때면 술을 마신다. 피로에 지쳤을 때 술을 마신다. 단합을 위해 술을 마신다. 호기심에 술을 마신다. 외로우면 또 술을 마신다” (인터넷).

저 같은 경우는 사춘기 때 방황하면서 술을 마시게 된 이유는 지금 뒤돌아보면 호기심이 제일 작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친구들 따라 강남 간다고 저 또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취하기까지 하여 토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부 수련회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나니 술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친구들을 만날 때 술좌석에는 자주 있어보았습니다. 그 때마다 느꼈던 것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유익함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저는 술로 인하여 전에 어울려 다녔던 친구들 중 두 명이 총에 맞아 죽는 일도 생겼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들의 장례식 때 이런 저런 기억들이 납니다. 술이 주는 유익함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술은 무익한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홍수 후 하나님께 복을 받아(1절) 누리는 가운데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0절) 하루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 고 있었던 이야기(21절)가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였는데(6:9) 그가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노아의 모습을 생각할 때 성경 마태복음 24장37-3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하면서 멸망의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시대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쾌락에 도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부귀영화에 도취해 있는 것 같고 성적 쾌락에 도취해 있는 것 같고, 이런 저런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술 중독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 취함에 있어서 한 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이란 어리석음을 취하는 것이다’.

둘째로, 솔로몬 왕이 쾌락을 누리보려고 시험적으로 시도해 본 것은 큰 ‘사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4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솔로몬 왕은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3절) 시험적으로 시도해 본 두 번째 일은 바로 큰 사업 경영이었습니다(4절). 여기서 그가 시도한 큰 사업 경영이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집들이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4절 하반 절),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5절)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판 것을 말합니다(6절). 그리고 이 모든 집이나 포도원이나 여러 동산과 과원 등을 관리해야 하니 솔로몬 왕은 노비도 사기도 하고 또한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습니(7절). 왜 그는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시험적으로 쾌락을 누리보려고 한 이유도 있었지만 결국은 ‘부(wealth)’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 절-8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솔로몬 왕은 자기 개인을 위하여 이렇게 세상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타락한 것은 평안한 때에 된 것입니다(대상22:9)(박윤선).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평안할 때 사치스런 생활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치스러운 생활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인격을 타락시킵니다(박윤선). 사치란 무엇입니까? 사치란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뜻합니다(인터넷). 인터넷 오마이 뉴스를 보니까 “명품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쓰인 기사가 있어 보았습니다(인터넷). 그 기사에 김난도란 사람은 “사치의 나라 럭셔리 코리아”에서 사치품을 구입하는 유형을 크게 4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과시형 사치’, ‘질시형 사치’, ‘환상형 사치’, ‘동조형 사치’:

(1) 과시형 사치란 흔히 부자들이 계급적인 특성을 의식해 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남들과 같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소유한 그들은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본으로서의 계급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치란 그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두 번째로 질시형 사치란 가짜부자들이 진짜부자를 흉내 내기 위해서 하는 사치입니다. 이들은 그들을 질시하면서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여력이 없음에도 사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3) 세 번째 구매 유형인 환상형 사치는 초라한 것을 두려워하고 변신을 꿈꾸는, 일종의 나르시시즘이 강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무리해서라도 비싸고 유명한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것의 덕으로 자신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환상형 사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마지막은 '동조형 사치'입니다. 이것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준을 맞추려고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친구들이 모두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었기에, 나도 입어야 한다는 심리가 그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산다"는 논리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무리해서라도 사치품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죄책감을 떨치는데 문제는 이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수에 넘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속에 풍자돼 나도는 미국 이민사회야야기 하나가 있어 나눕니다: “미국 이민을 왔을 때 엘에이(Los Angeles)간 사람은 셋방살이를 하더라도 먼저 고급 승용차를 사고, 뉴욕간 사람은 먼저 비즈니스 업체를 구입하며 시카고로 온 사람은 우선 집부터 장만한다고 한다. 이것은 뉴욕과 시카고 이민자들은 실속을 차리고 자신의 분수를 지켜 앞으로 살아갈 터전을 마련하는 데 비해 엘에이 이민자들은 외화내빈으로 남의 눈을 먼저 의식하고 체면을 생각하는 외형적 사고방식을 빚대 한 말이다(사실은 아니지만)”(인터넷). 여러분은 ‘수분지족(守分知足)’란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분수를 지키는 것을 수분(守分)이라 하고 분수를 아는 것을 지분(知分)이라 하며 분수에 만족하는 것을 안분(安分)이라고 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분수가 있습니다. 제 분수를 바로 알고 제 분수에 맞는 행동을 하며 제 분수에 지나치게 과한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분수에 지나치는 것은 ‘과분(過分)’이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한문의 ‘과(過)’는 두 가지 뜻을 갖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나침’ ‘과’요 둘째는 ‘과심’의 ‘과’입니다. 지나치면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과’는 불행의 원인이고 질병의 요인이 됩니다. 과식·과음·과로·과색·과용 등은 모두 건강을 해치고 행복을 좀먹습니다.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일이나 지나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생활에 만족할 줄 알아야하고 머무를 자리에서는 머무를 줄 알아야 합니다(인터넷). 우리는 소유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솔로몬 왕처럼 사업을 크게 경영하는 사람들은 소유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소유욕이란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그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지만(7절)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았습니다(8절). 이 모든 것들을 자기 것들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원하는 욕망이 바로 소유욕입니다. 결국 이러한 소유욕 또한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두 번째 시도인 사업을 크게 하는 경영 또한 “어리석음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3절).

셋째로, 솔로몬 왕이 쾌락을 누리보려고 시험적으로 시도해 본 것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처와 첩들을 많은 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8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성경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에 대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할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서로 통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통하지 말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왕상 11:1-3).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하신 이유는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이방인 신들을 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2절).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인 솔로몬 왕은 “바로야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1절). 그에게는 후비가 700명, 빈장이 300명이나 있었고(3절) 이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이켜(3절) 왕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습니다(4절). 결국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였던 문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의 죄까지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행하는 육체적 간음 행위는 결국 영적 간음의 죄악 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지난 주 금요일 야후 인터넷 뉴스 기사에 ‘하나님의 뜻으로 성관계’ ... ‘여신도 성폭행한 목사’란 제목 아래 글이 있어 읽어 보았습니다(인터넷0: “10여 년간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T종교단체 목사 A씨(46)에 대해 준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서울 동작구에서 T 종교단체를 결성한 후, 지난 10여 년간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며 나와 성관계를 하면 모든 죄가 씻겨진다”며 총 6명의 20대 여성 신도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T 종교단체가 리플을 보니까, “통일교”란 말도 있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이러한 성적 타락의 범죄행위는 우리 기독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말할 때 우리는 ‘정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욕’은 식욕 및 수면욕과 더불어 인간의 3대 욕구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인터넷).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어서 육체적인 욕망인 정욕에 빠져들어 포로가 되면 강간 같은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정욕이 충동적인 방향으로 폭발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강간입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행되는 상류층의 부부 스와핑(swaping), 아예 결혼이라는 개념조차 없애버린 변화무쌍한 동거,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거침없는 혼전 성교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너무도 쉬운 이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폰섹스나 화상 섹스, 카메라 폰이나 컴퓨터 카메라들 통한 즉석 음란 화상 전송, 인터넷 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중고대생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초등학교에까지 확산되는 성 경험의 급속한 증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까지 중독을 일으키는 인터넷 혹은 사이버 포르노! 이렇게 날이 갈수록 자극적, 노골적, 변태적이 되어 가는 우리의 성(性)문화를 보노라면,

성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또 성욕은 본능에 따라 때와 장소 혹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마음껏 발산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인터넷). 참으로 심각한 사회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사회는 부부 사이에 한번쯤 바람피우는 것은 기본이라는 인식이 세상에 만연한 것 같습니다. 성적 쾌락이 난무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의 쾌락 추구 가운데 육체적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했던 그의 노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 왕이 쾌락을 알고자 자기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과 큰 사업을 통한 부와 소유물들, 그리고 육체적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누렸던 1000명의 여인들,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결론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1절 하반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즉, 솔로몬 왕은 시험적으로 자기 자신을 쾌락주의에 빠져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여 낙을 누리본 결과 그의 체험적인 결론은 바로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헛된 것입니까? 쾌락이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 왕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로 그는 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다시 말하면, ‘쾌락이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What does pleasure accomplish?)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11절). 결국 그는 무엇이든지 자기의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누리보았지만(10절) 그러한 체험을 통하여 내란 결론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쾌락은 헛되고 무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헛되고 헛된 세상, 추구했던 쾌락이 실제 체험적으로 헛되고 무익하다는 결론을 내린 전도자 솔로몬 왕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그 대답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시43:4).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지킵니다(전12:13).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므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요15:9-11).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기쁨을 누렸던 사도 바울은 주님이 명령에 순종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가리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빌4:1). 바라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1.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5.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찬송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수요기도회 때 찬양한 후,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전도서 2장 12-26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면 어느 성경구절이 생각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전도서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헛되다는 사실(1:1-11), 이 세상의 지혜가 헛되다는 사실(1:12-18),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이 헛되다는 사실(2:1-11)을 깨닫고 더 이상 헛된 세상, 헛된 지혜, 그리고 헛된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오는 세상, 하늘의 지혜, 그리고 헛된 쾌락이 아닌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시43:4)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26절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누리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어떻게 행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2장 12-26절 말씀 중심으로 한 2 가지로 생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죽음의 관점으로 자신의 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12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 이미 솔로몬 왕은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습니다(1:17). 그렇게 마음을 써서 지혜를 알고자 했으나 그의 결론은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금 자기 생각을 돌이켜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2:12-17). 분명히 그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고 말하였는데(1:18)

이렇게 다시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가 스스로 번뇌(근심)의 길을 또 다시 걷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한 번뇌와 근심 속에서 솔로몬 왕이 던진 질문은 ‘자기 뒤에 오는 후임자가 이미 자기가 이룬 것 외에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12절하). 그는 자기가 죽은 후 자기의 자녀와 후손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자기의 지혜를 좇아 자기가 이룬 것 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마음으로 준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 중 하나는 자녀,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칠·팔십 살오면서 터득한 인생의 지혜를 자녀,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또한 솔로몬 왕처럼 죽음 앞에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고자 우리의 삶의 지혜를 남겨둬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남겨놓은들 과연 그들이 우리의 지혜를 가치 있게 보고 좇을지 안 좇을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솔로몬 왕처럼 쾌락을 누리려고 하려 실험적으로 술도 취해보고 사업도 크게 하여 부도 누리보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여자들도 많이 접해 보고 등등 다 해본 후 이것이 무익하고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죽기 전에 혹은 그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더 나아가서 후손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우리의 교훈을 듣고 과연 우리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므로 말미암아 ‘아 내 아버지가 쾌락을 누리려고 하려 실험적으로 해 본 것들 나는 절대하지 말아야지. 오히려 난 내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면서 순종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야지!’라고 할런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자녀, 후손들이 우리의 지혜를 가치 있게 여겨서 우리 삶에 터득한 지혜의 교훈을 겸손히 받아 순종할까요? 두렵지만 드는 생각은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배운 교훈을 가르친다 하여도 그들 또한 우리처럼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직접 자기가 쾌락에 빠져보고 나서야 ‘아 그 때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야 하는데...’라고 후회하지 않을까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바로 전도서 1장 9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미 우리가 한 일을 후에 우리 자녀들이 또 다시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서 실험적으로 또는 실수로 경험하여 터득한 것들을 자녀들, 후손들에게 가르쳐 줘도 그들은 듣지 않고 우리가 범한 실수를 그들 또한 범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지 오랜 일일뿐이니라”(2:12).**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 것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13절). 어떻게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납니까? 14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 어떻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납니까? 지혜자는 눈이 밝아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주어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지만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위어스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죽음의 관점으로 지혜자와 우매자를 바라보았을 때,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14절하).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은 지혜자가 우매자나 그들의 결국은 다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은 후에는 다 잊힌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심중에 “우매자의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15절상)라고 말하면서 “이것도 헛되도다”(15절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만사가 헛되다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래서 그는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17절).

왜 솔로몬 왕은 자기의 생을 한탄했습니까? 왜 미워했습니까? 그 이유는 솔로몬 왕은 해 아래서 하는 일이 자기에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17절). 결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에 삶에 대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결코 한탄하며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는 삶을 사랑합니다(벧전3:10)(위어스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자신의 삶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죽음의 관점으로 자신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헛된 지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남은 주어진 인생을 위로부터 온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게 살아드립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우매자들처럼 눈이 어두워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눈이 밝아 빛 가운데 다니면서 빛 되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갑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는 죽음의 관점으로 자신의 수고를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은 죽음의 관점으로 자신의 지혜를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한 후(17절) 해 아래서 자기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습니다(18절). 오늘 본문 18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왜 솔로몬 왕은 해 아래서 자기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탄하였습니까? 워렌 위어스비(Warren Wiersbe)

목사님은 한 3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자신이 수고한 모든 수고를 통해서 얻은 부(wealth)를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18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솔로몬 왕은 죽음의 관점으로 자기가 수고하여 얻는 분복인 모든 물질들, 자신의 부를 생각해 볼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 부를 자기가 가지고 갈 수가 없고 오히려 자기가 죽은 후 자기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는 자기의 모든 수고를 한탄하였습니다. 지난 주 한국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어느 대 기업 전 회장의 자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한 때 부를 누렸던 큰 기업의 회장이 결국 부를 자녀들에게 남기고 가기보다 빚(채무)만 떠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형제간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었는지 동생이 그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을 때 있었던 일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과연 죽은 이 고인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녀, 후손들에게 남기고 갈 것입니까? 우리가 죽음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둘째 이유는, 자신이 수고한 모든 수고를 통해서 얻는 부(wealth)를 자기가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 왕은 죽음의 관점에서 자기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았을 때 자기가 분복으로 얻은 모든 부를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자녀에게 다 물려주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 그는 한탄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칠, 팔십 평생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나 얻은 물질들을 죽기 전에 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떠나려고 할 때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미련하여서 여러분이 평생 이뤄 놓은 것이나 얻은 물질을 다 허비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얼마나 허무하고 참 자신의 수고를 한탄하겠습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 이러한 한탄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보호할 수도 없는 모든 수고로 얻은 물질들, 자신의 부를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다 물려주고 가야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 죽은 후 그의 후임자인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로 나뉘어져서 북쪽은 여로보암, 그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치리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기회들을 다 낭비하였습니다(맥아더).

상상이 되십니까?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기

후세대인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에 자기가 평생 수고하여 이뤄놓은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솔로몬 왕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이 장차 일어날 일을 알고 있으면서 해 아래서 자기가 한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볼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수고하여 얻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는 그 물려 준 것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 관리할 때(19절) 다 탕진할지 아니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남겨둔 물질을 잘 사용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결국 그는 죽음의 관점에서 해 아래서 수고한 자기의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실망하였습니다.

마지막 셋째 이유는, 자신이 수고한 모든 수고를 통해서 얻는 부(wealth)를 우리가 즐겨야 할 만큼 즐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이 수고한 모든 수고를 통해서 얻은 부를 자기 일생에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자기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기에 이것도 헛된 것이요 큰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1절). 또한 그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22절)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23절). 무슨 말입니까? 일평생 근심하며 애써 수고하여 얻는 것이 슬픔뿐이라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밤에도 쉬지 못하고 신경 쓰면서 일평생 열심히 수고한 결과가 슬픔뿐이기에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1, 23절).

이렇게 솔로몬 왕은 죽음의 관점으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수고를 생각해 볼 때 내린 결론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수고가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가 깨달은 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2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수고가 헛됨을 고백하면서 깨달은 교훈은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로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수고로 만족을 누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물질생활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재주로

누리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먹으며 또 즐거워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5절).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26절). 어느 정도로 누리게 하시는가 하면 죄인들에게 노고를 주사 그들로 하여금 수고하여 모아 쌓게 하신 물질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게 하십니다(2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죄인에게는 이 땅에서 수고(고생)하여 얻은 물질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죄인들의 물질도 누리게 하십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누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낙을 누리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1)

[전도서 3장 1-14절 말씀 묵상]

여러분들은 지금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주 토요일 저녁, 저희 교회 1구역 예배 때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도 참석하였었는데, 그 분이 예배 후 저녁 식사하면서 저에게 새로 나온 영화 '2012'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 2시간 넘은 영화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액션이 참 많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12'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좀 인터넷을 뒤져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재난의 총집합 영화로서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고대 마야 문명에서부터 끊임없이 회자되어 온 인류 멸망에 대한 이야기 중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마야인이 만든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 밖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가 봅니다. 또한 저명한 과학자들도 오랜 연구 끝에 실제로 멸망의 시기가 2012년이라고 합니다. 1940년대 이후, 그중에서도 특히 2003년 이후로 빙하기 말기에 급속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내린 지 1만 1000년 만에 태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납게 행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은 그동안 관측한 결과를 토대로 2012년이면 태양의 활동이 또다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고 합니다. 태양에 폭풍이 일면 지구에도 폭풍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 세계 곳곳에서는 지진, 화산폭발, 거대한 해일 등 각종 자연 재해들이 발생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최후의 순간이 도래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제가 지난 주 토요일 이 영화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 다음 날 주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저희 교회 90이 넘으신 한 집사님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집사님께서 전에 일본 신문에서는 2050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기사를 보시고 저에게 대화를 나눌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 제가 집사님에게 농담으로 2050년이면 '집사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실 것이니까 걱정이 없으시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젠 지구 멸망이 2050년이 아니라 2012년이라고 해서 그저 농담 삼아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영화나 신문 기사들, 즉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세상 얘기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은 알고 있는 듯 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누가복음 12장 56-5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사람들이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변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2'라는 영화처럼 지구 멸망이란 재난 영화들과 종말에 대한 책들이 계속 나오곤 있지만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전도사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1)’이란 제목 아래 본문 전도서 3장 1-14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는지 우선 한 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적을 이루시므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여기서 솔로몬 왕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한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일)하시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위어스비). 이렇게 말하면서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까지 여러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때를 한 5개로 나눠 보았습니다:

(1) 첫째로,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미 솔로몬 왕은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2:16).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 우리는 이 태어날 때도 있지만 분명히 죽을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남과 죽음이란 나무로 말한다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람은 태어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람은 죽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무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뜻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들어나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그의 주권적인 뜻을 이뤄 나아가시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기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태어남보다 저의 죽음을 아름답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저로 하여금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해 주시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말한다면 잘 심겨져서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드리다가 뽑히길 하나님께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저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그 이유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뤄질 때 저의 삶과 죽음은 아름다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둘째로, 징계 받을 때도 있고 회복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3절, 5-6절, 7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고 회복 하실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박운선). 사람을 죽일 때나, 건물을 헐 때나, 돌을 버릴 때나, 안는 일을 멀리할 때, 찢을 때는 다 하나님의 징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치료할 때나 건물을 세울 때나, 돌을 거둘 때나 안을 때, 찾을 때, 지킬 때, 꿰맬 때는 다 회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 왕은 징계 받을 때와 회복 받을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연약하여 옛 습관 속에 살므로 하나님께 범죄 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 할 때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에는 중요한 것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 자복 및 회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셨다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징계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는 우리를 때리시고 또한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회복 사이에는 우리의 죄 자복 및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 자백과 회개가 없으면 회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회복 가운데 그의 사랑과 우리의 죄 자복 및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시사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3) 셋째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4절을 보십시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 곤고한 일, 죄악 된 일, 죽을 일이 쌓인 세상입니다. 시편 기자 모세가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년 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 수의 자람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시90:10).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모두 다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슬퍼 울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의 슬픔을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같은 눈물을

흘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흘려야 하는 눈물은 바로 회개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고난과 고통 중에서 울며 슬퍼해야 합니다. 이러한 눈물과 슬픔은 참 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전7:3). 우리 얼굴에는 근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얼굴에 근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좋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좋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경건한 근심함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므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경건한 근심이야 말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근심함은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 때나 기쁨 때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허락하신 슬픔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 때나 웃을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4) 넷째로,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7절 후반 절을 보십시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이미 솔로몬 왕은 전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함부로 입을 열어 말을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중언부언 하면서 했던 말 또 하면서 기도를 길게 하는 것보다 마음을 쏟아 진실 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기도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길게 하고 짧게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잠해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잠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많이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후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잠잠케

하시며 또한 말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 우리의 죄를 자백케 하시므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5) 마지막 다섯째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할 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악을 미워할 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웬지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사랑해야 할 이웃은 미워하고, 미워해야 할 죄악은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아름답기보다 추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대상과 미워할 대상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악을 미워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사랑의 대상과 미움의 대상을 혼동시키는 사단의 유혹에 대항하여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므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평화 속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며 또한 미움과 전쟁 속에서도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 속에서 그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므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울 때나 웃을 때나, 징계 받을 때나 회복 받을 때나, 잠잠할 때나 말할 때나, 사랑할 때나 미워할 때에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이뤄 나아가시므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이 모든 때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할 때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없어 보일지라도(사53:2)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1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2)

[전도서 3장 1-14절 말씀 묵상]

오는 금요일 저희 교회 최 집사님의 아드님의 추모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55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한 집사님의 아드님의 추모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 수요일에 묵상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1)’이 생각났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는 우리의 인생, 언제가 우리 모두 죽음을 맞이해야 할 때가 올 터인데, 이미 고인이 된 최 집사님의 아드님을 생각할 때 죽을 때에도 주님의 목적, 주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본문 전도서 3장 1-14절 말씀 중심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1)**’이란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지 그 첫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적을 이루시므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1절). 여기서 ‘때’에 대하여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 여러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여러 때를 한 5개로 나눠서 묵상하면서 그 모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1)날 때와 죽을 때(2절), (2)징계하실 때와 회복하실 때(3, 5-6, 7절 상반절), (3)울 때와 웃을 때(4절), (4) 잠잠할 때와 말할 때(7절 하반 절), (5)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때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적을 이뤄 나아가시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헐 때나 세울 때나, 울 때나 웃을 때나, 잠잠할 때나 말할 때나, 사랑할 때나 미워할 때나 등등 범사에 기한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한에서도 그의 주권적인 뜻을 이뤄 나아가시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를 하나님께 찬양을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은 이어서 본문 전도서 3장 1-14절 말씀 중심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2)**’란 제목 아래 마지막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지 묵상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므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1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솔로몬 왕처럼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일하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한 이익이 무엇인가?’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질문을 오늘 본문 전에 이미 두 번이나 던졌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1:3),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2:22).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9절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진 후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3:10). 그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일하면서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일하면서 수고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솔로몬 왕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2:23)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헛된 일 또는 헛된 수고를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1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이유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헛된 일이나 헛된 수고를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일과 수고를 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수고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들에게 유익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박윤선). 그러면 남들에게 유익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남들을 유익하게 함에 있어서도 영원한 관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즉 남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영원한 관점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관점으로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영원하신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만큼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수고하므로 우리는 낙을 누리야 합니다(전3:13). 다시 말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므로 말미암아 낙을 누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the gift of God)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하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는 영원히 있을 것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동참하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행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 차 안에 가지고 다니면서 가끔 들고 밖에 가지고 나아가 읽는 작은 신약 성경책을 펴서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읽다가 저의 시선은 로마서 13장 11절에 좀 멈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여러분은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구원을 사모하며 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때,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보길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서 3장 14절)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사는 동안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요?(전1:3)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2:2)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2:22)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3:9)

전도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하고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했는데 수고하여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5:15) 다만 슬픔뿐이라면 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얻은 것을 아무것도 우리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할 진대 말입니다(5:15).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전도서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무엇이 길래 영원히 남을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11절, 현대인의 성경)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바로 주님의 ‘영원한 구원’의 일입니다.(사 45:17) 여기서 주님의 영원한 구원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사(렘31:3)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그 분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엡1:4-5)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일2:25) 구주 예수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어(시145:13; 벧후1:11)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일(고후4:17)을 가리킵니다. 한 마디로, 영원히 남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시는 일입니다(딤후2:10).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진노”(말1:4)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데서(유1:7) 건져주시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인(벧전5:10)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고후5:1)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전3:11).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원히 통치하시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시145:13).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고난을 당하겠지만, 우리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벧전5:10)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일에 겸손히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전3:14) 하나님의 부르심(고전7:22, 롬1:6, 계17:14)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계14:6)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전10:3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 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빌1:5, 7).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계19:1),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어린 양의 노래”(계15:3)를 부를 그 날을 사모하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3)

[전도서 3장 14-22절 말씀 묵상]

지난주일 지도자 모임 때 각자 돌아가면서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짧게나마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크리스마스카드와 함께 편지를 써서 여기 저기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 중 이런 문장을 있습니다: “이렇게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시무룩할 때도 있었고, 울 때도 있었지만, 마음 아파 힘들어 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고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 한 해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이 주 동안 수요기도회 때 전도서 3장 1-14절 말씀 중심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한 2 가지로 우리는 묵상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목적을 이루시므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므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본문 전도서 3장 14-22절 말씀 중심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3)**’란 제목 아래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는지 묵상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고자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심판이 세상 법정에서 행해질 때에도 그의 목적(뜻)을 이뤄 나아가시므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지혜자 솔로몬 왕이 해 아래인 이 세상에서 목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법정에서 재판장들이 의인과 악인을 공평히 재판하여 구별하지 않는 일입니다(박운선). 솔로몬 왕 시대 때나 지금이나 세상 법정에 얼마나 많은 불의가 행해지고 있습니까? 공의를 행해야 할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불공평이 재판하는 이러한 세상 법정, 돈만 있으면 최고의 실력을 가졌다는 변호사들을 사서 살인 같은 죄를 범하고도 무죄 판결을 받는 이러한 세상 법정에 우리는 공의가 아닌 불의, 진실이 아닌 거짓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 성도들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이 그랬습니다. 의로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무법한 자들, 즉 불의한 자들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습니다(벧후2:6-8). 그러나 솔로몬 왕은 이러한 불의의 이들이 특히 불의한 심판이 행해지는 때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므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전3:14-22).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것일까요? 한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 첫째로, 이 세상의 불의의 심판이 행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세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므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솔로몬 왕이 마음으로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현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그래서 그는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 하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선을 행한 것이던 악을 행한 것이던)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와 신자의 심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의 심판은 불못(일반적으로 지옥으로도 불리는 영원한 징벌의 장소)에 던져지기 직전에 행해질 마지막 심판을 받지만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한 일에 따라 보상 받을 것입니다(인터넷).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11:9) 그는 청년들에게 젊었을 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좇아 행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경고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은 젊은이들에게 사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솔로몬 왕처럼 우리의 심중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음이라**” (3:17).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1절). 그 기한(때) 중 분명히 심판의 때도 있습니다(17절). 그러한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법정에서 행해지는 불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의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14절)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불의의 심판이 행해지는 때에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므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재판(16절)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악인들의 불의한 재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시험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시련에 의하여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시련에 의하여 겸손케 하시는 것입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그 시련에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시련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학대를 받아 죽는 육신의 죽음에 있어서는 짐승과 같음을 깨닫고 육신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결국 시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사 육신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9-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들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 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흠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기 때문에 육신 중심으로 사는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TV이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지른 살인자를 보면서 ‘짐승 보다 못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쌍둥이를 임신한 한국 여성을 겁탈하고 살인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겁탈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60대 된 사람이 말렸는데도 안 되니까, 911을 불렀지만 결국 그 여성은 아이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기자 아삽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시73:22) 아삽이 누군가를 잔인하게 살인하였습니까?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짐승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가 범한 죄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 것이 과연 짐승 같은 행동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9-20절과 연관해서 얻어야 할 교훈은 육신 중심적인 삶은 짐승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가리켜 솔로몬 왕은 헛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결코 육신의 일을 추구하면서 짐승과 같이 헛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22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일, 영원한 일, 주님의 일에 즐거워하면서 충성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분복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2절 하반 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22절)(박윤선). 한번 사는 인생,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하면서 헛되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적어도 사람의 영혼의 장래와 짐승과 다름진대(21절)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면서 짐승처럼 살다가 죽겠습니까?

어제 새벽기도회 때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믿는 자라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기에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았습니다. 불법한 자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의 것을 믿는 자들이 복음에 불순종하면서 이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심판이 세상 법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내세에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믿게 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하시며 또한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참된 사람의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므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오게 되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새해에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서 4장 1-3절 말씀 묵상]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 1월 3일,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과 기도 모임을 갖은 후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일은 교회 집사님 한분이 수면제 약인지를 많이 드시고 자살시도를 하셨습니다. 그 날 주일 오후에 제 아내와 장로님과 두 자매가 찾아가서 도와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 제 아내가 아파트에 찾아뵈려고 갔을 때에는 이미 집사님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셨다가 지금은 양로원에 가게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은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대학생이 선교지에 나아갔다가 익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영어사역에서 그 형제의 어머니와 봉사하면서 그 형제가 중학교 때 영어 예배 때 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선교지에 나아갔다가 익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람 속에서 어떻게 그 형제의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해서 기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바 아버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형제의 부모님과 누나, 그리고 친구들 및 교회 식구들을 위로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근심된 일이, 곤곤한 일이, 죄악 된 일이, 죽을 일이 많은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저런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봅니다. 과연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란 단어를 생각하면, 욥기 16장 2절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과 사도행전 4장 16절에 나오는 바나바가 생각이 납니다. 욥기 16장 2절을 보면 욥은 자기를 위로하려고 온 친구들을 가리켜 “번뇌케 하는 안위자”(sorry comforter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6절을 보면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바나바를 가리켜 “권위자”(Son of Encouragemen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번뇌케 하는 위로자였지만, 초대 교회에 나오는 바나바 선생은 참된 위로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에 불타는 위로자와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저는 주위에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기에 위로하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로버트 스트랜드(Robert Strand) 목사님이 쓰신 ‘위로의 영성’이란 책을 보면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는 101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 머리말을 헨리 나우웬(Henry Nowen) 신부님이 쓰셨는데 거기서 그는 ‘위’라는 말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위로한다는 것은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있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어 주는 것을

가리켜 나우웬은 “돌봄”(care of soul)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울어 주는 것, 같이 고생하는 것, 같이 느껴 주는 것, 돌봄은 측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웬 신부님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흔히 우리 슬픔은 우리들을 춤추게 합니다. 또 우리 춤은 우리 슬픔을 위한 공간을 창조해 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흘리는 눈물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기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어릿광대의 얼굴이 슬퍼 보이기도 하고 기뻐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 슬픔과 춤, 비통함과 웃음, 애통함과 기쁨은 모든 한 곳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이렇듯 슬퍼하는 것과 춤추는 것이 서로 맞닿는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스트랜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슬퍼하는 것과 춤추는 것이 서로 맞닿는 곳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1-3절에 나오는 전도자 솔로몬 왕도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 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1절) 그는 이 세상에서 목격한 것은 바로 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들을 학대하는 모습입니다. 즉, 그는 학대 받는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학대 받는 사람들의 흘리는 눈물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학대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바로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는 학대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있는 산 자보다 죽은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돌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2-3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결코 학대 받으면서 살 바에 아예 죽는 게 낫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솔로몬 왕은 학대 받는 것보다 자살하는 게 더 낫다고 자살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살을 권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요즘 인터넷을 보면 자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자살 웹사이트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만나 함께 자살하는 경우도 우리가 한국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과거에도 우리는 접했습니다. 제가 주위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것만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지금 경제적으로 더욱더 힘들어지면서 삶에 고통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자살 충동 속에서 자기의 귀한 생명을 스스로 앗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여 자살하는 경우도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듯 해 보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2절은 자살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아 지혜자 솔로몬 왕도 학대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가 보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죽지’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앗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은 결코 자살을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권세 잡은 자들의 학대로 인하여 학대 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렇게

학대 받는 사람들의 삶이 죽음보다 못하다는 사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자체를 죽음보다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불의한 압제를 받는 고통스러운 생활이 죽음만 못하다는 것뿐입니다(박윤선).

과연 죽음만 못한 고통스러운 생활 하면 어떤 생활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볼 때 탈북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이 2006년 5월 1일 북한인권법에 따라 처음으로 미국으로 입국한 탈북 여성들의 증언을 통해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소개한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가명인 한나라는 여인(36세)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평양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어려운 살림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옷감 장사로 나섰는데, 옷감을 얻기 위해 국경마을에 갔다 저녁 식사 도중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이미 인신매매를 당해 중국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중국 사람에게 팔려 중국인 남편으로부터 “너 같은 북한사람을 죽이는 것은 닭을 죽이는 것보다 쉽다”는 폭언과 함께 뼈가 부러질 정도로 구타를 당하면서 한때 자살까지 생각했었다면서 당시에는 “마치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인터넷). 이런 탈북자들의 증언이 한두 개이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탈북자를 접하다 보니깐 출애굽기가 읽히지더라.”

이러한 자들에게 있어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3절에의 말씀이 얼마나 더 피부로 느끼며 공감하겠습니까? 죽은 자나 산자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탈북자들은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악을 보지도 않고 또한 죽는 것을 원할 만큼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온 삶을 뒤돌아 볼 때, 참 죽지 못해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숨 쉬고 산다는 자체가 죽음만도 못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한없이 눈물 속에서 거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는 것을 원할 만큼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 때에 고통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1절). 우리가 제일 힘들고, 제일 괴롭고, 마음이 너무 아플 때 우리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하는 것은 주위에 진정으로 우리의 힘들과 괴로움과 아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며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더욱더 괴로운 사실은 주위에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아니 어쩌면 너무 괴로워서 그들의 위로를 거절하고 있을 때)입니다. 악인의 악행은 끝이 없어 보일 때, 학대와 압제의 행위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이라는 마지막 끈을 놓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가지로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 영혼에게 말해야 합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책 중에 하나는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쓰신 ‘영적 침체’(Spiritual Depression)란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전 받은 것은 우리가 낙망하고 절망할 때 시편 기자처럼 자기 영혼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그 한 예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시편 42편 5, 11; 43편 5절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저는 가끔 낙심이 될 때에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 자신에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곤 합니다: “제임스야, 너는 왜 낙망하며 왜 불안해하느냐. 제임스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소망하라).” 그러면서 저는 저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의도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자 애씁니다. 그리할 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낙망하며 절망 될 때 여러분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꼭 시편 말씀 아니래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교회를 섬기다가 힘들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인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16:18)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고통으로 인하여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분의 고통을 잠잠히 바라보며 묵상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과 연결될 때에야 참된 위로와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낙망될 때, 요나 2장 4절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제가 이 요나서 말씀을 생각하는 이유는 주님의 종 요나처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계의 폭풍을 맞아 바다 깊은 속이란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낙망하며 절망될 때 이 요나서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낙망과 절망을 오히려 주님을 갈망하는 기회로 감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절망이란 예수님을 소망케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일들로 절망하게 될 때, 그 절망이란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절망이란 결국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좀 철저히 이 세상에 실망하며 절망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좀 철저히 실망하며 절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절망감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좀처럼 갈망하며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488장(구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의 3절 가사를 좋아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민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제가 이 가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세상에 우리가 믿던 모든 것 다 끊어질 때에 그 때야 비로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절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더욱더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5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찬송가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1절과 5절].

소망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어느 누구의 위로도 여러분이 거절할 때에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과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길 기원합니다. 슬퍼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서로 맞닿는 그 곳에서 인생의 아름다움, 즉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 한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쓴 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마음의 눈물 속에서도 얼굴에 미소를 띄우시는 권사님,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사랑하는 아드님의 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권사님,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자기 가정보다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을 더 생각하시는 권사님,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위로 받기보다 위로하시는 권사님,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하시는 권사님,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에 힘을 쓰시는 권사님,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권사님,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I see Christ in you ...

하나님께서 권사님과 함께 하심을 볼 때에 "권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

제임스 목사 올림

위로의 성령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사랑의 불타는 위로자가 되길 기원하면서)

“평온함”

[전도서 4장 4-6절 말씀 묵상]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함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문'(The Serenity Prayer)을 읽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문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God, grant us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we cannot chang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we can, and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Amen)(인터넷).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기도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기도를 한 번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달라고는 기도해 보았지만,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서 제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제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꾸려고 노력한답시고 좀 발버둥 칠 때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마음의 평온함이 없이 갈등과 고민과 자책감 속에서 허덕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에 비취진 제 자신의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평온함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쓴 “평온함의 십계명”이 있어 나눕니다(인터넷). 아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평온함의 십계명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1. 오늘만이라도 나는 내 삶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오늘만이라도 나는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이다. 나는 아무도 비판하지 않을 것이며 남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내 자신만을 비판하고 바로잡으려 할 것이다.
3. 오늘만이라도 나는 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행복해 할 것이다.
4. 오늘만이라도 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정들을 나의 소망에 적응시키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것에 적응할 것이다.

5. 오늘만이라도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의 10분 동안을 독서에 바칠 것이다. 육신의 삶에 음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의 삶에도 좋은 독서가 필요하다.
6. 오늘만이라도 나는 착하게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7. 오늘만이라도 나는 내 욕망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내 마음에 유감스런 일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것을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도록 조심할 것이다.
8. 오늘만이라도 나는, 설령 그것이 내 뜻과는 정반대가 되더라도 하느님의 섭리가 이 세상에 나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를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것이다.
9. 오늘만이라도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10. 오늘만이라도 나는 정확한 계획표를 작성할 것이다. 설사 그 계획을 정확히 실행할 수 없을지라도 작성할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악, 즉 '조급히 서두는 것' 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것' 을 경계할 것이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4-6절에서 전도자 솔로몬 왕은 우리가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3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는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가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전도서 4장 1-3절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이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다(목격했다)는 사실을 생각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은 학대 받는 자들과 그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4절에서 그는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면서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본 것은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서로 경쟁심을 가지고 모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란 무엇입니까? 시기란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일, 또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며,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일, 또는 그런 마음도 시기의 습관’에서 형성됩니다. ‘시(猜)’자는 ‘개 견’ 변에 ‘푸를 칭’자가 합성되어 ‘개가 푸른 상태’, 즉 개가 다른 개가 먹이를 소유한데 대하여 으르렁거리며 파랗게 되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기(忌)’자는 ‘기심(己心)’의 출입자로서 자기중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기적 감정으로서의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인터넷). 라틴어 Indivia란 ‘악하게 위로 쳐다본다’는 의미로서 ‘악한 눈’을 만드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즉, 시기는 타인의 소유, 특별히 자기 것 보다 더 훌륭한 소유에 대한 슬픔과 불쾌의 감정으로서, 그로부터 그것을 탈취하려는 욕망을 수반합니다(인터넷). 성경 사무엘상 18장 9절을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을 주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다윗에게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7절)라고 하였을 때 사울 왕은 그 날 후로 질투의 눈(a jealous eye)으로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요즘 새벽기도회 때 창세기를 읽으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시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0장 1절을 보면 아기를 낳지 못했던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기를 낳는 자기의 언니 레아를 시기(투기)하여 남편이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고 바가지를 굶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창세기 37장 11절을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시기가운데서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시기가 무섭습니까? 시편 기자 아삽도 악인의 행동을 시기(질시)하였습니다(시73). 의인은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은 잘 먹고 잘 사며, 행통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시기할 수 있습니다. 부러움이 슬픔과 불쾌감으로 변질되고 더 나아가서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고 싶은(혹은 탈취하고 싶은) 욕망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잠14:30)**. 마음의 화평, 마음의 평온함은 우리 육신에게 생명을 주는데 비해 시기는 우리 깊은 뼈 속까지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뼈에 좋은 것은 선한 말,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화평입니다. 뼈에 나쁜 것은 시기, 근심, 분노입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고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분노는 뼈를 죽게 합니다”(인터넷).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어느 신학교 총장 임직식에 참석했을 때, 한 어르신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교역자들 사이에 선한 경쟁을 시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때 저는 좀 의아해 하였습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을 서로 경쟁을 시키는 것인가라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과연 선한 경쟁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경쟁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선한 경쟁이라는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경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4절에서 솔로몬 왕의 말에 근거해서 사람들 사이에 경쟁심을 갖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경쟁심이란 결국 마음에 평온함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쟁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화평보다 시기, 근심, 분노로 채워질 가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4절에서 이웃과 경쟁하는 의미에서 가지는 욕심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4:4)(박윤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온함을 빼앗아 가는 경쟁의식, 시기를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웃과 경쟁하는 의식을 가지고 욕심의 헛된 수고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마음의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 시기를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솔로몬 왕은 우매자, 즉 미련한 자는 ‘손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거둔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미련한 자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잠21:25).**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자는 우매자, 즉 미련한 자입니다(전4:5).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 공동체 안에는 일하기 싫어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규모 없이 행하여 일만 만들었습니다(11절). 왜 이들은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일만 만들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이들은 미련하게 게을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지 않고 손을 거두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 중 손을 거두고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빼돌어진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거두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마치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1874년도에 있을 것이라는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 찰스 테이즈 러셀(Charles Taze Russell)의 예언을 듣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느라 모든 것을 중단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 잘못된 예수님의 재림관을 가지고 손을 거두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 외에 어떤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을 거두고 일하지 않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게으른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게으른 자는 핑계를 잘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26장 13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길과 거리는 사람들이 일하는 일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자가 있다면 그런 곳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겁을 먹고 자신이 없을 때 핑계를 대는 구실입니다’(인터넷). 게으른 자의 또 다른 특징은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26장 14절을 보십시오: **“문짝이 들췌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으느니라.”** 이것은 게으른 자는 잠자리를 맴돈다는 말입니다. 즉,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뒹굴면서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 구절들 외에서 성경 잠언은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쫄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잠6:9-11),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10:4),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13:4),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주릴 것이니라” (잠19:15).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5절에서 솔로몬 왕은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미련한 자는 게을러서 아무런 수입을 얻지 못하고 다만 멸망을 자취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박운선). 그래서 그는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0:18). 이 말씀은 게으른 통치자들의 방탕한 생활은 나라를 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잠10:4). 다시 말하면,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다는 말입니다(12:27). 성경은 부지런한 자에 대해서는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10:4), 사람을 다스리게 되며(12:24), 마음의 풍족함을 얻고(13:4),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히6:11)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인터넷) 그러나 게으른 자의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과 핑계와 원망, 불평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하나님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두 손에 가득하고 헛된 일에 수고하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해도 마음에 평온함을 갖고 있는 게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음과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함이 있느냐 없느냐고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주로 우리 사람들은 물질이나 소유의 풍부함을 원하여 추구하다 보면, 이웃과 경쟁하면서 시기하는 가운데 욕심을 가지고 수고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평온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위험은 마음의 평온함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소유의 풍부함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감을 계속 누리하고자 더욱더 욕심을 부리게 되고, 더욱더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 만큼 마음의 평온함보다 스트레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마13:22)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시37:16). 또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잠16:8). 무슨 말씀입니까? 소득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 그리고 의와 불의,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이라고 항상 소유가 적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의인인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다 소유가 많았습니다. 물론 악인이라고 항상 소유가 풍부하다는 말 또한 아닙니다. 악인도 소유가 적은 사람들이 이 세상엔 수 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의 마음은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는 반면에 악인의 마음은 주님 외에 소유의 풍부함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함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1-13절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궁핍함과 풍부함에 다 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궁핍함과 풍부함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 비결이란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마음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추억이란 수년전에 호스피스에 마크 형제님을 찾아갔었을 때, 그 형제님에게 “My peace I give unto you”(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복음성가를 울면서 불렀던 기억입니다. 이 복음 성가 가사는 이렇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저는 이 노래를 고등학교 때 꿈속에서 찬양을 드렸을 때 누렸던 평안이 좀 생각납니다. 비록 우리가 평안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일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온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시기와 게으름과 물질의 풍부함으로 만족하는 경향을 경계하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전도서 4장 7-12절 말씀 묵상]

이동원 목사님의 느헤미야 설교 중 ‘함께 하는 사역의 원리’ 보면 서론 부분에 망해가던 미국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를 재건하여 경영의 귀재로 일컬어지던 리 아이아코카(Lee Iacocca)에게 어느 신문기자가 경영의 비밀을 물었을 때, 그가 말한 유명한 3-P를 소개 하고 있습니다(인터넷). 그 3-P 원리란 principle(원리), practice(실천), 그리고 persistence(집중)입니다. 한 마디로,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되 일관성 있게 집중적으로 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최근에 건강한 리더십의 이상으로 제시된 ‘원리 중심의 리더십’(Principle-centered Leadership)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이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바로 이런 원리 중심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여 위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중시한 리더십의 원리들은 과연 무엇이였을까를 질문하면서 한 3 가지로 요약 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원리는 바로 ‘협동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75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는데, 그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동시에 나란히 서서 협동하여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의 리더십에서 결격사항 제 1호가 바로 이런 협동의 정신이라고 지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비협동적입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이고 비협동적인 사람들을 ‘독 속의 게’에 비유합니다. 독 속의 게 하나 하나는 모두 독 밖으로 기어 나올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 기어 나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게 하나가 기어 나오려하면 다른 게가 뒷다리를 물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들의 생존방식은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것이 요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7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헛된 것이란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이 말씀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자가 자기의 탐심만 채우기 위하여 수고함이 헛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솔로몬 왕이 해 아래서 본 것은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면서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4절). 이러한 시기는 결국 시기하는 사람의 마음에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시기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탐심을 채우고자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8절). 이 말씀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는 심지어 자기 아들이나 형제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박운선). 결국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부를 얻고자 이 세상에서 모든 수고를 마지않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한 마디로,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삶은 헛되며 무익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수고가 헛되고 무익하다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자기 자신의 심령에 낙을 누리지 못하면서 한 인생을 보낸 후 인생을 뒤돌아 볼 때 ‘참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모습을 극단적인 개인주의 자들에게서 본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또한 솔로몬 왕처럼 이 세상에서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의 헛되고 무익한 수고(노고)를 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식들이나 형제들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평생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축적은 하였지만,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말로는 자식과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평생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자식도 형제도 돌보지 않았으므로 관계가 절단되고 그 결과 자기 스스로는 자식들과 가정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지만 가정식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은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서 스스로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 고생해서 살만큼 되었을 때 병을 걸려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하면서 축적한 부도 누리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자식들과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외롭게 죽은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8절)입니다.

솔로몬 왕은 헛되지 않고 무익하지 않은, 즉 유익한 것을 보았습니다(9-12절). 그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솔로몬 왕이 본 유익한 것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9절). 여기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말씨는 숫자를 얘기하기보다 우리가 합심 협력 할 때 유익하다는 말입니다(박운선). 과연 무엇이 유익합니까?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까? 솔로몬 왕은 한 3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홀로 있다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걷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 왕은 여기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이유는 서로 붙들어 주고 서로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힘들 때 서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힘들 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교회란 공동체는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넘어지면 서로 붙들어 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서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의 눈물을 보았지만 동시에 본 것은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음을 보았습니다.(1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필요 하겠지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또한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며, 마음이 아파 올 때에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위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주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합심하면 견고히 서서 능히 모든 역경을 이겨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흥미롭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8절에서 한 사람,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두 사람, 그러다가 12절에 와서는 세 사람을 의미하는 “삼겹 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겹 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줄이면 쉽게 끊어지고, 두 줄이면 좀 더 들 쉽게 끊어지겠지만, 줄 세 개가 짜여있다면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위어스비). 혹시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를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금문교 다리를 지지해 주고 있는 케이블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그 케이블은 수많은 철사들이 모여 하나의 굵은 케이블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케이블의 굵기는 92.4cm로 어지간한 고목나무보다 더 굵어 어른이 한 아름에 안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케이블 하나를 만들기 위해 27,572개의 가는 철사가 합쳐졌고 연필 두께 정도의 철사들을 옮겨온 다음, 한데 묶어 61개의 봉을 만들었고, 이 봉을 압축한 다음 한데 묶어 3피트 굵기의 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느다란 철사로 케이블을 감아 매끄럽게 끝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만9천 km에 이르는 강철선이 엮어져 굵은 케이블이 되었다고 합니다(인터넷).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문교 케이블이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세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하면 견고히 서서 능히 함께 모든 역경을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며 위로할 뿐만 아니라 서로 보호해주며 모든 역경을 함께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향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딤후3:2). 이러한 개인주의 성향이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자기의 탐심만 채우기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전4:8). 평생 열심히 일을 하며 수고하여 부를 어느 정도 축적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부를 쌓아가지만 결국은 가족 식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주위에 아무도 없이 홀로 남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가?” 자신의 심령으로 낙도 누리지 못하고 평생 고생하여 일을 하다가 외롭게 죽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처럼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이기주의 현상과 더불어 또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기적 가족주의’라 생각합니다. 즉, 사람들이 점점 자기 가족 밖에 모릅니다. 다른 가족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가정이 붕괴되어가는 이 시대에 극단적인 역반응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붕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가족만을 지키고자 자기 가족 밖에 모르는 이기적 가족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보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 생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입니까? 오늘 솔로몬 왕은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하여 바람직한 신앙 공동체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직한 신앙 공동체 생활의 원리는 서로 협력하는 것, 협동정신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 협동의 원리가 유익합니다. 그 이유는 힘들 때 서로 도와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위로하며 합심하여 견고히 서서 능히 모든 역경을 함께 이겨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는 이 협동의 원리에 충실하여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승리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협동 원리를 일관성 있게 실천으로 옮기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기원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지혜

[전도서 4장 13-16절 말씀 묵상]

저는 지난 주 토요일 새벽기도회 때 출애굽기 36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한 3가지 기도 제목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이란 (1)첫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2)둘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3)셋째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제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인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What?)와 어떻게(How?)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일꾼들을 부르사,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심에 있어서 일꾼들을 세우시사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하게 교회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섬겨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13-1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가난하여도”(13절)와 “가난한 자”라는 단어들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지혜(외로움)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가난과 가난한 자는 영적인 면을 이야기하기보다 실제적으로 가난함과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좀 영적화 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 가난과 심령에 가난함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연관성의 근거를 마태복음 5장 3절이라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물론 저는 실제적으로 부자이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참 경건한 성도님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난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가난해야 하던지 또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던 부자이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은 항상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 중 하나는 바로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13-1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지혜**’란 제목 아래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지혜는 무엇인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지혜는 경고를 받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높고 둔하여 간함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여기서 솔로몬 왕이 한 3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것은 다름 아닌 ‘소년’과 ‘왕’, 지혜로움과 둔함, 그리고 가난함과 부함입니다. 이 비교를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면, 그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과 부하지만 높고 둔한 왕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함과 부함도 아니요 젊고 늙음도 아니고, 소년이든 왕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간함’, 즉 ‘충고(advice)’를 받을 줄 압니다. 그러나 둔한 자, 미련한 자는 충고를 받지 않습니다. 높고 둔한 왕은 ‘간함’, ‘충고’를 받을 줄 모릅니다(13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질문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질문이란 “과연 충고를 듣지 않는 높고 둔한 왕이 젊었을 때도 그랬을까?”입니다. 어쩌면 이 높고 둔한 왕은 젊었을 때는 (어쩌면 왕이 되기 전에는) 주위 사람들의 사랑의 권면이나 충고, 또는 경고를 겸손히 듣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높아서 둔하게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혹시 왕이 되어 그의 부함이나 그의 권력이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며 둔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왕위에 늙도록 앉아서 교만하여졌음으로 옳은 충고를 받지 않는 자가 불행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박윤선). 교만한 자는 결코 옳은(바른)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는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옳은 충고를 듣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12:15). 솔로몬이 왕이 될 즈음에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 왕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길 원했기 때문입니다.(왕상 3:9)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지혜로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 ‘쉐메아’는 ‘듣는’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솔로몬의 신앙자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종은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라는 복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인터넷) 우리도 솔로몬 왕처럼 복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잠언 19장 20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지혜를 얻어 옳은 충고를 듣는 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지혜는 주님께서 높이실 줄을 압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여기서 솔로몬 왕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이 높고 둔하여 경고를 들을 줄 모르는 왕보다 왜 나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지혜로운 소년은 그 나라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적이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 감옥에서 구원 받아서 그 나라에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지혜로운 가난한 소년이 살았던 나라에 높고 둔한 경고를 듣지 않는 왕 외에 또 다른 왕이 있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높고 둔한 왕이 권세에서 물러나서 그 다음에 후임자로 이 지혜로운 가난한 소년이 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인물 중 누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물론 요셉은 애굽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13-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된 “지혜로운 젊은이”를 생각할 때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생각납니다. 이 요셉을 생각할 때 비록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가난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시사 함께하시서 형통케 하시되 지혜를 주셔서 감옥에서 술관원(과 떡 관원)의 꿈을 해석하여 줘서 결국 나중에 가서는 애굽 왕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여 감옥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 진리에 대하여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베드로가 “젊은 자들”에게 권면한 말인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 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한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낮출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 습니다(빌2:6-8). 그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 습니다(9-11절).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낮아지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셋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지혜는 세상의 영예가 헛됨을 압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15-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으며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 왕이 해 아래서 본 것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13절) 비록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을 때(14절) 저의 치리를 받는 무수한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왕을 좇고(15절) 그 젊은 왕을 기뻐하였을지라도 결국 나중에 그 젊은 왕도 나이가 늙었을 때 “후에 오는 자들” 곧 그 왕이 젊었을 때 함께 하였던 그 무수한 백성들의 후세대 사람들이 그 늙은 왕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6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영예는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15-16절).

저는 가끔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되면 한 나라를 치리함에 있어서 참 힘들 텐데 왜 대통령이 되려고 저렇게 애써서 선거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을 잡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나라의 대통령들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력 외에도 세상의 영예를 얻고자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상의 영예가 뭐 길래?” 언젠가 영화를 통하여 느낀 점은 해병대 같은 직업 군인들 중에는 영예를 위해 살고 영예를 위해 죽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의 영예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는 영원한 관점으로 볼 때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과연 영원한 관점으로 생각할 때 세상의 영예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오늘 본문 전도서 4장15-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왕은 세상의 온갖 영예를 누렸다 할지라도 아마도 솔로몬 왕 자신처럼 세상의 영예를 누렸을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친구약을 통틀어 솔로몬 왕만큼 세상의 영예를 누린 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의 영예가 헛되다고 말하면서 해 아래서 세상의 영예를 좇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영예를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영예를 좇는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의 영예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익한 세상의 영예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참 유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충고를 듣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충고뿐만 아니라, 주위에 사람들의 충고도 잘 듣는 자들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높이실 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예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 심령이 가난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듣는 귀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기원하면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서 5장 1-7절 말씀 묵상]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 수요기도회 후 당회, 안수 집사님들 성경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주님의 종 요나 선지자와 이방인(불신자) 사공들 중 누가 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했습니까?” 요나서 1장을 보면 ‘두려워하다’란 단어가 마치 4번이나 나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1:5),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1:9), “심히 두려워하여” (1:10),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1:16). 여기서 한 번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한 것이고 나머지 셋은 이방인 사공들이 두려워한 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방인 사공들에게 고백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는 그의 행동을 볼 때에 좀 의심이 갑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이방인 사공들은 대풍으로 인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다가 요나의 고백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 바다가 잔잔해 지는 것을 보고는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1:16) 과연 누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까? 주님의 종 요나입니까? 아니면 이방인 사공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7절 하반 절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 왕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7절 말씀 중심으로 한 3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훈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이미 묵상한 전도서 4장 13-16절에서 솔로몬 왕은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과 늙고 둔하여 간함(충고, 교훈)을 받을 줄 모르는 왕과 비교하였습니다(13절). 즉, 지혜로운 자는 충고를 받을 줄 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절에 와서 또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제 생각을 요약한다면, 지혜로운 자(4:13)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5:7)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성경 잠언 1장7절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속히 합니다(전5:1). 그러나 우매한 자 또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서(잠1:7)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제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누구를 생각나게 만드십니까? 사울 왕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사울 왕은 불순종하여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걸렸을 때, 그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동물들을 남겨두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 때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였습니다.(삼상15:22)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합니다. 지난 주 화요일 새벽기도회 때 레위기 26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우리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 그러나 청종하지 않으면 징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14절) 징계하시는데 하나님께 매를 맞고도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칠 배나 더 징벌하리라”(18절), “칠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21절), “칠 배나 더 칠지라”(24절), “칠 배나 더 징벌하리니”(28절)라고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우리를 징책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칠 배나 더해서라도 우리는 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순종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도 않으면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아와 예배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는 자의 미련한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바로 드립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뿐만 아니라, 그는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함부로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도할 때 말을 적게 합니다.(박운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을 적게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2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사야 55장8-9절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은 생각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저런 말을 많이 쏟아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을 적게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3절). 우매자의 소리는 어떠합니까?

전도서 10장 12-14절을 보십시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나.” 우매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시작도 우매요 끝은 광패입니다 그리고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많은 우매자의 소리는 헛되고 헛된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한 헛된 소리를 많이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증언부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횡성수설 하면서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음성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는 미련한 자는 혼동 상태에서 급한 마음으로 입을 함부로 열어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드립니다. 왜 그는 똑 같은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을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이들은 인간의 노력인 긴 기도, 말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인간 공로에 의지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바로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마12:34-37). 천로역정을 쓴 존 변연(John Bunyan)는 이러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없는 말로 기도하기보다 말은 없지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In prayer, it is better to have a heart without words, than words without a heart)(위어스비). 우리는 말보다 진실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어 말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전5:2) 즉,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을 적게 해야 한다고 해서 기도를 짧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기도가 길고 자세할 수 있음에 대하여 반대함은 아니다. 진실한 기도가 길고 자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믿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만큼 그에게 영혼을 쏟아 자세히 기도하기 때문이다” (박윤선).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쏟아 자세히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묵상한 전도서 4장 13-16절과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7절을 함께 연관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청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와 말씀 순종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뒤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결코 나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진실 되게 영혼을 쏟아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값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값으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진실 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진실성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진실 된 삶으로 우리는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실 된 삶은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5:5). 여기서 ‘서약’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한 것으로서 그 맹세한 것을 지키면 축복, 그러나 만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 서약한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창28:10) 한 곳에서 돈을 취하여 베게하고 누워 자는 중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땅과 하늘을 닿은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봅니다. 그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11-15절) 잠에서 깬 후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는데,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0-22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맺는 모든 서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서약을 맺던지(창28:20) 혹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여서 서약을 맺던지(시116:12-14) 하였습니까(영블러드). 그리고 서약을 맺는 것은 매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의 일부분이었던지(시61:8) 혹은 매년 축제일(삼상1:21)이였습니다. 서약을 맺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약을 했으면 꼭 지켜야 했습니다(신23:21-23; 전5:4-6). 그랬기에 서약을 맺는 사람은 심사숙고한 후 서약을 맺어야 했습니다(잠20:25)(영블러드).

저는 이 서약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제 나름대로 배우는 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아가고 계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신실하게 꼭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헌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서약을 하였다면 우리는 서원 갚기를 더디 하지 말아야 합니다(전5:4).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하고 지키고 있지 않던지 아니면 그 서약을 지키는 것을 미루고 있던지 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실 된 하나님께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고 핑계를 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6절). 그래서 성경은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5절).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7절).

에이든 토저(A. W. Tozer) 목사님의 서약 기도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인터넛): “오 주님!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중대한 위기의 때에 주님은 저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려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흔들릴 수 없는 것들만 남도록

만국(萬國)과 온 땅과 하늘을 뒤흔드실 것입니다. 오 주님, 나의 주님! 주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어 주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론처럼 하나님에게 부름 받은 자들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종이 되는 영광을 스스로 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안수를 허락하신 것은 마음이 완악하고 듣는 것이 더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주인 되시는 주님을 거부했으므로 종이 된 저 역시 거부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저는 저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한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을 지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하여 세웠고, 너를 거룩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 같지어다. 그리고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모두 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누구관대 주님과 논쟁을 벌이겠습니까? 제가 누구관대 주님의 주권적 선택을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결정을 내리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님이 결정하소서.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자비하신 하나님, 제가 이 엄숙한 서약을 평생의 사역 동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순풍에 돛을 달든 역풍에 힘들어하든, 살든지 죽든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 서약을 지키게 하소서. 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초장에 들어가 양들을 찢고 흩어버렸나이다. 그렇지만 양들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에게 닥치는 위험을 무시합니다. 이런 샅군들에게 속은 양들은 가엾게도 그들을 열심히 따르지만, 그러는 동안 늑대가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시여! 구하오니 제가 원수의 접근을 감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제가 본 것을 성실히 전하도록 제게 용기를 주소서. 저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을 닮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심지어 병든 양들도 저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께 나오니 저를 영적으로 준비시키소서. 저에게 손을 얹으소서. 신약의 선지자의 기름으로 저에게 기름 부으소서. 제가 종교적 서기관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저의 예언자적 사명을 망각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현대의 성직자들의 얼굴에서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저주의 씨앗들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타협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고 직업적 타성에 빠지는 저주스런 행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 교회의 인지도, 그리고 교회의 연간 헌금 액수를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제가 흥행주(興行主)나 종교적 관리자가 아니라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가 선지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제가 잔뜩 모여 웅성거리는 대중의 종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저의 육체적 야망을 고쳐주소서. 인기를 얻어야 직성이 풀리는 명예욕에서 저를 건지소서. 또한 제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빈둥거리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기도의 장소를 찾아가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울 것입니다. 제가 과식하지 않도록, 늦잠 자지 않도록 도우소서. 제가 제 자신을 훈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게

하소서. 저는 이 세상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보답을 적게 받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편한 자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제 삶을 더 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비열한 방법들을 거부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한 길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들을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고 제 자신이 힘든 길을 택할 것입니다. 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길 테지만, 그런 경우에도 차분히 대응할 것입니다. 주님의 친절한 백성들이 주님의 종들에게 흔히 그러하듯이 저에게도 감사의 예물을 억지로 주려고 할 때 저를 붙드셔서 제가 실족하지 않게 도우소서. 저에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그것을 선용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그리하시면 그것 때문에 저의 영혼이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저의 영적 능력이 줄어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깊은 섭리 가운데 저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에서 영예를 얻게 하신다 할지라도 제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게 하소서. 첫째, 제가 주님의 가장 작은 은혜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둘째, 사람들이 저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저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거나 그 영예를 저보다 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돌릴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여! 저의 남은 날들을 성별(聖別)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그 날들을 짧게도 하시고 길게도 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높은 사람들 앞에 서도록 하소서. 그러나 또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낮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섬기게 하소서. 선택권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제게 선택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택권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종일뿐입니다. 지위와 재물과 명예보다 주님의 뜻이 제게는 더 소중합니다.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할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높은 소명을 받는 영광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와 먼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가 인류를 괴롭히는 선천적 결점과 격정(激情)들을 타고난 인간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러하오니 나의 주, 나의 구원자시여! 저를 제 자신에게서 건지소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중에 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소서.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고 주님의 의(義)를 선포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주님의 구속(救贖)의 사랑의 메시지를 널리 전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사랑의 주님! 제가 늙고 지쳐서 더 일할 수 없을 때 하늘에 저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제가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는 주님의 성도들 중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말씀 청중, 바른 기도, 서원 지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전도서 5장 8-9절 말씀 묵상]

어제 화요일 오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의 매제 되시는 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로즈힐(Rose Hills) 묘지에 있는 스카이로즈 채플(Skyrose Chapel)라는 곳에 도착하여 저는 먼저 고인이 누워 있는 관으로 가까이 가서 그 분의 손에 제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성빈센트 (St. Vincent)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을 때 제가 찾아가서 제 손을 그 형제님의 손에 얹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는 따뜻했는데, 이렇게 잠든 신 후의 손은 참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유가족과 인사를 나눈 후 독방에 들어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로즈힐 묘지 장례 과정 담당하는 미국 분에게 받은 종이를 읽어 보았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고인의 생일도 제 품에서 죽은 저희 집 첫째 아기 주영이의 생일과 같은 3월 3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인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영이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파하였습니다. 알게 된 지 3주도 안된 고인 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고인의 유가족과 형제들에게 나아가게 하시 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 날 저녁 저는 사랑하는 딸 예리와 예은이의 방에 들어가서 아직 자고 있지 않는 예리에게 장례식에 있었던 일들을 말 해주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는 고등학생 딸 둘이 있는데 장례식 때 사랑하는 아빠를 먼저 보낸 그 두 딸이 너무 슬피 울고 있기에 이 아빠가 그 두 자매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리가 하는 말 “그럼 예은이와 내가 고등학생이 되면 우리도 그럴 거냐”고 묻더군요. 그 의미는 아마 예리는 자기와 자기의 여동생인 예은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제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 그래서 저는 예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아빠가 죽어도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기에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하품하는 예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찌면 엄마를 꼭 닮아서 아빠가 심각한 얘기만 하면 잠자려고 하느냐 ㅎㅎ.” 그랬더니 자기도 웃더군요.

예리하고 대화 한 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제 마음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언젠가는 저희 부부와 헤어져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어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죽음에 대한 대화가 저희 가정에서는 그리 놀랄만한 대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들하고 죽음에 대한 대화와 더불어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하다보면 저희 집 막둥이 예은이가 하는 말들이 저를 종종 놀라게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제가 아이들과 차를 타고 교회로 나오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저희 교회

히스패닉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고메즈 목사님의 병원에 갔다 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저희 집 막둥이 예은이가 “God will save him because he loves God, he is a preacher ...”(하나님께서 그분을 건져 주실꺼예요. 그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설교자 ... 이시기 때문이에요)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좀 놀라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말들을 예은이가 하는데 그 말들을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 평가해보면 이 아이의 마인드가 영적화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여 말하는 것을 보면 저는 종종 놀라곤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8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놀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은 우리가 가난한 농민들이 권리를 박탈당하면서 학대 받는 것을 보아도 놀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본 것은 빈민이 학대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어떻게 빈민을 학대하는 것을 본 것입니까? 바로 ‘높은 자’, 즉 포박한 관리들이 빈민의 공의를 박멸하므로 빈민을 학대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일들을 보아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죄악 된 일을 보고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결코 솔로몬 왕은 포박한 관리들이 빈민을 학대하는 불법 행위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위어스비). 다만 솔로몬 왕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한 이유는 그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4:1). 다시 말하면, 그는 해 아래서 권력이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솔로몬 왕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는 것을 보았기에 악한 권세 있는 자들이 힘없고 연약한 가난한 자들의 공의를 박멸하여 학대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3:16).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이 돈 많고 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기들의 권리를 박탈당하면서 학대를 받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런 일들을 이 세상엔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일곱 번째 사무총장인 아이린 칸(Irene Khan)이란 사람이 쓴 “들리지 않는 진실: 빈곤과 인권”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빈곤으로 인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분석한 책입니다(인터넷). 저자 아이린 칸은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빈곤한 이유는 소득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차별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한국에 와서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제는

인권이대'라는 제목 아래 400여명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등이 특별한 만남을 가졌을 때, 이 자리에선 강연뿐만 아니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보낸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된 '핫 인터뷰'와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과의 특별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불안정 속에서 살고 있고, 소외되고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없다. 특히 기본권인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도 박탈되어 있다. 전 세계 빈민 70%가 여성인데 이는 우연이 아니다. 또 빈민 중에서는 소수민, 이주민, 원주민도 많다. 왜냐하면 빈민은 바로 차별 받기 때문에 빈곤하기 때문이고, 다시 빈민은 빈곤하기 때문에 차별받기 때문이다” (인터넷). 이 외에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들어서 짐작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아동 노예(Child slavery)’입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노동하면서 학대를 받는 것이 특히 빈민 국가에 많다고 합니다. 2005년 국제노동기구 발표는 1,230만 명이라고 합니다. 현대판 노예거래인 국제 인신매매는 매년 80만~90만 명, 100억~320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현대 노예제는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중동은 가사 노예, 남아시아는 빚을 갚기 위한 담보노동 노예, 우간다나 스리랑카는 아동병사 노예, 선진국은 성노예가 많습니다. 노예상들은 폭력·납치·사기·협박·약물투여 등 온갖 수단으로 노예를 생산합니다. 좋은 일자리나 무료 관광을 약속하며, 노예를 사냥하는 인신매매조직이 있는가 하면, 자식을 현대 노예 상에게 파는 가난한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 ‘노예산업’은 교통의 발달, 낮은 형량, 허술한 국경 통제, 정부 고위층과 국제 노예거래 조직 간의 결탁 등으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세계화가 노예산업을 돕는 것입니다.(인터넷)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빈민 자들이 포악한 관리들에게 권리를 박탈당하면서 학대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상히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빈민을 학대하는 포악한 관리들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상관이 있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벌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8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포악한 관리들이 빈민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여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지는 않았지만, 그 포악한 관리들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는 지혜가 있었기에 자기보다 더 높은 왕중의 왕이신 주님이 계심을 알고 있었지만, 이 세상에는 지혜가 없는 왕이나 관리 들은 자기들보다 더 높으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권리)를 남용하여 힘없고 연약한 빈민 자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가 없는 미련한 왕이나 관리들은 그들보다 더 높으신 주님이 계심을 모르고 있기에 빈민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학대하면서도 심판에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지를 솔로몬 왕은 이상이 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는 집권자인 왕이나 관리들도 빈민 자들인 농민들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땅의 이익을 받아서 생활하는데(9절) 왜 그들이 농민을 학대하는지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박운선).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공무원들 모두 다 농민들이나 서민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익을 누리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포악한 이들은 농민들이나 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학대하는 모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상전들이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니라.” 왜 직장에서 사장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여 종업원들에게 공갈을 치면서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주님이 계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계심을 알아도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직장 삶 속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들에게 공갈을 치면서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빈민을 학대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죄를 범하는 것이 담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남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전5:7).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학대당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빈민들, 가난한 농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므로 학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포악한 관리들이 힘없고 돈 없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그들보다 높으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중 최악 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 뉴스를 보아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소식을 들어도 이젠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인 살인마에 대한 뉴스를 들어도 ‘참 사람의 잔인성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의문을 들지만, 이젠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최악 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8-9절에서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포악한 관리들이 빈민의 공의를 박멸하여 학대하는 모습도 그리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런 저런 우리 사람들의 최악 된 행동들을 보고 들으면서 저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전 보다 더 이상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때그때 놀라곤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삶 속과 제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들을 때에 참 놀라곤 합니다. 그 한 예로 오늘 새벽기도회 나오려고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제 핸드폰을 켜더니, 음성 메시지가 와 있기에 들어보았습니다. 그 음성 메시지를 보낸 분은 저와 저희 교회를 사랑하는 김 모 전도사님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은

‘지금에서야 좋은 반주자 분을 찾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음성 메시지 내용을 듣고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분의 시간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그래도 월요일 점심쯤에 어느 한 집사님이 전화 와서 교회 반주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 집사님과 그의 남편 형제를 생각할 때 한 달 동안 저희 교회 와서 도와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번 주일이 한 달이 되는 주일이기에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말고 본 교회로 돌아가려면 가라고 권면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반주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 교회 반주 돕는 것을 중단하고 섬기는 교회로 갈 수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때 저는 종종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놀랄 일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날 그 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목격할 뿐 아니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놀랄 것이며, 그의 재림으로 인한 우리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최악 된 일들로 인하여 더 이상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므로 말미암아 놀람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이상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더욱더 가득 차는 가운데서)

잠을 달게 자는 노동자

[전도서 5장 10-12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밤에 잠을 잘 주무십니까? 계명대 동산병원 신경과 조용원 교수와 대한수면연구회는 한국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간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1,141명으로 약 22.8%가 불면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양은 전체 성인인구의 약 20-30%가 야간 수면장애로 고통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제 개인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는 오래 전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들이 한국 사람들을 고문할 때 잠 못 자게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 못 자는 것, 얼마나 괴롭습니까?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적당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정신적인 피로가 심해지고 신체의 건강이 악화되어 심하면 혈압, 당뇨, 뇌졸중 및 암 등에 이완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성경 시편 127편 2절 하반 절을 보면 시편 기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잘 잔다는 것, 우리 신체의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연구 조사에 의하면 수면은 피로 회복, 신체의 성장, 방어력 증진, 체온유지, 인지기능 및 기억력 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나이 별로 적당한 수면 시간은 출생 후 2-3개월이 되면 젖을 먹는 후에도 30분 정도 깨어 있고, 그 후에는 차차로 수면시간이 단축됩니다. 보통 유아는 16-20시간, 그 다음 유아는 12-13시간, 학동기에는 저학년 10-11시간, 고학년 9-10시간, 사춘기에는 8-9시간, 청년기에는 7-8시간, 장년기에는 6-7시간이라고 합니다.(인터넷) 장년기에는 6-7시간이라고 말하는데 한 6시간만이라도 깨지 않고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잠 개운합니다. 그러나 밤에 잠에서 깨고, 잠을 설치곤 하면 아침에 참 피곤함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2절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잠을 달게 자는 노동자”라는 제목이 생각나 그대로 제목을 잡고 ‘과연 노동자는 어떻게 잠을 달게 잘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두 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로, 노동자가 잠을 달게 잘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이유는 노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잠을 달게 잘 수 있는 이유는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잠을 달게 잘 수 있는 이유는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하며, 수고하기에 잠을 달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잠을 자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한 2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첫째 이유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성경 전도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여기서 ‘손을 거둔다’는 말씀은 ‘미련한 자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요 게으른 자는 일하기를 싫어합니다(잠21:25). 그리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기에 잠을 달게 잘 수가 없습니다.

(2) 둘째 이유는, 배부를 때문입니다. 성경 전도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음식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면 누워서 잠을 자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먹은 만큼 움직여서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잠을 자려고 하니 배가 불러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배가 불러서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면, 놀고먹으려는 최악 된 경향이 있기에 우리는 게을러지고 일도 하지 않고 수고의 땀이 없기에 잠을 달게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는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잘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무엇입니까? 노동은 수고하고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덕행입니다(박운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하되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유익한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익한 수고 또는 헛된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일,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소득이 없는 열매 없는 일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 2장 22-23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는 헛된 수고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의 배만 채우고자 땀을 흘려 일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단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유익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수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수고입니다. 즉, 유익한 수고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단 잠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노동자가 잠을 달게 잘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삶에 만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들은 삶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고 재물이 풍부해도 결코 자신의 늘어나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5:10). 또한 그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1:8)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나 귀가 보고 또한 들어도 족함이 없다는 말씀은 마치 바다가 언젠가 흘러오는 물로 차지 못함 같이(7절) 사람의 욕심도 만족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풍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에 배가 부르면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욕심에 배란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돈을 벌려고 할 것이고, 재물을 모으려고 고민 하면서 살 것이기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부자들이 잠을 달게 자지 못하는 이유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돈이란 것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자들은 달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 기에 돈을 사랑하면 잠을 달게 잘 수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동자들은 달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달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버렸기에 마음에 평온함이 있으므로 잠을 달게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초월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단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노동자들은 잠을 달게 잡니다. 여러분은 잠을 달게 자고 있으십니까?

저희 집을 보면 저와 제 아들 딜런을 빼고 여자 셋은 다 잠을 잘 자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집 첫째 딸 예리를 보면 참 잠을 잘 자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침대에 누웠다면 한 2-3분 안에 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엄마를 닮은 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일하고, 집안일 등등 하고나면 피곤해서 침대에 누웠다면 참 빨리 잠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가끔 아내에게 “당신은 참 잠이 빨리 들어서 좋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내에게 말한 이유는 제가 잠을 폭 자는 편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불면증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잠을 폭 못 자곤 할 때 저는 잠을 폭 못 주무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 분들은 얼마나 괴로우실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잠을 폭 잔다는 것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단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배부른 부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써 일하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누리는 노동자들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므로 마음에 평온함이 있으십니까?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찬송가 102장)를 수요일기도회 때 찬양 한 후]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전도서 5장 13-20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세계에서 제일 갑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난 주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2010 세계 부자 순위, 빌게이츠 1위에서 물러나다.”란 제목 아래 기사가 실렸는데 올해 2010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갑부)는 멕시코에 카를로스 슬림 헬루라고 합니다(Net Worth: \$53.3 billion)(인터넷). 카를로스 슬림 헬루라는 사람은 나이 70세에 창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라틴 아메리카의 최대 텔레콤 회사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부자인가 하면 멕시코 인들이 하루100원을 쓴다면 이 중 70원은 이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카를로스 슬림 헬루 텔멕스텔레콤 회장이 한 해 동안 순자산은 185억달러 늘려 총 535억 달러(약 60조6500억 원) 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인터넷). 최고 부자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나온 것은 1994년 이래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2010년 새롭게 탄생한 신규 억만장자는 아시아가 97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이 처음으로 2위 억만장자 국가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억만장자가 4명에 그쳤던 우리나라는 올해 11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견희 전 삼성 회장은 총자산이 두 배 이상 급증한 72억 달러로 205위에서 100위로 꺾충 뛰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갑부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3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란 전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지 않습니다. 만일 주신다하여도 그것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징벌)입니다. 어떻게 재물과 부요가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저주(징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징벌 중 하나는 바로 욕심의 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돈이 더 많아지면 결국은 그 돈으로 인하여 욕심이 더욱더 생겨서 결코 만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징벌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욕심의 배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만족할 수 없는 욕심의 배를 소유한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코 마음에 평온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키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경 시편 112편 1-3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여 그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부요와 재물을 그 집에 주십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재물과 부요의 축복을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므로 재물과 부요의 축복을 주십니다(신8:18).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이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부요를 능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참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은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도 그 재물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누린다 해도 헛된 쾌락에 그 재물을 사용하는 자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 그들은 어리석게도 풍부한 재물을 누리지 못합니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3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왜 풍부한 재물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재물의 소유주가 자기의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왜 자기에게 해가 될 정도로 재물을 왜 지키는 것입니까? 그 근본 이유는 자기 자신보다 돈(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할 수 있습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영원히 가지지 못할 것에 생명을 받침은 해로운 일이다” (박윤선). 참 큰 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렇게 자기에게 해가 될 정도로 지키려고 했는데, 그 재물을 재난으로 인하여 다 잃어버리게 되므로 결국 자식들에게도 물려줄게 하나도 없이 빈손이 되는 것을 이 세상에 보았습니다(14절).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 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15-16절). 결국 이 세상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서 재물을 많이 모았다 해도 우리가 죽을 때에 가지고 갈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해하면서 재물을 풍부하게 모았거늘 무엇 합니까? 누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그 모았던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결과

“일평생을 어두운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을 뿐입니다(17절). 결국 미련한 부자는 평생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를 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물의 능을 주셔야 우리가 재물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풍부한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누리게 하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이 해 아래서 본 큰 폐단(13절)은 소유주가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재물을 지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재물을 지키다가 재난을 만나 그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14절)이었습니다. 즉, 그가 본 큰 폐단은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16절). 그것과 더불어 솔로몬 왕이 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었습니다(18절). 그것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그가 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일평생 먹고 마시며 이 세상에서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수고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박운선). 그리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복’이란 무슨 뜻입니까? 분복이란 ‘각자가 타고난 복’이라는 뜻이고, 이 단어의 원어 의미는 ‘수고,’ ‘일,’ ‘고생,’ ‘고난’이란 뜻입니다. 즉, ‘타고난 복’이란 결국 각 사람이 일하며 수고하며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입니다(인터넷). 중요한 것은 일하며 수고하며 고생하는 가운데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가? 입니다. 여러분은 일하며 수고하며 고생하시는 가운데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던지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고생하며 일을 하던지(19절)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에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19절). “하나님이 저의 마음의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십니다(20절).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시는 즐거움(기쁨)을 받아 누리시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날을 깊이 개의치 아니할 것입니다(20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신적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며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3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1)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과 (2)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부요를 능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 그리고 (3)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미 묵상한 전도서 3장 12-1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더불어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영적인 복, 인복,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복의 근원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무거운 것

[전도서 6장 1-6절 말씀 묵상]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화요일 아이들을 데리고 학원에 갔다가 딜런과 예리는 레슨을 받고 있었을 때, 좀 전화할 일이 있어 학원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난 후 쫓아 나온 예은이하고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난 저를 보고 예은이가 좀 저기 가서 앉자고 하더니 나무 밑으로 가서 앉더군요. ㅎㅎ 그래서 제가, 앉아 있는 예은이게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How is your life?"(너의 삶은 어떻게?) 그랬더니 예은이의 대답은 "Good"(좋아요)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예은이에게 뭐가 좋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실토했더군요: Actually I am tire.(사실 저 피곤해요) ㅎㅎㅎ 6살짜리 아이도 인생이 피곤한가 봅니다. ㅎㅎㅎ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심신이 피곤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걸머지고 있는 마음의 짐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리 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11장 28-30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1절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우리는 이미 전도서 5장 13-20절에서 솔로몬 왕이 본 큰 폐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큰 폐단이란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었습니다(13절). 더 나아가서, 큰 폐단이란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재물을 지켰는데 결국 재난을 만나서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므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는 것 이었습니다. 결국 모태에서 별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15절) 이것도 폐단입니다(16절). 아무리 자기 자신을 해할 정도로 그 모든 재물을 지켜서 무엇 합니까? 재난을 만나 다 잃어버리므로 말미암아 결국 자식에게도 물려 줄 재물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참으로 큰 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 또 한 가지 폐단을 보았는데 그 폐단은 바로 사람에게 중한 것(6:1), 즉 사람에게 무거운 것(8:6)입니다. 과연 사람에게 무거운 그 폐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에게 무거운 그 폐단이란 하나님께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받아 마음의 소원에 부족함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로 하여금 그 모든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전도서 2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재물을 모아 쌓게 하신 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 모든 죄인의 재물을 주시사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 즉 ‘고통을 주는 악’입니다(2절).

더 나아가서, 솔로몬 왕이 본 폐단은 이 모든 재물과 부요와 존귀가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백 자녀들도 있고 또한 장수하여 오래 살지라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3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 부요, 존귀에다가 자녀 축복 및 장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므로 그 심령에 낙을 누리지 못하면 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 악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복들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 그의 몸이 제대로 매장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 악(‘악한 병’)입니까? 그 당시 동양에서는 죽은 시신이 매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제일 큰 수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모든 부요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 매장 되지도 못한 사람보다 낙태된 자가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3절). 어떻게 낙태된 자가 모든 부요를 누리지 못하며, 죽을 때에도 매장 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낫습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4-5절을 보십시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그 당시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고 많은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죽을 때 아무 슬퍼하는 자들도 없고, 명예도 없이 죽으면 낙태된 아기보다 더 나쁘게 여겨졌습니다(맥아더). 엄마 뱃속에서 낙태된 생명은 이 세상 햇빛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 것도 모르고 그저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죽지만, 하나님께 받는 모든 재물과 부요와 존귀와 자녀의 축복, 장수의 복을 제대로 누리보지도 못하고 죽을 때에도 아예 매장 되지도 못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이유는 낙태된 자에게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태된 아기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재물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을 때에 매장도 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이유는 그 낙태된 아기는 이 세상에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4:3).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 할지라도 모든 재물과 부요 등을 누리지 못하고 수고와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악을 보면서 살다가 죽을 때에 제대로 매장도 되지 못하는 사람보다 비록 낙태되었지만, 그 낙태된 아기는 이 세상의 근심과 고통 그리고 노고와 괴로움에서 자유를 누리며 평안함을 얻기에 낙태된 아기가 더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결론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6:6). 결국 낙태된 아기나 모든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얻어 천 년의 갑절인 이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 낙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자나 마침내 다 한 곳인 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솔로몬 왕이 보기엔 이것도 폐단이요 사람에게 무거운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교회에서 찬송가 337장(구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을 찬양했을 때 교인 중에 한분이 저에게 그 찬송가를 부르면 좀 가라앉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저 또한 찬송가 337장(구363장)을 부르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힘들고 무거울 때 주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곤 합니다:

- (1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싸인 날 돌아 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 (2절) 내 모든 괴롬 닳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 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 (3절) 내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대 신 짐을 저주시네
- (4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 (후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할 때 저는 저의 무거운 짐을 맡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므로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여기기보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내려놓고자 하는 저의 무거운 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찬양을 드리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마음이 무겁고 목소리가 쳐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인가 원로 목사님이 계신 중국에 갔었을 때, 새벽 4시 경에 방에서 누워 잠들다가 원로 목사님이 장애인들과 조선족 집사님과 새벽기도회를 하시면서 이 찬송가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때 제 기억으로는 목사님의 찬양 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전혀 마음이 무거움을 느낄 수 없는 힘찬 찬양 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힘찬 찬양이 나올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원로 목사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겸손히 응하셔서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겨 버리셨기에 마음이 쉼을 얻으셔서 주어진 주님의 무거운 짐도 가볍게 여기실 수 있으셨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폐단을 볼 때에 혹여나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서 나아가 겸손히 내려놓으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쉽고 가볍게 여기는 영성을 추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심령으로 누리길 기원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백 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할지라도 그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면 낫태된 아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된다. …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하여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국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갈 뿐이다”(전도서 6장 3, 6절,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전3:13). 성경은 이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24, 8:15). 그리고 성경은 이것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5:18).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누릴 수 있을 때 누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실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수고)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3절과 6절을 보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불행한 사람(1절)은 자기가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습시다(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5:10). 그리고 그는 재산이 많으므로 이것저것 걱정하다가 잠을 자지 못합니다(12절). 참으로 심각한 문제는 그는 자기의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입니다(13절). 그러다가 재난을 당하여 그 재물을 잃어버리므로 자기 자녀에게 물려 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14절). 그러므로 그는 어두움과 슬픔과 변민과 분노와 질병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17절). 참으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16절). 사람은 태어날 때 별거승이로 나와서 아무리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인데 말입니다(15절). 사람은 온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왜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무익한 수고를 하고 있는지(16절) 참으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큰 불행은 하나님께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는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6:2). 이 얼마나 헛되고 비통한 일입니까?(2절) 아무리 그가 백 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이 땅에서 천년의 갑절을 산다할지라도 그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3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은 제일 좋은 것입니다(5:18).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복을 받아 우리가 수고한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19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채워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이 짧다는 것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20절).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엡1:3). 그 모든 하늘의 영적인 복을 누리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복을 겸손히 즐겁게 누리는 삶을 추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최고의 복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길 기원하면서)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

[전도서 6장 7-12절 말씀 묵상]

어제 화요일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분을 뵈러 갔었습니다. 폐가 안 좋으신지 지난 주 금요일 입원하셔서 병원 측에선 계속 검사를 하시고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제 아침에 들렸을 때 집사님은 85평생 살아오시면서 결론은 모든 것이 허위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 왕의 전도서 말씀이 생각나서 그 분에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1:2)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평생 살아오신 한 어른신의 결론을 들으면서 저는 과연 이러한 헛되고 헛된 일평생을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12절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 왕은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림자’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림자’ 하면 첫째로 생각나는 것은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그림자’하면 생각나는 것은 그림자는 생겼다가 오래 머물지 않고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일평생을 그림자 같이 보낸다고 말한 그 의미는 한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첫째로,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란 말씀은 신속히 보내는 일평생을 뜻합니다.

성경 욥기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 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 욥의 말처럼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사람의 삶은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되 그림자 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합니다. 이 사실은 시편 90편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년 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 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기자 모세는 이 세상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인 칠·팔십사는 인생,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둘째로,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란 ‘헛된 생명의 모든 날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이란 이 세상에서의 짧고 헛된(의미가 없는) 날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 우리가 이미 묵상한 전도서 말씀들만 뒤 돌아 보아도 솔로몬 왕은 계속 반복적으로 ‘헛되다’(1:2; 2:15, 19, 21, 23; 3:19; 4:7, 8; 5:10),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1:14, 17; 2:11, 17, 26; 4:4, 16), ‘무엇이 유익하고’, ‘무익한 것이로다’(1:3; 2:11; 4:8; 5:11, 16)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가는 그림자 같은 일평생, 아무 유익하지 못한 무익한 일을 하면서 보내는 것, 헛된 생명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아무리 이 세상이 짧고 신속히 가는 일평생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일평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죄인을 가리킵니다(6:1-6). 그 죄인이란, 낙태된 자보다 못한 자를 가리킵니다. 낙태된 자보다 못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재물, 부요, 존귀 및 자녀의 복과 장수의 복을 받았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이 매장도 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죄인은 일생은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짧고 의미가 없는 헛된 날들을 이 세상에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림자 같은 일평생, 신속히 가는 일평생, 왜 헛된 것입니까? 왜 무의미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첫째로, 그림자 같은 일평생이 헛되고 무의미한 이유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전도서 1장 8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눈이나 귀가 보고 또한 들어도 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의 욕심은 만족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인간의 욕심에는 만족함이 없기에 이 세상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7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솔로몬 왕이 가리키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3절에 진술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그 사람이란 영혼에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낙태된 자보다 불행한 자로 간주된 자입니다(박운선). 이 사람은 자기 입을 위하여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자기의 식욕이 차지 않습니다. 즉, 그는 자기의 영혼에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왜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에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한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떠나 식욕을 채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혼에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낙을 누리지 못하고 수고만 하므로 결국 헛되고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2)둘째로, 그림자 같은 일평생이 헛되고 무의미한 이유는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8절을 보십시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하고.” 여기서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일에 있어서 지혜 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마찬가지로는 것입니다(박윤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일들을 지혜 있게 처리하는 겸손한 자라 할지라도 핵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에 구원을 받지 못 한자로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전도서 2장 12-17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거기서도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 이였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이로다” (16-17절).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다 가야할 길은 죽음, 문제는 죽음 후입니다.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히 멸망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지혜로 와서 일을 겸손히 잘 처리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의 길을 걷지 않고 있다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속히 가는 그림자 같은 일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길을 걷지 않으면 의미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드려야 그림자 같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림자 같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림자 같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삶이란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익과 의미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림자 같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원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풍부함과 궁핍함 가운데서, 즉 “어떠한 형편에든지”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빌4:11).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한분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분으로 만족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같은 일평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둘째로, 그림자 같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삶이란 주님의 일을 겸손히 지혜 있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8절을 보십시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이 8절 말씀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여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그림자 같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주님의 일을 겸손히 지혜롭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기도회 때 저는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중심으로 스스로 작게 여겼던 사울이 결국 나중엔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비록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 하였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임을 받고자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스스로 작게 여겼던 과거와 지금 현재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서는 제 자신의 죄를 슬퍼하게 하시 사, 자백하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슬퍼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셨으며,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서는 제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겸손히 섬기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섬기게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제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섬기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겸손히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한 겸손하고 지혜로 섬기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삶이요 의미 있는 삶입니다.

셋째로, 그림자 같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삶이란 현재의 좋은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구절을 어느 학자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다른 좋은 것을 생각함보다는 현재의 좋은 것을 즐기는 것이 낫다.” 즉, 지금 솔로몬 왕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즐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박윤선).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본 폐단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등을 다 받았을지라도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1-6절).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고 계시므로 여러분의 심령에 낙이 족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복들을 현재의 삶 속에서 즐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복 중,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현재에 이 축복을 겸손히 지혜롭게 누리므로 우리 영혼이 기쁨을 맛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림자 같은 일평생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로, 그림자 같은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룰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위치와 정도가 하나님 앞에서 벌써부터 확정되어 있는 것인 만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한 걸음씩 현실 생활에서 진리를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박윤선). 헛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다투면서 자기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존재와 분수를 결정하여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냐 될 듯이 덤뵙니다(박윤선). 이것은 헛됩니다(11절).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림자 같은 일평생이 모두 다 헛됩니다(12절)(박윤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 책의 결론 말씀입니다. 성경 전도서 12장 13절은 전도서 책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일의 결구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는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7-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과연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가?’ 그림자 같이 신속히 가는 세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데... 저는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겸손히 지혜롭게 행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의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세워가면서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혜로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결론적으로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헌신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일을 겸손히 지혜롭게 감당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즐기면서)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묵상]

언젠가 한국 YTN 밤 11시 뉴스를 보니까,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서 좀 주목해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뉴스는 다름 아닌 한국 경기도에 있는 ‘임종체험관’이라는 곳에서 실지로 임종을 체험하고자 영종사진도 찍고, 유서도 쓰고 또한 그 유서를 읽고, 자기의 영종사진을 들고 영안실로 가서 유서도 낭독하는 것 이었습니다. 임종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특히 유서를 읽어 내려갈 때는 대부분 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들은 유서를 읽어 내려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지로 관에 당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한 사람이 삽으로 흙을 관위에서 천천히 붓는 것 이었습니다. 좀 관하고 간격을 뒤서 흙소리가 나도록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흙소리를 산 자가 관속에서 들으면 실지로 죽음을 더욱더 체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그 임종체험을 해 본 사람들의 반응은 주로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 과정 속에서 가족 식구들이 제일 많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 임종체험관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잘 죽는 준비를 하고자 이러한 임종체험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보고 ‘별거 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해서라도 우리 사람들이 죽음을 좀 더 피부로 느끼고 또한 죽을 준비를 할 수만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 왕은 “산 자가 이것에 유심 하리로다”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결국’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절을 보십시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 기차에서 내려 종착점에 이를 날이 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죽음의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순간순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절에서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초상집에 가는 것”입니다(2절). 다시 말하면, 장례식에 가는 것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선 장례식에 가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우리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제 자신의 죽음을 좀 더 피부로 느끼면서 종종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례식에 느끼는 죽음이란 저로 하여금 어떻게 잘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한 평생을 잘 살았는지는 못 살았는지는 죽은 후에야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살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름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후에 장례식 때에 내 이름 석자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칭찬하는지 안하는지 보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옛 속담에 모든 사람은 세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①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②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는 이름, 그리고 ③우리가 얻은 이름. 과연 우리가 얻고 있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 이름 석 자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잠언 10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의인의 이름은 죽은 후에 기념할 때에 칭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은 축복된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은 세상의 부(wealth)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본능은 초상집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보다 웃음을 더 좋아합니다(3절). 우리 사람들은 육체적 희락에 빠짐을 별세한 자의 유족을 방문함보다 좋아합니다(박운선). 그러나 육체적 희락(쾌락)은 무익합니다(2:11). 잔치집에 가서 세상적 쾌락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것은 초상집에 가서 슬픔을 맛보는 것입니다. 왜 그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습니까? 그 이유는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되기 때문입니다(3절).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 문제로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말씀입니다(박운선).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헛된 세상적 쾌락이나 추구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7:4).

우리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잔치 집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고인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죽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라하시면 우리도 가야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란 우리 모든 사람의 결국이기 때문입니다(2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과연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에, 후손들에 마음에 우리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므로 우리 후손들에게 또한 앞으로 장차 우리 장례식에 참석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기억들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례식 때 우리 자녀들이나 후손들이나 심지어 이웃들이 우리 이름 석 자를 생각할 때에 참된 칭찬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녀들의 마음에 남기고 떠나고 싶어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죽음의 관점으로 살아가길 기원하면서)

죽음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전도서 7장2절).

새해에 들어서서 저는 벌써 장례식에 두 번을 참석하였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사이로 말입니다. 저는 두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다시 한 번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것을 산 자인 제가 유심하는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사랑하는 셋째 삼촌이신 김창혁 목사님께서 담당 의사에 의하면 2-3주 남았다는 소식을 접한 후, 다시금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 자로서 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드는 마음은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도전입니다.

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지만 한 3 가지만 나눕니다.

첫째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하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두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우리 인간은 흠으로 왔다가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약4:14).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장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하고 부자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젊은 사람은 더욱더 장례식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좀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좀 초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좀 철저히 초라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가오는 죽음이란 것을 생각하면서 좀 우리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장례식을 통해서라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죽음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543장(구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를 종종 즐겨 부릅니다. 그 찬송가 1절 가사와 후렴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후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즘 사랑하는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통해서라도 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저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계십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늙어가고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접하면서 저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둘째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순간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손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채우려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면 다시금 자극을 받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장례식 때 마음먹고 결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우리 손에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힘이 없는 분주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빈손으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장례식을 통하여 죽음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 위에서의 날 동안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생각하기보다 위에 것을 생각하게 되며 순간적인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님을 깨닫고 성경의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갑니다(히11).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 것들을 헛되고 헛되다는 솔로몬 왕의 말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이 이 세상이 다 지나간 후에 영원히 남는 것을 깨닫게 되기에 우리는 사모하며 추구하던 순간적인 것들에게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내려놓기를 배우면서, 진정으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영원한 말씀대로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자 다시금 결심하게 됩니다.

흠으로 왔다가 다시금 흠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이들의 시신이나 그 시신을 담은 관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의 죽음과 장례식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전도서 7장 1절 말씀처럼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지혜자 솔로몬 왕은 말하였는데(1절), 과연 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의 마음에 ‘제임스 김’이라는 이름이 아름답게 느껴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과연 그들의 마음에 제 이름을 생각할 때 ‘제임스 김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다가 그가 사모하는 영원한 곳으로 갔다’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도 상상해 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다가오는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즉,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 지혜 있는 자 같이” 삽니다(엡5:15). 그 한 예로 지혜로운 사람은 술 취하면서 방탕한 것을 좇지 않습니다.(18절) 그러한 삶은 어리석은 삶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17절) 그는 때가 악함을 알고 세월을 아깁니다(16절). 그리고 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힘쓰는 자입니다(17절). 그러기에 그는 성령 충만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살아갑니다(19절). 또한 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20절).

흘러가는 세월은 너무나도 빠르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것이 삶의 이치인가 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사실을 무시하고 허송세월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월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아낄 수 있습니까? 장례식에 참석하여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평생 살 것처럼 분주하게 살다가도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 참석해서는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의 종착점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끝마쳐야 할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장례식도 그리 멀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도토리 키 재기일 뿐입니다. 제 나이도 이제 50이 되어갑니다. 평균 삶 수명이 7~80이라면 이젠 이미 반은 넘게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언제 저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웬지 요즘은 하루하루 살아감에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해 주셨으니,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도록 힘쓰고 내일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오늘과 같은 자세로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과거에도

집착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또한 너무나 미래를 위하여서 산답시고 이러쿵 저러쿵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동행하는 삶이 좋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밤 죽어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흘러간 세월 어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에서 남겨두신 세월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알 필요도 없지 않나 생각함) 그저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김창혁 목사님, 지금 육체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계십니다. 스스로 소파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셨던 목사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라고 찬송가 94장 후렴을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힘차게 찬양하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의 영혼은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시는 목사님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심히 부족하나마 동참하면서 저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합니다: “살아도 죽은 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지혜자의 권면을 받아들여 장례식에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가서 산 자로서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끝인 죽음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싶습니다.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관점으로 이 남은 삶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할 때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죽음의 관점을 배우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 후)

지혜자의 책망

[전도서 7장 5-7절 말씀 묵상]

여러분 혹시 ‘목사병’이란 말 들어 보셨습니까? 한 일이주전 저는 이 말을 어느 목사님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그 분의 말씀은 우리 목사들이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병은 ‘남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한 의도는 특히 저 같은 담임 목사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분의 의도는 ‘담임 목사의 병은 남을 가르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잘 듣지 않는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솔직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분의 말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을 보아도 이 목사 병에 걸려있는 것이 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이 목사 병에 걸리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걸려 있는 모습을 엿볼 때에 참 마음이 찡찡합니다. 특히 저는 광야의 목회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 묵상을 해 온다고 하였는데, 이 병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찡찡합니다. 저는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 볼 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은 제 자신이 남을 가르치면서 제 자신을 가르치는데 게을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만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말도 잘 듣지 못합니다.

저는 얼마 전 새벽기도회 때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 중심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처 밧세바와 동침하여 아기가 잉태한 것을 알고 죄를 덮고자 시도하는 가운데 결국 자기의 충성된 군인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 기에(27절)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한 성에 있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의 죄를 면책하셨습니다(12:1-4). 그 때 다윗은 크게 노하여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고 말하였습니다(5절). 죄를 덮고 덮으려다가 자기 양심마저 덮어버려서 그랬던 것인지 다윗은 자기가 그 “마땅히 죽을 자”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면책하였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7절). 이 얼마나 충격적인 면책입니까? 다윗 자신은 분명히 자기 자신은 그 ‘마땅히 죽을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을 텐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면책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행한 일들이 죄라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들춰내실 때 우리의 양심은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5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이미 전도서 7장 1-4절 중심으로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우리 모든 사람의 결국이 죽음이라는 사실에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 위해선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잔칫집보다 초상집에 가야 한다고 우리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 7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헛되고 헛된 연락하는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인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초상집에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5-7절에서도 지혜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지혜자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였다면,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5-7절에서는 ‘지혜자의 책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지혜자의 책망을 들으십시오’입니다.

어느 누가 책망을 듣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죄악 된 옛 본능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인지 결코 책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 시대에 한국식 자녀양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란 바로 “마가편”(走馬加鞭)입니다. 즉, 저는 왜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해야하는지 아직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미국식 자녀 양육이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국식 자녀 양육이란 특히 부모가 자녀를 칭찬(격려)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언젠가 어린이들이 축구하는 장면을 TV에서 보았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어렴풋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장면이란 어린 아이 하나가 골대 앞에서 공을 찼는데 공이 들어가지 않았습다. 그런데도 사이드라인(sideline)에 서있던 그 아이의 아버지 같이 보이는 어른이 ‘Good job! Good job!’이라고 소리치면서 박수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아버지 같았으면 ‘야, 그것도 못 넣니? 못난 녀석 같으니라고~’라는 식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 아들 달린 축구하는 곳에 몇 번 가보니까,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웬지 엄마들이 더 난리인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더 열을 내서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ㅎㅎ 물론 그렇다고 제가 미국식 자녀 양육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는 자녀 양육에 칭찬(격려)도 필요하고 채찍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도 가해야 하지만 또한 쓰다듬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5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 솔로몬 왕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지혜자의 채찍질이 미련한 자의 칭찬(격려)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우매자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악인의 거짓된 위로’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지금 그는 우리에게 악인의 거짓된 위로를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악인의 거짓된 위로를 경계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밭에서 가시나무의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한 마디로, 우리가 우매자의 노래, 즉 악인의 거짓된 위로를 경계해야 할 이유는 그 위로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헛됨을 “가시나무의 타는 소리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시나무의 타는 소리’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가시나무가 탈 때에는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의 물을 꿰밀 수 있는 열은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가시나무’는 종종 악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삼하23:6; 나1:10) 솔로몬 왕은 육체적 쾌락을 즐기면서 내는 악인의 거짓된 위로의 소리는 그 순간에는 잠깐 위로가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곧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악인의 위로는 헛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우매자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지혜자의 책망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7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백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이느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리 책망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자를 책망하면 그가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잠9:8) 그래서 잠언 기자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지혜 있는 자는 (사랑으로) 책망하는 여러분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8절) 또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워 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 있는 자를 사랑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성경 잠언 9장 9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또한 성경 잠언 25장 12절을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청종하는 귀’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참 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그의 명령의 음성을 듣지만 더불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딤후3:16).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므로 우리는 죄악의 길을 걷다가도 회개하고 돌이켜 바르게 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망을 받아 회개하므로 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딤후3:16). 그래서 잠언 기자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잠27:5).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빠뜨려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형제에게 사랑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여 돌이켜 바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은 사랑으로 책망을 하는 지혜자 자신이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자가 자기 자신을 채찍질 하는 것을 게을리 할 때는 자기 자신도 우매자의 노래를 즐기게 될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위험을 솔로몬 왕이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학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케 하느니라.”** 이 말씀은 물질을 탐하는 마음은 어두워져서 의외 불의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자미에스). 결국 우리 자신도 남을

채찍질을 잘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신실하게 하지 않을 때, 뇌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마음의 일어나는 탐심에 자극을 받아 결국 분별력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진리를 들어 보십시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급게 하느니라” (잠7:23). 그래서 성경 신명기 16장 19-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급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급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좇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우리는 지혜자의 책망을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중의 귀’ 찾아 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특히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책망들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들춰내는 설교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디모데후서 4장 3-4절이 생각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 시편 141편 5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 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 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우리는 지혜자의 사랑의 책망을 ‘머리의 기름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책망이 듣기가 힘들고 괴롭겠지만, 우리가 양심의 찔림 속에서 잠잠히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정하고 자백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는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의와 불의를 분별하여 의의 길을 걸어가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의와 불의를 분별하여 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신학교 선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같이 점심 식사 한 후, 참 진솔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과 대화를 통하여 귀한 배움을 허락하셨고, 또한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위로 또한 받았습니. 하나님께서는 그 선배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부드럽게 면책해 주셨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의 면책을 받으면서 생각 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과 헤어진 후, 차타고 교회로 오면서 그 생각난 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드리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참 제 마음이 몽클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과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책망의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요한계시록 2-3장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일곱 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을 받고, 나머지 다섯 교회는 칭찬과 더불어 주님께 면책을 받습니다. 한번 그 주님의 면책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1)에베소 교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2:4). (2)버가모 교회: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계2:14-15). (3)두아다라 교회: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 하는도다” (계2:20-21). (4)사데 교회: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계3:1-3a). (5)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도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별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계3:15-17). 과연 여러분은 이 다섯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저희 교회에 적용되는 책망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 어야 합니다(계2:7, 11, 17, 29; 3:6, 13, 22).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자신을 채찍질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지혜와 청종하는 귀를 기원하면서)

왜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탐학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케하느니라”(전도서 7장 7절).

오늘 어느 한 분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모 나라의 한 99% 간호사들은 외국으로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99%의 간호사들 중 결혼한 약 98% 정도 간호사들은 외국으로 나가면 외도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세대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경향이 그리 많다고 하여도 저는 그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불륜의 관계를 맺는 일이 많은 것일까요? 저는 지난 번 잠언 5장 8절 말씀 중심으로 왜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멀리해야 할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며,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불륜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가까이 해야 할 자기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해야 할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만을 성실히 사랑하지 않고(15절) 또한 그녀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18절). 또한 그는 자기 아내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고 있지 않고,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19절) 다른 여인에게 정을 주고 남의 아내 가슴을 안아 자식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16, 20절).

저는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7절 말씀에서 왜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인지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란 바로 ‘탐욕’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모세의 10계명 중 열 번째 계명이 적혀있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왜 우리는 탐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아내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잠5:19). 그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분수에 넘치게 다른 여자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우리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는 그녀에게 대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아무리 많은 여자를 보고 들어도 만족함을 모릅니다(전1:8).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으로 피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벧후2:18). 죄를 짓게 하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여인을 탐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륜의 관계를 맺는 원인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족한 줄을 모릅니다(사56:11). 그러므로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내를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고(잠5:19) 우리 이웃의 아내를 탐내게 만듭니다.(출29:17)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탐욕으로 향하지 말아야 합니다(시119:36).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골3:5).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눅12:15).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골3:5). 우리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5절). 그 이유는 이미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갈5:24). 바라기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출20:17) 오히려 아내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잠5:19).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엡 5:3).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 중심된 부부 관계를 추구하면서)

지혜자의 섬김

[전도서 7장 8-10절 말씀 묵상]

저는 오늘 오전에 식사를 한 후, 교회 한 두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두 분께서 반찬을 만들어 주셨기에 저는 먹어 본 후 감사 전화를 드린 것입니다. 그 두 분 중 한 분은 제가 감사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 나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드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분의 말씀을 듣고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에 나오시겠다는 이 분의 말씀...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또한 주님을 함께 섬기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서로의 삶 속에서 엿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서 작은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예수들이 함께 하는 모임이 참된 예수님의 공동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은 과연 나(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입니다.

우리는 전도서 7장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7장 1-4절에서는 ‘지혜자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7장 5-7절에서는 ‘지혜자의 책망’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8-10절에서는 ‘지혜자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8-10절 말씀 중심으로 지혜자는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는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자는 끝까지 일을 하여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8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 솔로몬 왕은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3:1-2). 그리고 그는 우리 모든 사람의 결국인 죽음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7:2).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끝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8절).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일의 끝’이란 것은 사람이 그 하는 일에 있어서 결심함을 말합니다. 그것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은 일을 시작만 하고 마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박윤선).

우리의 일상생활을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가 시작만 하고 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책을 펴고 읽기를 시작한 하지만 대부분 끝까지 읽지를 못하고 중단한 후, 그 다음 날이나 다른 날들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책 읽는 것 외에도 시작한 일을 끝을 내지 못하고 중단한 후, 미루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일은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위로하면서 일을 마무리 못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작만 하지 말고 끝까지를 일을 마무리 하여 결실을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서 3장 1-2절과 7장 2절,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8절 상반 절을 종합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했을 때 지금 솔로몬 왕이 목적이 이룰 때와 죽을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맺은 열매가 무엇인가를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여태껏 주님의 일을 하면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주님의 일을 통하여 어떠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서 서서 회계할 때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는가?’ 등등.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되어서는 아니 될 텐데...” 라는 생각과 더불어 저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인생은 끝까지 달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아무리 창대했었을 지라도 끝이 초라하면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했었을 지라도 끝이 창대하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론 끝이 꼭 창대해야 한다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도중에 하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달리되 우리는 끝을 생각하며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결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지혜자는 참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8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 ...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지난 주에 만난 선배 목사님과 이런 저런 대화를 진솔하게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은 바로 ‘인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겸손함과 더불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제 마음에 책망도 됩니다. 그 이유는 제 안에 조급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격도 급한 면도 제게 있지만,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생각하다 보면 언행의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험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르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다 앞서 가므로 그르치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왜 조급한가 생각해 볼 때 그 원인은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8절). 교만한 마음에는 참는 마음(인내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마음에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행뿐만 아니라, 생각의 영역에서도 조급하게 주님 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저처럼 조급한 분들은 잠언 기자는 잠언 21장 5절과 29장 20절에서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함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21:5),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잠29:20). 성경은 조급한 사람에게는 바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급한 사람은 궁핍함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말하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전7:9).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함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힘든 일들도 접할 수 있지만, 또한 화나는 일들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지 못하고 미련한 자처럼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내게 되면 주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19:11). 오히려 우리는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화나게 한 사람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성경 잠언 25장 15절을 보십시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분노할 때 오래 참는 것, 그리고 부드러운 혀로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 그러므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설득시키므로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는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야고보서 5장 10-11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증홀히 여기는 자시니라.**”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지혜자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현실에 충실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0절을 보십시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쩍이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 열매를 맺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힘든 일을 접하고 또 접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 힘든 일을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합니다. 시작은 거창 했을지 몰라도 완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만할 때 인내심을 잃고 조급함 속에서 속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역경 속에서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분노하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분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분노합니다. 이러한 자를 가리켜 오늘 성경은 우매자, 즉 미련한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9절하). 이러한 미련한 자는 현재의 난관과 역경보다 과거의 행동했을 때를 그리워합니다(10절). 마치 일을 시작할 때 좋았었는데, 일을 계속 하다 보니 이런 저런 어려움들을 접할 때 과거의 일을 시작할 좋았을 때를 그리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다보니 미련한 자는 현실을 직시하고 일을 끝내고자 하는

사명감에 이끌려 현재의 충실하기보다 자꾸만 달콤한 환상 속에서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현재의 삶에 불충실합니다. 그러기에 미련한 자는 자꾸만 현실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현실이 어떠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현실에 충실합니다. 그는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기보다, 현재의 난관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므로 현재 그 은혜를 기념합니다. 기념하되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현재 그가 당면한 난관과 역경에서도 자기를 건져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리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미래의 소망을 두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는 결코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지혜로운 자는 꾀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입니다. 신앙의 경주로 말하자면 골라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골라인을 통과하면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알기에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달리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냐” 라고 묻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10절). 아니, 권면이라기보다 책망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자의 책망을 겸손히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 중 하나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면서 지혜가 부족함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신의 부족한 지혜를 보게 될 때, 한 가지 고백은 참 오늘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저는 저의 부족한 지혜로 인하여 양 떼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것은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매주 수요기도회 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하여 마음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8-10절 말씀 중심으로 지혜자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가지로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1)첫째로, 지혜자는 끝까지 일을 하여 결실을 맺습니다. (2)둘째로 지혜자는 참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3) 마지막 셋째로, 지혜자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현실에 충실합니다. 이러한 지혜롭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고 즐기면서 완수하길 기원하면서)

인생의 경주

[전도서 7장 8-10, 14절 말씀 묵상]

이번 주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배 목사님은 올해 48세이신데 앞으로 2년이 목사님에게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0살 되기 전에 교회 기초가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선배 목사님은 목회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50대가 되어서도 목회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참으로 목회가 평탄하지 않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60대가 되어서도 목회에 시달리는 목사님들도 없지 않아 우리 주위에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접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과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목회를 감당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90대 어르신들, 80대, 70대, 60대, 50대 분들과 교제하면서 인생을 100마일 경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인생이 100세를 넘게 살 수도 있고 또한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지만 한 100세를 산다고 가정에서 인생을 한 100마일 경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저는 한 40마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남은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한 다섯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8절에서 솔로몬 왕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면서 끝까지 달릴 생각을 하지 않고 달린다면 그 경주는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달리되 경주를 시작할 때만 열심히 달려서는 아니 됩니다.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는 자세로 달리되 시작보다 끝이 더욱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끝이 아름답지 못해 많은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주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목회를 삼, 사십 년 잘 하시다가도 은퇴할 때 은혜스럽게 은퇴하지 못하시는 목사님들에 대해 들으면서 참으로 목회 초년병이 저에게 오늘 말씀인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말씀이 귀한 교훈으로 마음에 다가옵니다. 이 교훈을 결코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마치고자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되 우리의 끝이 시작보다 더 아름답고 예수님의 향기가 들어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경주를 참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달려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8절에서 솔로몬 왕은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자 힘쓰면서 우리는 참고 참아야 할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됨을 경험합니다. 인내심이 요구되는 마라톤 인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인생살이에 우리는 참고 견디며 끝까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이 참는 마음 외에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시작은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의 경주를 달리다가 나중에 교만한 마음으로 인생의 경주를 달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엔 스스로 작게 여기며 겸손했지만,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처음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치리 하였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신앙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두렵습니다. 처음 목회 시작할 때에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의 외치는 소리였지만, 나중엔 교만해져서 도시 한 복판에서(왕궁에서) 다윗 왕처럼 죄를 범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운 것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지키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고자 달리기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또한 끝까지 겸손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시작도 겸손 끝도 겸손이 되어야 합니다. 참는 마음으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셋째로, 인생의 경주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밟으면서 달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9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우리들에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밟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라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마라톤을 달리는 달리기 선수가 시작부터 급한 마음으로 빨리 달리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조급한 마음으로 달렸다가는 결코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좀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조급한 마음으로 달려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을 게으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게으름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인생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조급하게 달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경주를 달리면서 우리는 노를 밟으면서 달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급하게 달릴 때 급한 마음에서 노를 밟하기가 쉽습니다. 언젠가 양로원에 교회 권사님 만나러 갔다고 다른 두 할머니들이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길래, 욕하면서 싸우시는지 저는 놀랐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교육상 안 좋을 것 같아 부랴부랴 그 양로원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인생을 살만큼 사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여 욕하며 싸우는 모습이 말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잠15:18). 링컨 대통령의 말대로 이젠 저도 40대, 제 얼굴을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노하는 얼굴, 화내는 얼굴로 인생의 경주를 달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분주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침착하게, 분노를 절제하면서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싶습니다.

넷째로, 인생의 경주를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달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0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쩍이나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10절). 즉, 지혜로운 자는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현재 경주를 달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선수가 경주를 달리면서 ‘아 경주 시작은 내가 제일 빨리 뛰고 있었는데...’ 하면서 이미 달려온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경주를 달리고 있다면 과연 그의 경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 향수에 젖어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살기에 삶 자체가 발전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도 내가 한 때는...’ 하면서 과거 잘나가던 때만 그리워한다면 현재 삶에 충성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의 가능성을 충분히 사용하여 경주를 달릴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앞을 바라보면서 달립니다. 뒤돌아보면서 달리는 마라톤 선수는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골라인(목표지)을 바라보면서 달립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선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과거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보다 현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사43:18-19). 그러므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야 합니다. 분명히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인생의 경주를 형통함과 곤고함이 병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달려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알면 더 좋을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람은 우리의 장래를 알면 분명히 하나님께 더욱더 범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알면 분명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자기가

주인인양 마음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게을러 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포기하면 될 때로 되라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장래는 모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게임도 이미 다 끝나 점수를 알고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아예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좀 모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몰라야 합니다. 우리의 장래가 형통할지, 곤고할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형통하면 기뻐하며 곤고하면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우리의 인생에 형통함만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 집니다. 또한 너무나 우리의 인생에 곤고함만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범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잘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 평탄한 길과 언덕길이나 굴곡의 길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코스는 마라톤에 있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의 경주에도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감사, 찬양,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하면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7-8절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7-8).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잘 마치십시오. 우리!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우리의 시작보다 우리의 끝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달리십시오. 인내심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달리십시오. 급한 마음과 분노함으로 경주를 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곤고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50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기원하면서)

지혜의 아름다움

[전도서 7장 11-14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여러분이 삶 속에 내리는 결정들을 보면 그 결정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 생각은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만일 A라는 길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만, B란 길은 우리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A란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는 ‘이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육체적 생활에만 이익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길이 영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우리의 육체적 생활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일 영적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 7장을 묵상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지혜의 마음’, 5절에서 7절까지는 ‘지혜의 책망’, 그리고 8-10절에서는 ‘지혜의 섬김’.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11절),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 (12절). 한 마디로, 그는 지혜가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지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좋다’ 또는 ‘이점’이란 뜻입니다. 즉, 지혜가 아름답다 라는 말씀은 지혜가 우리에게 좋고 이익을 준다는 뜻입니다. 과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관을 줍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1절에서 솔로몬 왕은 지혜가 유업같이 아름답다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유업’이란 것은 영구히 계속되는 소유를 말합니다. 즉, 지혜가 아름다운(우리에게 이익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박운선).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 등은 영원한 가치가 없지만, 지혜는 유업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기에 지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유업같이 영원토록 가치가 있기에 좋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관을 주기에 지혜는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토록 살도록 인도해(도와) 주기에 좋고 유익하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3:11) 지혜가 바로 우리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시켜 주기에 지혜는 좋고,

유익하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잠24:14).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둘째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보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2절을 보십시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여기서 ‘보호’란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그늘’ 또는 ‘대피처’란 뜻입니다(라드매치). 지금 솔로몬 왕은 지혜와 돈이 우리에게 그늘이 또는 대피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햇빛 짹짹 찌는 낮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 때 우리는 너무 더워서 그늘을 찾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바로 지혜와 돈이 우리에게 그러한 그늘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돈이 우리에게 그늘을 준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평온과 안심(pleasant security)을 준다는 말입니다. 한 마디로, 지혜나 돈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혜와 돈이 여러분에게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돈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은 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돈이 있으면 좀 안심도 놓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잠13:8).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유괴를 당했는데, 유괴범이 돈을 요구할 때 만일 돈이 있으면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 아이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일 우리가 돈이 없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은 지혜가 돈 보다 더욱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가 돈보다 더 우리를 보호함에 있어서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생각에도 돈보다 지혜가 우리를 보호함에 있어서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잠언 31장 10-31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진주나 돈 같은 물질은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란 것에는 영원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전7:11). 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 왕은 돈보다 지혜가 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보존해 주기에 지혜가 돈보다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잠3:13-14). 우리는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잠4:6)

마지막 셋째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크게 한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첫째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급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끈게 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이 고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박운선).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곤고할 때에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형통할 때에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지 곤고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비하여 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형통의 복만 주시지 왜 곤고함을 주시는가?’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4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형통함이나 곤고함은 우리로 하여금 장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박운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혜는 형통할 때에든 곤고할 때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삽니다.

(2) 둘째로,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형통할 때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며 곤고할 때 우리로 하여금 생각케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4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과 곤고를 둘 다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형통할 때만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곤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란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곤고할 때, 이 때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과연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곤고할 때

무엇을 보게 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까? (박윤선)

(a)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지혜는 곤고할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이 큼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곤고할 때 깨달을 수만 있다면 곤고함 자체도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지혜가 깨닫게 해주기에 지혜는 유익합니다.

(b)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에는 주위 사람들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시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곤고해지면 그때서야 주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던 마음도 좀 수그러지게 되므로 그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3)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느 누구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곤고할 때 우리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곤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d) 그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내다보게 해줍니다.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관을 심어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특히 곤고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곤고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유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아름다움입니다.

지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유익한 것을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가 유익한 것은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4:7).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약1:5). 그러므로 지혜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혜의 부족함을 경험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수요기도회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후)

지혜의 근본

[전도서 7장 15-18절 말씀 묵상]

저는 오늘 새벽기도회 때 역대하 9장 7절 말씀 중심으로 복된 가정, 복된 교회 그리고 복된 나라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으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지혜로 왔기에 그 나라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공과 의를 행하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케 하였기에(8절) 그 나라 백성은 스바 여왕의 말대로 복된 백성 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정의 가장인 남편 또는 아버지가 지혜로 와야 합니다. 우리의 회사가 복된 회사가 되려면 회사의 사장이 지혜로 와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려면 목사가 지혜로 와야 합니다. 우리의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려면 대통령이 지혜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기도회 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지도자, 회사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길 우리는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요즘 매주 수요일기도회 때마다 전도서 7장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지혜의 마음”, 5절에서 7절까지는 “지혜의 책망”, 8-10절에서는 “지혜의 섬김”,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는 “지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8절을 보면 지혜자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5-18절을 묵상하면서 잠언 1장 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지혜의 근본**”이란 제목을 걸로 지혜의 근본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8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솔로몬 왕은 지혜의 근본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양극(both extremes)를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balance)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균형 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이미 묵상한 전도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한 날**’은 좋아하는데 ‘**곤고한 날**’은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이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잘 누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그 은혜를 누리겠다고 믿으면서도 곤고한 날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곤고한 날에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십니까? 형통할 때 보지 못하던 것을 곤고할 때 보는 경험을 하십니까? 곤고할 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승승장구할 때, 보지 못했던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우리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므로 경외하게 되는 것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여러분은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할 날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도 허락해 주시는 것, 즉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것을 보면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필요함을 더욱더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도 필요하지만 또한 곤고한 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병행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므로 말미암아(14절)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형통만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에게는 고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통의 복을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고난의 축복은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은 균형을 잃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장래 일만은 아닙니다(14절). 우리는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해야 하고 악인은 형통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을 하는지 우리로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금 솔로몬 왕은 왜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은 장수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의인이 장수의 복을 누리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는 양극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하며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양극을 피합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양극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선 **“이것 … 저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저것’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과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근본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양극인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과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을 피합니다.

첫째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외식주의자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외식주의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므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식주의자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자신들에게 전가 되었다기보다, 그 하나님의 의를 자기 자신들의 노력과 공로로 얻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외식주의 자들입니다. 이들의 의는 자기의 노력과 공로를 인정하는 의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의는 우리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외식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지혜는 결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었습니다(약1:15).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온유함, 즉 겸손함이 있는데, 외식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저는 이 솔로몬 왕의 말을 들을 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패망하지 않기 위해선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둘째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7절을 보십시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악인이 되는 것은 괜찮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극도의 악을 경계하며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극도의 악을 추구하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극도의 악인은 매우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습니다(4절). 또한 미련한 자의 마음은 탐학에 지배를 받아 뇌물을 좋아합니다(7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며(8절) 또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합니다(9절). 이러한 자에게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극도의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은 극도의 악인은 기한 전에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7절). 그런데 웬지 이 17절 말씀은 15절 후반 절 말씀과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볼 때, 좀 서로 반대되는 말씀같이 보여집니다. 솔로몬 왕은 15절 후반 절에서 악인 중에 악행 중에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렇게 17절에 와서는 악인은 기한 전에 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성경 전도서 8장 12-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인이 백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녕히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비록 우리가 보기에 자기의 악행 중에 장수하는 악인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15절) 분명히 성경은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8:13).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장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극단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게’ 살지 않습니다(16, 17절). 지혜의 근본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않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의 근본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은 스스로 패망케 하는 것이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은 기한 전에 죽는 것인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얻었은즉,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면서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잠8:13). 그리고 그가 의를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근본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여 의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의 길을 걷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 주시길 기원하면서)

지혜자로 능력 있게 하는 지혜

[전도서 7장 19-22절 말씀 묵상]

저는 요즘 제 주위에 연로하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을 접하면서 우리의 결국이 죽음이라는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인간의 결국에 대해서 유심하게 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육신의 장막인 몸이 점점 더 쇠약해져 갈 수 밖에 없음을 봅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쇠약해지면 이런 저런 병이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면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이런 저런 병이 걸리기 쉬운 것처럼, 우리 영혼도 힘이 없으면 이런 저런 유혹에 쉽게 빠져 범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능력을 받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말씀 중심적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은 영력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능력 하니까, 얼마 전 경상도 분하고 대화하면서 들은 말이 생각납니다. 그 말이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뻑시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ㅎㅎ 아마 열심히 기도한다는 말을 경사도 분들은 ‘뻑시게 기도한다’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어떤 어르신에게 젊은 목사로서 영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영력이란 의미를 잘 몰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후로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도 영력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력이 부족하고 실력, 실천력, 체력 등등 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부족함을 느끼되 저는 무기력함까지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영력이나 지력이나 실력, 실천력, 체력 등 부족한 점들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까? 특히 영력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9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지혜가 지혜자를 한 도시를 치리하는 열 명의 통치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강하게)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한 마디로, 지혜는 지혜자로 능력 있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지혜가 어떻게 지혜자를 능력 있게(강하게) 해 줍니까? 한 3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는 이 세상에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므로 지혜자를 능력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0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입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에는 선행을 행하므로 스스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롬3:20)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0절). 지혜란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지혜자에게 알게 해 주므로 그를 능력(힘)있게 해줍니다. 어떻게 지혜는 지혜자를 능력 있게 해줍니까? 바로 지혜는 지혜자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듦으로 그를 능력 있게 해 줍니다. 지혜는 이 세상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이 없다는 사실과 인간의 노력인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인을 의롭다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므로 우리를 능력(힘)있게 해 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혜는 지혜자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시고 죄를 범치 아니하신 참 의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므로 우리를 능력(힘)있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는 이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금은보화보다 더욱더 이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은 이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므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한 마디로, 지혜는 우리에게 주는 힘은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지혜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둘째로, 지혜는 지혜자에게 분별력 있는 귀를 주므로 그를 능력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1절을 보십시오: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남의 말을 경청하는 귀가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는 느끼는 것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이 참 귀한 위로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남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제하되 사도 야고보의 말처럼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해야 하기에 남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하라는 야고보의 말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약3:19).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겸손히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자는 무조건 아무 말이나 다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분별하여 듣습니다. 한 마디로, 지혜자는 분별력 있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을 말은 듣고,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은 걸러내서 듣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련하여 이러한 분별력 있는 귀가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다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대해 수군수군하는 사람들의 말까지 다 듣고 우리 마음에 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에 두다가는 우리는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도 듣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전7:21).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모든 사람들의 모든 말들에 관심을 기울여 듣다가는 그들 중 우리를 저주하는 목소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찰스 스펀전(Charles Spurgeon) 목사님은 그의 목사 후보 학생들에게 ‘목사는 보이지 않는 눈 하나와 들리지 않는 귀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한 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사람들의 혀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의 귀를 멈추게 하므로 다른 사람들의 한 말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위어스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구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별력 있는 귀로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별하여 들어야 할 말만 들어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해야 합니다. 그 들어야 할 말 중 하나는 바로 지혜자의 책망입니다. 성경 전도서 7장 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느 누가 자기를 책망하는 목소리를 듣기 좋아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는 지혜자로 하여금 지혜자의 책망을 듣게 만듭니다. 책망을 듣게 할 뿐 아니라,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분별력 있는 귀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 있는 귀로 세상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힘은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지혜는 죄를 깨닫게 해주므로 지혜자를 능력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2절을 보십시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이 아느니라.**” 지혜가 지혜자로 하여금 세상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 죄를 깨닫게 됩니다. 비록 세상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여 동일한 죄를 계속 범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여기게 해줍니다. 그 한 예로, 지혜가 지혜자로 하여금 죄를 죄로 여기게 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죄입니다(22절). 그리고 그 마음의 죄란 우리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22절). 우리가 분별력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다보면 우리는 저주하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만일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의 소리도 듣지(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이러한 마음의 소리도 지혜자로 하여금 듣게(깨닫게) 해 주므로 그를 능력 있게 해 줍니다. 어떻게 지혜가 지혜자를 능력 있게

해줍니까? 바로 지혜는 지혜자의 죄를 질 수 밖에 없는 무능력함을 깨닫게 해줌과 동시에 죄를 사해주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케 하므로 지혜자를 능력 있게 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참 지혜는 지혜자로 하여금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해 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므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줍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혜는 지혜자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므로 능력(힘)있게 해 줍니다. 지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며, 또한 경험하게 해 주므로 지혜자를 능력 있게 해 줍니다. 한 마디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힘은 바로 보혈의 힘입니다. 지혜는 예수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힘 있게 합니다.

지혜는 지혜자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합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힘 있게 합니다. 어떻게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힘 있게 합니까? 지혜는 이 세상에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시고 죄를 범치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 결과 지혜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힘으로 능력 있게 하므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에게 분별력 있는 귀를 주므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음성을 걸러내서 듣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므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즉, 지혜는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능력 있게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힘으로 능력 있게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걷게 합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므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특히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죄를 깨닫게 해주므로 그 죄를 사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혜는 보혈의 힘으로 우리는 능력 있게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찬송가 486장 후렴)

은혜의 힘, 말씀의 힘, 보혈의 힘을 사모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전도서 7장 23-29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모든 인간관계가 갈등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나 갈등이 많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제일 나쁜 점들을 끌어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람이 저에게 나타나면 갈등을 원치 않기에 그 사람을 피합니다. 저는 그 사람과 대면하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에 주님의 뜻일까 자문해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제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힘들게 하고 당신 안에 제일 나쁜 점들을 끌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계신 줄도 모르겠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제가 피하고 싶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계실지도 모를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에게는 그러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실지 모른다고 말한 것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주시는 깨달음은 죄를 깨닫는 것이 큰 축복이란 것입니다. 전에는 죄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죄책감 속에서 저를 낙망시키기에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자 어거스틴(Augustin)이 한 말 “O Happy Sin!”(오 경사스런 죄여!)이 제 마음에 계속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의 의미를 제 삶 속에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3-29절을 생각할 때 깨달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3-29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깨달았다’라는 단어를 세 번 사용합니다: “내가 깨달은즉 …” (26절), “... 이것을 깨달았노라” (27절) 그리고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29절) 저는 이 반복되는 단어를 생각할 때 ‘과연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했을 때 저는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4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은 스스로 지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 왕의 지혜는 천하 열 왕보다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대하9:22). 그리고 솔로몬 왕 자신도 큰 지혜를 많이 얻어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보다 자기의 지혜가 낫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전 1: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더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힘썼습니다. 전도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그는 지혜를 알고자 마음을 썼던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고 말한 후(1:17) 이렇게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3절에 와서 또 지혜를 시험하면서 더욱더 지혜자가 되려고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은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입니다(23절). 솔로몬 왕은 더 지혜로와 지려고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그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스스로 지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지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지혜자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도 자기가 노력해서 스스로 지혜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일천 희생으로 번재를 드렸더니(대하1:6)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7절)하였을 때 솔로몬 왕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 않았습니까?(1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되 우리는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약1:5).

둘째로,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은 지혜를 통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4절을 보십시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라.” 여기에 나오는 ‘통달하다’라는 단어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부문의 지식, 기술 따위에 막힘이 없이 환히 통하다’인데 원어 헬라어 의미는 ‘탐구하다’(examine) 또는 ‘찾아다니다’(search)입니다(인터넷). 지금 솔로몬 왕은 인류 사회의 깊은데 있는 지혜를 찾아보려고 힘썼지만, 그는 결국 그것을 알기 어렵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박윤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지혜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찾는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기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지혜자가 될 수 없는 우리가 지혜를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통달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지혜를 통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전2:10).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 즉 찾아다니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찾아다니게 역사하실 필요가 있으시기에 바울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생각)을 알게 하시므로 그 뜻에 순종케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므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롬8:26). 아멘. 간구하시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27절).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더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중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 인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가 이렇게 스스로 더 지혜자가 되려고 힘쓰고 애써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울무와 그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울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여기서 우리 마음이 울무와 그물 같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은 우리 마음이 사망보다 독하여 마음이 울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의 미혹(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잠2:16-19, 5:1-14, 6:24-29, 7:1-27)(맥아더). 우리가 지혜를 가까이 하면 우리를 말로 호리는 간교한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잠7:5). 그러나 미련한 자는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별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입니다(22절). 이것은 마치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입니다(23절). 스스로 더 지혜를 얻고자 했던 솔로몬 왕이 결국 깨달은

것은 인간의 미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미련함은 스스로 무덤을 파듯이 음녀와 같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결국 올무와 그물에 걸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스스로 올무와 그물에 걸리지 않고 피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은 참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박운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대한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문제의 대한 해결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올무와 그물에 걸려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올무와 그물에서 벗어나 죄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넷째로,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죄를 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9절을 보십시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죄를 낸 것이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의 대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솔로몬 왕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 27-28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 내가 날날이 살피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가 많지 않은데, 특별히 여자들 중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처럼 우리 마음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어렵게 된 것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박운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어렵게 된 원인은 우리 자신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우리 사람들이 많은 죄를 내므로 말미암아(29절) 우리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므로 저와 여러분을 정직하게 다시 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깨달음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깨닫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혜를 통달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우리 자신에게 없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은 많은 꾀를 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가 되심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주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인생의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은혜를 누리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깨달음이 충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적은 깨달음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므로 나의 나됨을 깨닫기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오늘 하나님께 드린 임종 예배를 생각하면서)

“사람의 지혜는”

[전도서 8장 1-8절 말씀 묵상]

우리 한국 속담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궁지에 빠뜨린다는 뜻의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전도서 7장 23-29절을 묵상한 후 이 한국 속담이 종종 생각났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다는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2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올무와 그물에 걸려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지 않겠지만, 만일 우리가 미련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격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하고 미련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련함 가운데서 빈번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므로 결국 스스로 올무와 그물에 빠져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제 자신이 그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미련하여 생각과 입술을 절제 못하여 스스로 제 자신을 궁지에 빠트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후회한들 이미 엮질러진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로 인하여 제 자신을 스스로 궁지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번 노회 때 제가 한 장로님에게 던진 한 마디의 말이 이렇게 제 자신을 좀 궁지에 빠트릴 줄 몰랐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것이 뭐 궁지이겠는가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이런 저런 스트레스를 준 궁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 일로 인하여 제가 자 자신을 보면서 이런저런 번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저처럼 미련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궁지에 빠트리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1-8절 말씀 중심으로 사람의 지혜에 관하여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의 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둘째로, 사람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지혜로운 삶을 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왕’이란 말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

곧, 하나님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지금 솔로몬 왕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이라고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2절)(박윤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란 오늘 본문 3절 하반 절에서 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기에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9장 20-21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권자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조물주 하나님의 주권에 힐문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그저 겸손히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4절).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자는 주권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악한 것을 일삼아 하나님께 범죄합니다(3절). 솔로몬 왕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람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2 가지로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사람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화를 당하지 않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5절을 보십시오: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교훈입니까? 지혜가 있을 때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지혜가 없으면 곧 미련하면 화를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에 화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는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화를 모면하게 해줍니다까? 바로 지혜는 우리에게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게 해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화를 모면하게 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우리에게 시기를 분별하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지혜는 우리에게 지금이 어느 때인지 성경적 분별력을 줍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성경은 지금은 마지막 때, 즉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지금은 어느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구원 받을 때입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에게 바른 판단력을 줍니다. 성경 전도서 8장 7절을 보면 우리는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장할 수도 없고, 죽는 날도 주장할 수 없는 등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8절).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판단력은 우리는 무능력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전능하시 사,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이러한 판단력을 줍니다. 이러한 판단력 속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7:14).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또한 모래,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행통한 날도 있을 것이지만 또한 곤고한 날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14절). 바로 지혜는 이러한 알 수 없는 장래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 바른 판단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행통한 날에는 기뻐하게 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게 만듭니다(14절).

(2) 사람의 지혜는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나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솔로몬 왕은 사람의 지혜는 우리 얼굴의 광채가 나게 하고, 우리 얼굴의 사나운 것도 변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람의 미련함은 우리 얼굴의 사나움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을 사납게 하고 다니는 것, 참 본이 되지 않습니다. 비신자들이 우리의 사나운 얼굴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말했다고 하죠?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한다.” 이젠 저도 제 얼굴을 책임져야 할 나이가 지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제 얼굴에 사나운 면이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 얼굴이 좀 변화 되었습니까? 얼굴의 광채까지는 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얼굴의 좀 사나운 면이 없어졌습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의 사나운 것도 변하였지만, 그 얼굴에 광채까지 납니다. 다시 말하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얼굴에는 참된 평화가 가득합니다(박운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참되이 알고 순종하던 스테반이 죽을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죽을 때에도 얼굴에 참된 평화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익을 줍니다.

참된 우리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화를 당하지 않게 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지혜는 우리의 얼굴도 변화시켜 광채가 나게 해 줍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지혜의 유익을 사모하면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전도서 8장 9-13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 느끼는 것 중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참으로 이 세상의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시90:10). 또한 저는 이 세상의 근심된 일과 곤고한 일과 죄악 된 일과 죽을 일이 쌓인 세상이라 생각합니다(찬송가486장<구 474장>).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가운데 내리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다름 아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제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주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오는 세상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시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어떠한 결론을 나름대로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9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피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자기가 살핀 것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결론은 한 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12절을 보십시오: “**죄인이 백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녕히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것ियो.**” 솔로몬 왕은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살핀 후(9절) 그가 내린 결론은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1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는 것입니다(12절).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 악인(죄인)은 백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것같이 보일지라도(12절) 악인은 분명히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들의 날들이 그림자 같습니다(13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13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합니다(11절). 이 얼마나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까?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는 말씀 말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범죄 한 후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임하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죄 범하기를 속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사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에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악인은 바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악한 왕을 가리킵니다(박윤선).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하면 그가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주장하여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9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주장하는 하는 한 사람은 바로 한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백성들을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지낸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이유는 악한 왕 자신도 죽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리고 그 또한 다스리던 백성들 가운데서 잊어버린바 될 것이기에 솔로몬 왕은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종종 서로에게 축복할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요한삼서 1장 2절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전8:12-13).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으로 살피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 범하기를 담대히 하는 악인은 장수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코 장수하지 못하고 잘 되지 못하며 그의 삶이 그림자 같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분명히 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전도서의 결론인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범사에 영혼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해 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더딘 하나님의 징벌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8장11절).

전도자 솔로몬 왕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임한다면 사람들은 두려워서라도 또 다시 악을 행하는 것을 머뭇머뭇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기에 우리 사람들은 서슴없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죄인이 백 번 악을 행하고도”(12절) 마음이 담대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더 마음이 담대해 집니다. 그들은 거듭 범하는 죄로 인하여 마음이 더욱더 강퍅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강퍅한 마음으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징벌은 더딘 것일까요? 성경 로마서 2장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즉각 징벌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기회)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시험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히 돌아와 범한 죄를 회개하기보다 죄악으로 속히 돌이키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우리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고 있습니다(잠26:11).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행악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행악의 결과를 맞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자는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결코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행악하기에 마음을 담대히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벌로 인하여 부드러워졌기에 그는 담대하게 악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양심에 찔림 속에서 유혹을 뿌리치고 죄와 싸워 이겨 나아갑니다. 결코 그는 양심에 거리끼는 행악을 범하기를 속히 하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

죄를 짓는데 담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합니다.

더딘 하나님의 징벌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행사

[전도서 8장 14절 - 9장 1절 말씀 묵상]

요즘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짧다는 것’과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참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전보다 조금 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매주 수요기도회 때마다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으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가만 보고 계시는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 수요기도회 때 배운 것처럼 ‘악인들은 그들이 행한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 할진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히 징벌하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의 대답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전도서 8장 9-1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 왕이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펴본 후 내린 결론을 배웠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결코 잘되지 못하고(13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잘 될 것이다(12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17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본 후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그는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며 애써 궁구해 보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행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 왕의 결론을 중심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행사’란 제목 아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순종하므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솔로몬 왕이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행사가 무엇이었는가?’입니다. 2 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솔로몬 왕이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행사는 의인이 악인처럼 잘 안 되는 일이 있는 반면에 악인이 의인처럼 잘 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14절을 보십시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행사는 의인이 악인처럼 잘

안 되는 일이 있는 반면에, 악인이 의인처럼 잘 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박윤선) 좀 달리 말한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의인이 악인처럼 징벌을 받는가 하면 악인이 의인처럼 보상을 받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맥도날드).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처럼 징벌하시고 악인을 의인처럼 보상을 하시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여태껏 성경 인물 중 시편 73편을 쓴 아삽만이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에 대한 문제로 고민한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민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질문하기를 ‘왜 악인의 길이 형통하며 편안하게(안락하게) 사는 것입니까?’입니다. 이 질문이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끔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악인을 형통케 하시고 의인은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2) 솔로몬 왕이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행사는 의인 또는 지혜자에게 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지 미움의 표시인지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 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는지 미움을 받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깨달을 수 없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행사는 의인 또는 지혜자에게 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지 미움의 표시인지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맥도날드). 분명한 것은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분명하지 않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반드시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번영케 하시지 않는 것인지(박윤선) 그것이 사랑의 표시인지 미움의 표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원대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경륜을 어렵듯이 깨닫긴 하지만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궁구하며 애쓸지라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반드시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번영케 하시지 않으시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며 믿고 있지만, 어쩔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라는 질문도 던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성경 신명기 1장 27절을 보십시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27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셨으면 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셨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미워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이 사랑의 표시입니까? 아니면 미움의 표시입니까? 솔로몬 왕의 결론은 우리가 그 대답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를 깨달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입니다. 한 2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난제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는 줄 알고(9:1)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8:16-17)(박윤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난제를 접합니까? 참으로 우리 인생에 난해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그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러한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에 오는지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으십니까? 솔로몬 왕은 인생의 난제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난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우리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난제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는 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확신 있게 믿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접하는 모든 난한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도 다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미래에 어떠한 일들을 접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이나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난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미래도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을 때 설상 우리 앞에 고통과 역경이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분복에 있어서 만족을 느끼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온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접하는 수 없는 많은 난해한 문제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무수한 일들을 접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다 주님께 맡긴 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만족하며 누리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솔로몬 왕은 우리가 받은 분복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육체적 쾌락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는 이미 육체적 쾌락의 시험 삼아 추구해 보았지만, 그의 결론은 ‘헛되다’인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서 2장 24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받은 복을 즐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이미 받은 신령한 복들을 즐거이 누리야 합니다. 괜히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는 난해한 문제들에 얽매어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시간과 힘을 쓰기보다 우리는 불공평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분복을 즐거이 누리야 합니다.

오늘 운전하고 교회로 오다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흥미로운 이야기는 다름 아닌, 한국 경남 함안군에서 고려시대 연 씨앗을 심어 700년 만에 연꽃을 피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700년 전에 연 씨앗을 심었는지를 알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인간의 생명이 길어도 칠·팔십인데 이렇게 꽃의 생명이 긴 것이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면서 꽃의 생명도 이렇게 주관하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애써 궁구해 볼 때 우리는 결코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 씨앗이 700년 후에 연꽃으로 피는 것조차도 깨달을 수 없을 진데,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처럼 징벌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며, 악인을 의인처럼 보상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반드시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번영케 하시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를 압니까? 그것이 과연 사랑의 표시인지 미움의 표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모든 난제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는 줄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에 만족하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래 있다는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깨달아 알아 하루하루 겸손히 누리며 기뻐하기를 기원하면서)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입니다.

[전도서 9장 2-6절 말씀 묵상]

혹시 여러분 ‘파울 신드롬’이란 말 들어 보셨습니까? ‘파울 신드롬’이란 남아공 월드컵을 강타한 신드롬으로서 ‘점쟁이 문어’ 파울이 낳은 신드롬을 가리킵니다. 독일 서부 오버하우젠 해양생물관의 수족관에서 월드컵 경기를 예측한 파울이란 문어의 적중률은 10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승전과 독일 관련 7경기 등 총 8경기의 승패를 족집게처럼 맞췄다고 합니다(인터넷). 저도 TV와 인터넷으로 이 문어에 대한 기사를 보았지만, 참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문어뿐만 아니라, 나중엔 점쟁이 악어와 별의 별 점쟁이라는 동물들이 나오 길래,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팅 사업체에서는 이 점쟁이 문어 파울로 인하여 돈을 엄청나게 번 사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결승전에서 이긴 후, 결승골을 넣은 스페인 선수가 하는 말을 TV에서 보았는데 ‘Long live 파울’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람들이 점쟁이들을 만나서 점(운세, 사주)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전도서 7장 14절이나 8장 7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우리가 미래(‘장래 일’)를 헤아려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장래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사람의 결국인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국인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2-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일반입니다’라는 말을 네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 일반이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결국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은 ‘우리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데 그 일반적인 결국은 바로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2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그는 의인이던 악인이던, 선인이던 죄인이던, 선하고 깨끗한 자이던 깨끗지 않은 자이던, 제사를 드리는 자이던 드리지 아니하는 자이던 등등 모두 다 결국에 가서는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부인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결국인 죽음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비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동의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 그리스도인들과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후의 결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나 비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세상(This Age)에서의 결국이 죽음이라는 사실은 동의하지만, 죽음 후 오는 세상(The Coming Age)에 대한 결국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후 오는 세상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든지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는 오는 세상의 삶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비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오는 세상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전도서 7장2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됴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오늘도 살아 숨 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 땅에서 죽음이란 사실에 유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죽음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이 땅에서 잘 살아드려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드려야 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2-6절 말씀 중심으로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악들을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의인이나 악인이니 결국 이 세상에서는 그 당하는 일에 있어서 별로 차별이 없음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이유로 하여 그 평생을 범죄의 기회로 삼습니다(박윤선). 예를 들어 악인이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인도 자기들처럼 별 다를 바 없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악인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이 세상에서 죄를 더욱더 범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은 죄를 범하되 더욱더 담대히 죄를 범하는 이유는 그가 행하는 악한 일에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8:11). 그러므로 악인은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죄를 범하기를 담대히 합니다.

여러분은 만일 여러분의 죽음이 임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만일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6개월, 그리고 길어야 1년 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전 한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란 (1)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려고 시도하던지 아니면 (2)죽음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범한 죄들을 뉘우치며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이 두 가지 반응 중 두 번째 반응보다 첫 번째 반응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죽음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신자들과 또한 회개치 아니하고 비신자들처럼 죽음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려는 신자들까지 포함하면 첫 번째 반응이 두 번째 반응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하나님을 믿었던 구약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징계)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얼마나 고집을 피우고 목을 곧게 하며 회개하기를 거부했는지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참 더디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죽음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범한 죄들을 회개하는 사람들보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산다면 이것은 마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3절)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기에 앞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악들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위어스비 목사님은 ‘죽음이란 마치 X-ray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 검사를 할 때 X-ray를 찍는 것처럼, 죽음이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X-ray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X-ray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듯이, 죽음이란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가득한 죄악들을 들춰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란 도구를 사용하셔서라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 안에 가득한 죄악들을 들춰내셔서 회개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가득찬 죄악들을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키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가득한 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면서 남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악을 십자가에 부지런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계속 우리의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이란 사망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가득찬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남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우리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4절을 보십시오: “모든 산 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이니라.” 여러분의 귀에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개”라는 것은 제일 경멸하는 동물 이었습니다(월볼드). 그리고 사자는 우리 알고 있듯이 동물의 왕국에서 왕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 왕은 살아 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었을 때보다 살아 있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왜 죽음보다 생명이 낫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는 올바로 살아볼 기회가 없지만,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고 바로 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지라도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나은 것입니다.

과연 오늘도 살아 숨 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죽을 줄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5절을 보십시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바 됨이라.**”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죽은 자에게는 사랑함도 없고 미워함도 없고 시기함도 없습니다(6절). 이미 죽었기에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다시는 영영히 분복이 없습니다(6절). 한 마디로, 죽은 자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상급을 바라보고 행동할 만한 깨달음도 없습니다(박윤선). 죽은 자는 소망도 없고 그 이름이 잊어버린바 됩니다. 그러나 산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산자는 죽을 줄을 알기 때문에 경성하여 새로운 각오로 살 수가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박윤선).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죽을 줄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죽을 줄을 알기에 우리는 경성하여 새로운 각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 있을 때 우리는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 너무 늦게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때에 회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고 나서는 회개할 수도 없고, 후회를 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결국은 다 일반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죽을 줄을 알고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악들을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X-ray와 같은 죽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산 자들로서 경성하여 새로운 각오로 살 수가 있는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산 자라로서 회개하여 새로운 각오로 주님의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장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십시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는 말씀을...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회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죽을 때에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사람

[전도서 9장 7-10절 말씀 묵상]

요즘 여러분은 무슨 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슨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이 슬픈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고 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7절 하반 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박윤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기쁘게 살아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자들은 어떻게 기쁘게 살아가는지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 4가지로 생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자들은 기쁨으로 먹고 마십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7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성경 전도서 2장 24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십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전도서 2장 24절과 오늘 본문 9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 ‘잔치(feast)’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잔치’ 또는 ‘연회’를 생각할 때, 저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전 들은 팀 켈러(Tim Keller) 목사님의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한 강의를 생각났습니다. 그 강의에서 도전 받은 것은 ‘The Kingdom of God is feast’(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 삶이 잔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잔치처럼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 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 들어가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자들은 기쁨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면서 매일 매일 삶이 잔치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자들은 정결한 삶과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8절을 보십시오: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여기서 “네 의복을 항상 희게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항상 정결해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항상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에리드 매처). 지금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은 정결한 삶이요, 또한 기쁨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결함과 기쁨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결한 삶을 살지 않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죄란 우리에게 기쁨을 절대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정결한 삶을 추구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정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는 온갖 범죄를 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죄를 십자가에 앞에 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기쁨,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자들은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9절을 보십시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찌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솔로몬 왕은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고하여 얻은 분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잔치를 즐거워하고(7절), 정결한 삶을 즐거워하며(8절),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즐거워해야 합니다(9절). 솔로몬 왕이 잠언에서 하는 말을 들어 보십시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잠18:22),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19:14).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내의 복을 겸손히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들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그의 아내를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배우자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과연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주 월요일 YMCA에 운동하러 갔다가 Locker room에서 한 80살 되신 미국 할아버지가 또 다른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얼마 안 있으면 결혼 60주년이 가까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듣던 다른 할아버지가 “요즘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다들 그러는데 어떻게 60년을 그렇게 부인하고 함께 살 수 있었느냐”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그 80살 되신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내 아내가 참 나를 잘 참아주었소”라고 말씀하시더군요. ㅎㅎㅎ 그런 후 그 할아버지는 좀 있다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는 비슷한 점들이 많고 또한 서로를 신뢰한다오...” 저는 이 80살 되신 미국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흐뭇했습니다. 결혼 생활 약 60년 동안 함께 아내와 살 수 있었던 것을 아내가 자기를 잘 참아줬다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꼈습니다. 요즘 그 다른 할아버지 말대로 얼마나 많이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합니까? 그러한 사회 흐름 속에서도 아내와 함께 60년을 살면서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엿볼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 잠언 5장 18-1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눈을 딴 여자에게 돌려서 그 여자를 연모하게 되어 결국은 바람을 피우고 간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자들은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0절을 보십시오: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찌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위어스비 목사님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일을 저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책무(a stewardship)로 보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신적 소명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0절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데로 열심히 일을 하라’, ‘너희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왜 솔로몬 왕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찬송가330장<구370장>).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일 자체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교회 에서 일을 할 때 계속 불평, 불만을 하면서 일을 한다면 그 얼마나 곤욕입니까? 특히 만일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무라는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은 열심히 하기란 힘들고, 더욱더 일 자체를 즐긴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청지기 의식이 뚜렷하고, 소명의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7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결한 삶과 기쁨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8절).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9절).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를 수요기도회 때 찬양한 후)

시기와 기회

[전도서 9장 11-12절 말씀 묵상]

저는 지난 주 인터넷 CNN 뉴스에 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좀 읽어 보았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하버드 대학 캠퍼스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미첼 하이즈만이란 한 35살난 사람이 유대인들의 속죄의 날(Yom Kippur)인 9월 18일 토요일 한 오전 11시 쯤 자살을 했는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1,905페이지나 되는 유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유서를 가리켜 ‘자살 노트(Suicide Note)’라고 합니다. 그 자살 노트에는 소크라테스, 뉴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또한 자유, 허무주의, 하나님, 유대교, 유대인 기호, 유대인의 IQ는 앵글로 색슨의 역사에 관한 지혜에 관한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저는 이 내용들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가 인생에 대해서 한 말 중 공감 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름 아닌 “Life is meaningless”(인생은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읽으면서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은 바로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미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자기 자살 노트에 쓴 이 사람의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삶의 헛됨은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는 분명히 자살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 살려서 주님을 위해 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죽었다면 결코 헛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텐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히 보시는 성도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타이밍(timing)’에 대해서 좀 생각하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요즘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려보려고 노력하다가 언제 그 노력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장인 어르신 때문입니다. 그분의 주치 의사는 이젠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포기하고 마지막 떠나시는 그 날까지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하는데 좋다는 권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장모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사 선생님이 포기하고 마지막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첫째 아기가 병들었을 때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와 원수로 크게 훼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삼하12:14)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였습니다(16절). 왜 그가 그렇게 간구했습니까? 그 이유를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나와.**”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1절 하반 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우연’이란 한국어 번역은 오역입니다(박윤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서 그저 우연히 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Good luck”이란 말, 즉 “행운을 빕니다”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합동 측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1절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개역개정판은 ‘우연’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기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기회(chance)’란 무엇입니까? 인터넷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면, 기회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한자사전을 보면 ‘기회’란 ‘기대하던 그 때, 일을 하기에 적당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네이버 사전).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착하여 일을 하므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이 아닙니까? 그러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되 앞으로 다가 올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성공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한 다섯 부류의 준비된 사람들, 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삶의 기회를 준비하는 자들로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잘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첫째는, ‘빠른 경주자들’입니다. 빠른 경주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경주에서 일등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빠른 경주자들은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려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주라는 기회가 주어 질 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골라인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골라인에 들어가서 1등을 하기 위해입니다.

(2) 둘째는, ‘용사들’입니다. 용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군인들은 진정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3) 셋째는, “지혜자들”입니다. 지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 잘 사용하여서 살림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쓸모없는 지식으로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는 자가 되고 싶은 지혜자는 없을 것입니다.

(4) 넷째는, “명철한자들”입니다. 명철한 자들 또한 자기의 똑똑한 두뇌를 사용하여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자 힘쓸 것입니다.

(5) 다섯째는, “지식인들”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배워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은총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섯 부류의 준비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기대하며 기회를 포착하여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무리 잘 달리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도 경주에 일등 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는 등등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발생하는 사건들로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 필요한 조건을 구비했다 할지라도 자력으로 성공을 가져올 듯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박윤선).

우리 인간의 본능은 자기의 자력으로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길 원하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8장 17-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사람들이 잘 나서(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많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성취해 주셔서 재물을 많이 얻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약4:16)**. 왜 우리는 이러한 허탄한 자랑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2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울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여 기회를 포착하여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 밖에 일도 일어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 밖에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홀연히 임하는 재앙의 날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듯이, 그리고 새가 울무에 걸림같이 우리 인생에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음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전3:1-8). 또한 우리는 무론 무슨 일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8:6) 특히 우리가 홀연히 임하는 재앙의 날에도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바로 이 모든 것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3:11)(위어스비).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기대한대로 되어가지 않고 오히려 재앙처럼 여겨질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둔 것을 내려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홀연히 임한 재앙의 너무나 어둡고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 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란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요2:4, 7:6, 8, 30, 8:20, 12:4, 23, 27, 13:1, 17:1).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때”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 때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때란 하나님의 아들로써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때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 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시기와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마24:36). 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완성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 때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 아기 주영이의 죽음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하시 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가난한 지혜자”

[전도서 9장 13-18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부(Wealth)’와 ‘지혜(Wisdom)’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것’과 ‘가난하지만 지혜를 얻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보았을 때,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나발이란 사람은 심히 부하였습시다. 그는 양이 삼천이요 염소가 일천이나 가지고 있던 부자였습니다(2절). 그러나 그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했을 뿐만 아니라(3절) 불량한 사람이요(17절) 또한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25절). 그의 미련함은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조차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 (25절). 그와 대조적으로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란 여인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3절). 그녀는 자기의 미련한 남편 나발이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으므로 말미암아(21절) 다윗이 나발과 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17절) 급히 떡과 포도주, 양과 곡식 등을 나귀들에게 싣고(18절) 다윗에게로 나아가(20절) 다윗으로 하여금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막았습니다(33절). 그리했을 때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 (32-33절).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전도서 4장 13-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은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과 부하지만 늙고 둔한 왕에 대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가난함과 부함, 젊고 늙음, 소년이든 왕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두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부’가 아니라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기보다 가난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이란 대접을 받기보다 배척을 당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부보다 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여기서 솔로몬 왕이 보고 크게 여긴 지혜의 한 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그 작은 성읍을 에워싸고(포위하고) 큰 흥벽(큰 포위작전 일들)을 쌓고 치고자 할 때(14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임금이요 큰 흥벽을 쌓고 작은 성읍을 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9:11-12).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큰 임금이 작은 성읍을 함락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지만, 지금 솔로몬 왕은 작은 성읍에 살고 있는 인구가 많지 않은 무리들이 이길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지혜자’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5절을 보십시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 솔로몬 왕은 아무리 부하고 큰 왕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지혜자에게는 질 수 있다는 것을 해 아래서 보았습니다. 그 좋은 예가 사무엘하 20장 14-22절에 나옵니다. 옛날 이스라엘 아벨이단 도시가 요압의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였을 때, 그 성읍의 한 지혜로운 여자가 요압에게 지혜롭게 말하며 그 도시를 구원한 일입니다. 결국 지혜자 솔로몬 왕이 이 지혜의 한 예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6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 그것은 바로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 솔로몬 왕은 ‘지혜가 병기보다 낫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에 있어서 힘이나 병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이 있고 무기가 좋다고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만큼 지혜가 힘과 무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잠4:7)**. 그리고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전9:17)**. 미련한 자들의 지도자의 외치는 소리보다 지혜로운 자의 조용한 말들을 더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혜가 힘보다 그리고 병기(무기)보다 낫지만 솔로몬 왕은 해 아래서 이해(예상)할 수 없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 이해(예상)할 수 없는 일은 2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6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솔로몬 왕이 해 아래서 보게 된 것, 그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은 가난한 지혜자가 이렇게 한 성읍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16절)(위어스비).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가난한 지혜자는 한 성읍을 건져내는 위대한 일을 하고 나서도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 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척을 당하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잠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14:20)**,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19:4)**. 왜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을 건져내준 가난한 지혜자를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합니까? 그 이유는 그 지혜자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지혜자가 부자였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려고 했을 것이며, 그 지혜자를 칭찬하며 그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 지혜자를 멸시하며 배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가 힘과 무기보다 낫지만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두 번째 일은 오늘 본문 18절 후반 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배케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서 10장 1절을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롭므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마치 작은 실수가 지혜의 향기보다 미련한 자의 냄새를 더 나게 하는 것처럼 지혜는 쉽게 전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10:1)(칼슨). 달리 말하면, 지혜의 큰 가치가 작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월볼드). 이 말씀의 좋은 예가 성경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그 좋은 예란 첫 인간 아담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을 볼 때 한 죄인이 많은 선을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롬5:12). 또한 여호수아 시대 때 아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 전쟁에서 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수7). 다윗 왕조차도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임했는데(삼하24)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에 내전을 일으켰습니다(삼하15ff)(위어스비).

이렇게 한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 즉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아담과 같은 경우는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때에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작은 성읍을 큰 임금으로부터 건져낸 것처럼 참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죽음과 사단과 그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치 사람들이 그 가난한 지혜자를 잊어버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참 지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잠8)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사람들이 그 가난한 자의 지혜를 멸시하므로 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멸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죄를 구속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입니다(요 1:12).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8:33-36). 우리는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약1:5)께 기도드린 후]

나 자신이 미련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마십시오.

[전도서 10장 1-4절 말씀 묵상]

여러분 생각엔 사람의 미련함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사람의 미련함의 극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생각 때 성경 잠언 26장 1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둬 행하느니라.” 우리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을 보지 못했을 수 있지만 개가 똥을 먹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미련한 개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이 미련한 것을 거둬 행하는 것,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겠습니까? 그 예로 구약 출애굽기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원망하는 죄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거둬 범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미련함의 극치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진정 미련함의 극치는 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 저는 미련함의 극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마음은 부패합니다. 그리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은 가증합니다(1절).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미련하여 선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는 참으로 이러한 미련함의 극치가 가득 찬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절대 진리를 믿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서 부패와 가증한 행실을 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혜를 떠나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므로 자신의 미련함을 입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는 우매자는 자기 자신의 우매한 것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의 미련한 것을 입증(demonstrate)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제가 제 자신의 미련함을 입증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로, 제가 제 자신의 미련함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하면 잠언 기자가 잠언에서 종종 말한 것처럼 저는 제 입술로 제 자신이 미련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10장 19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하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질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자신의 미련함을 들어냅니다. 또 하나 예는 바로 잠언 14장 29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에 제 자신을 비춰보면 노하기를 더디 해야 하는데, 어쩔 때는 제 마음이 조급하여 제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으므로 제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12장 23절에 대하여 할 말이 없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1-4절 말씀 중심으로 “나 자신이 미련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아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겸손히 잘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미련함을 입증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2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미련한 점들을 들어내(입증해)서는 아니 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한 2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우리는 적은 우매조차도 들어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1절을 보십시오: “죽은 파리가 향기롭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작은 미련한 행동이 지혜의 향기보다 미련한 자의 냄새를 더 나게 합니다(9:18, 10:1). 좋은 예로 첫 인간 아담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사망이 온 것입니다. 악은 적은 것이라고 인류에게 큰 해를 끼칩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우리는 적은 악이나 적은 미련함이라도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결코 우리는 적은 미련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2)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에게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4절을 보십시오: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솔로몬 왕은 좋지 않은 주권자가 우리에게 분을 내어도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옳지 않은

주권자에게서 불의한 취급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권자를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박윤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4절).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공순’이란 원어 히브리어의 의미는 질병이나 연약함이 없는 건강이란 뜻과 ‘회복’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옳지 않은 주권자가 우리에게 분노하며 우리를 불의하게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하여 대항하지 않고 잘 참으면 앞으로 범할 만한 많은 죄악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우리는 영·육간에 건강하여 직장 상관에게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직장 상관이 옳지 못하고, 우리에게 분노하며 불의하게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항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크고 많은 죄를 범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미련함을 들어내지(입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2절을 보십시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 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야 하며,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 편에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지혜자의 마음이 되어야 하며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어스비 목사님에 의하면 옛 고대 세계 때는 오른손은 힘과 존경(명예)을 가리켰고, 왼손은 연약함과 거절로 여겼다고 합니다(마25:33, 41). 즉,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다는 말씀은 지혜자는 자기의 마음을 언제든지 힘 있게 파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마음이 왼편에 있다는 말씀은 그가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데 있어서 왼손과 같이 무력하다는 뜻입니다(박윤선). 한 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지혜자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을 힘 있게 파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4:23). 과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힘 있게 지킬 수(파수할 수) 있습니까?

(1)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을 원수들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파수꾼이 졸면 그 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락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우리가 우리 마음을 힘있게 파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던지 해서 성에 있는 사람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영혼의 파수꾼들로서 우리 마음에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고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42:5,11; 43:5)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이 불안하며 낙망할 때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힘 있게 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미련함을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련함에서 떨어져 있습니다(위어스비).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심히 작은 미련함이라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작은 미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주권자가 옳지 못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며 불의하게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권자를 대항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힘 있게 파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미련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자신이 지혜롭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파수하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중에

침착하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전도서 10장4절).

저는 어제 야후 뉴스에 '약식기소 목사에 법정 최고형'이란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 전직 목사인 정모씨(63세)란 분이 자신을 면직한 교회에 찾아가 빈 음료수 병으로 의자를 두드리고 마이크를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방해한 이유는 교단의 승인 없이 장로님을 제명한 일로 2001년 9월 면직 처분을 당하자 교단을 탈퇴, 다른 교회를 세웠으나 교단 측에서 이 교회에 다른 목사님을 파견하면서 교회의 소유권 가지고 계속 갈등을 빚어 오는 가운데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정씨는 목사의 신분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세속적인 이익만 추구한데다 특히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목사가 오히려 범행을 주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하면서 3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전도사 1명과 교인 8명도 1-2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고 함). 참 어이가 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회에 속해 있는 한 좀 큰 교회가 두 파로 갈라져서 싸우다 법정 싸움까지 가고 있습니다. 노회가 관련해서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는 듯 하지만, 노회의 행동에 불만이 있는 그 교회 한 그룹이 노회를 탈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세한는 모르지만 내분으로 말미암아 분노 가운데 서로 싸우므로 저번 주에는 경찰까지 동원된 사실이 한국 신문에까지 난 것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싸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노라는 것 때문에 싸움에 불이 더 붙게 되어 법정까지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노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분노하는 주권자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서 "주권자"란 왕도 될 수 있고 넓게 적용한다면 분노하는 나의 지도자, 상관, 목사, 남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전도서 10장 3절 말씀을 보면 분노하는 "주권자"는 지혜가 부족하여(결핍하여) 자기의 우매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므로 그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하여 마음이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지적인 면보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감정을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지 못하기에 감정 절제력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로 그는 쉽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성경 잠언 25장 28절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음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보면 "a man who lacks self-control"라고 써어 있습니다. 성경은 절제력이 없는 자, 지혜가 결핍된 자, 감정을 조절 못하여 분노를 쉽게 내는 자는 자기의 미련함을 들어내는 우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분노하는 '주권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악한 '주권자'일지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한 취급을 당할지라도 그 '주권자'를 대항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분노를 내는 상관에게 우리도 분노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때에 저는 아내가 화를 낼 때에 덩달아 화를 낸 적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저 자신의 미련함을 들어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 전도서 8장 3절을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겁거리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었습니다. 악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는 주권자(목사, 남편, 상관, 대통령 등등)에게 우리는 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분노하는 "주권자" 앞에서 짐착해야 한다는 귀한 교훈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공순"(4절)이라고 쓰여 있는데, 영어로는 "calmness"(NIV) 혹은 "composure"(NASB)라고 쓰여 있습니다. 짐착한 자의 영혼은 잔잔한 물결과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온유한 심령을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자의 심령입니다. 지혜자는 자기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압니다. 그는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요 또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잠16:32). 더 나아가서, 그는 '주권자'의 분노를 쉬게 하는 자입니다. 짐착한 자, 지혜로운 자는 화가 난 사람의 분노를 쉬게 합니다(잠16:14).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대답을 잠언 25장 15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인내와 부드러운 혀가 화난 자의 분노를 쉬게 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과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정이 폭발하려고 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에서의 현상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분노의 표출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노하는 자는 지혜가 부족하여 우매함을 들어내는 자이기에 우리는 그를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침착하여 그의 분노를 쉬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자신의 분노를 먼저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노회와 법정 싸움까지 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승리장로교회 평온한 목양실에서)

한 가지 폐단

[전도서 10장 5-7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요즘 TV를 보실 때 무슨 광고를 자주 보십니까? 저는 이번 11월 2일에 있는 미국 중간선거에 관한 광고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고 광고들 중에 특히 한 3가지에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캘리포니아 상원 선거전과 주지사 선거전,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Prop 19(제안 19)입니다. 제가 Prop 19에 관심을 갖고 광고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마약으로 여기는 마리화나(대마초)에 관련된 법률개정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선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여 취미로 어느 정도만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지금 합법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 그리고 합법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한 44%인가 었습니다. 이 Prop 19 외에 아무래도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니까, 상원이나 주지사 선거에 대한 광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들의 TV광고를 보면 이것은 거의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합니다. 저처럼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시민으로서 이 캘리포니아를 앞으로 이끌 지도자들이 누구인지는 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서 나눕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 나라나 한 주나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맡는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떠한 지도자를 교회에서 세워야 합니까? 저희 교회가 추구하며 세우길 기원하는 지도자는 나 중심이나 사람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된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지도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순종하되 겸손히 그리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저희 교회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전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 중 하나는 인격과 삶의 변화의 결핍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요즘 교회에서는 인격과 삶의 변화가 결핍된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 자들로 너무 함부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즘 교회가 자격 미달이 되는 사람들을 함부로 장로, 안수 집사, 권사에 세우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깨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죄악 된 일이 우리 장로교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장로교회의 핵심 지도부인 당회 원들(목사와 장로들)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우리 목회자들이 지혜롭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5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한 가지

폐단'하면 이미 우리는 전도서 6장 1절에서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본 한 가지 폐단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그 한 가지 폐단이란 바로 사람에게 중한 것, 즉 사람에게 무거운 것으로서 하나님께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받아 마음에 소원이 부족함이 없지만,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가 본 이 한 가지 폐단 이전에 전도서 5장 13-20절에서 '큰 폐단'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폐단'은 다름 아닌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13절). 더 나아가서, 그가 본 것은 그 소유주가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재물을 지켰는데 결국 재난을 만나서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들에게 아무 것도 물려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폐단입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뭐 때문에 그리 자기 자신을 해할 정도로 모든 재물을 지킵니까? 결국 재난 만나서 그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큰 폐단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본 한 가지 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이었습니다(10:5). 여기서 우리가 주권자의 '허물'을 논할 때, 우리는 이미 묵상한 전도서 10장 4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도서 10장 4절을 보십시오: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솔로몬 왕은 옳지 않은 주권자가 불의하게 우리를 취급하므로 우리의 분을 일으켜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그에게 대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주권자에게 대항하므로 더 큰 허물, 즉 더 큰 죄를 하나님께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5절에서 솔로몬 왕은 또 다시 '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주권자의 허물은 무엇입니까? 그 허물은 다름 아닌, 주권자의 미련함에서 나오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의 한 예를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주권자는 미련한 자들을 높은 위치 혹은 높은 직책에 두고 '부자'는 낮은 위치 혹은 낮은 직책에 둔다는 뜻입니다(위어스비). 여기서 '부자'를 낮은 위치·직책에 둔다고 말하면, 우리는 지금 현실은 부자가 오히려 교회에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부자'란 지혜로운 자를 가리킵니다(월볼드). 성경 잠언 14장 24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저는 이 주권자의 미련한 결단을 생각할 때, 한 나라에 적용한다면 옳지 않은 대통령이 자신의 미련함 속에서 미련한 자를 나라에 높은 지위에 세우고 지혜로운 자를 낮은 지위에 세운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지 않은 사장은 종업원들을 불의하게 취급하여 그들을 분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들을 높은 위치에 세우고 지혜로운 자들을 낮은 위치에 세우는 이유는 그 사장의 미련함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교회 직분을 함부로 세우고 있는 교회 현실을 볼 때, 우리 목회자들이 좀 더 넓게 우리 장로교에 적용한다면, 우리 당회가 지혜롭지 못하여(미련하여)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오히려 이런 저런 합리화시키는 이유로 자격이 너무 미달한 사람들을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겨야 할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나 장로가 볼 때, 참으로 회중에서 추천할 만한 사람이요 또한 교회에 존중받는 사람에게 중책을 맡겨야 합니다(참고: 롬16:1-6).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교회가 함부로 ‘장로직’, ‘안수 집사직’, ‘권사직’을 주므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미련함 때문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주권자의 변덕스러움’ 때문입니다(월볼드). 교회를 예로 든다면 저 같은 목회자가 변덕스러워서 자격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교회의 중책을 맡기지 않고,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중책을 맡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권자의 미련함이란 그가 너무나 고분 고분하는 것(잘 휘어지는 것) 때문입니다(위어스비). 그리고 주권자가 너무나 고분고분하면 그는 인격과 용기가 부족하여 직책을 맡김에 있어서 정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높은 직책을 그리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낮은 직책을. 교회를 예로 든다면 목사와 장로인 당회가 고분고분하여 용기 있게 옳은 일을 추진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인 주권자가 그의 미련함 가운데서(그것이 변덕스러워서이든 고분고분해서이든) 지혜로운 자를 크게 높은 지위를 주지 않고,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그 높은 지위를 줄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7절을 보십시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한 나라의 주권자인 대통령이 그의 미련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그 나라에 질서가 깨지고 평화가 없으며, 그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이 말을 타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마땅히 말을 타고 존경을 받아야 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면서 그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원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가장이 남편인데 아내가 자기가 가장인 듯 행세하며, 그 가정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땅히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역할을 바꾸어 자기가 가장인 듯 착각하여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는 사장님과 종업원이 있는데, 종업원이 사장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존경을 다 받고 사장님이 종업원의 자리에 일의 한다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는데, 자기 위치와 역할을 모르고 선(boundary)을 넘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는 질서가 깨져서 평화가 없으며, 견고히 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주권자로 말미암은 허물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허물을 교회의 목사님에게서 그리고 회사에 사장님에게서 또한 가정에 가장인 남편(혹은 아버지)에게서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에 이러한 미련한 대통령을 국민들이 세우는데 허락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미련한 주권자의 허물을 통하여 한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에 미련한 대통령을 통하여, 한 교회에 미련한 목사를 통하여 그리고 한 가정에 미련한 가장을 통하여 그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그 미련한 대통령이나 목사나 가장이 자격 없는 자들을 주장하는 높은 지위에 앉게 하므로 말미암아, 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질서와 화평을 깨는 것을 허락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한 가정을, 한 교회를 그리고 한 나라를 치리하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미련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므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생각하며 또한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지혜로운 자를 중요한 직책을 맡겨야지 미련한 자에게 함부로 중요한 직책을 맡겨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자를 존경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나라와 교회와 직장이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과 교회,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지혜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 지혜롭고 가능성 있는 그리스도 중심된 일꾼들을 알아보길 기원하면서)

성공하기에 유익한 지혜

[전도서 10장 8-11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은 자신에게 던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성경적인 성공 관 보다 세상적인 성공 관에 눈이 멀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토니 넬슨이 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하라”는 책 소개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우리 사회는 성공에 사로잡혀 있다. 누구나 성공을 말하고 성공을 열망한다. 하지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쓴맛을 보며 자책감과 후회 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공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다. 참된 성공은 부가 아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다. 성공이란 우리가 성취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다. 성공이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인터넷).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성공의 본질을 알고 계십니까? 토니 넬슨은 그의 책에서 돈의 관점에서 성공을 생각하고 위신과 명예와 형통이 곧 성공이라는 세상적인 성공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의 성경적인 성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적인 성공의 기술 12가지를 그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2가지 성공의 기술 중 첫 번째 기술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적인 성공의 기술은 먼저 우리의 시각을 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성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에 필사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기초다. 하나님의 인격과 지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단 한 걸음도 자신을 믿고 움직이지 않는다” (인터넷).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성경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적인 성공 관에는 고난과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경적인 성공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이요 그 형통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 창세기 39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 (2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1절), “...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23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형통)의 비결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는 성공(형통)의 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시118:25).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10절 하반 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성공하기에 유익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일상 삶 속에 적용하는 지혜로서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8-11절에서 솔로몬 왕은 한 2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공하기에 유익한 지혜는 자기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8-9절을 보십시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협을 당하리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위협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저기 우리로 하여금 위협에 빠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 요소들 중 하나는 바로 우리를 해하려고 꾀하는 자들이 함정을 파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울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시140:5). 맞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해하려고 울무와 줄, 그리고 그물과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이러한 함정들 중에 저는 특히 잠언 23장 27절의 말씀이 위협적이라 생각합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 음녀의 함정이란 위협적인 이유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함정에 빠져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미련함(어리석음) 때문입니다(잠7:7). 우리는 우리의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음녀가 함정을 파고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우리를 미혹할 때, 마치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이 우리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고 있습니다(21-22절).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8-9절에서 솔로몬 왕이 ‘함정을 판다’, ‘담을 헐다’, ‘돌을 떠낸다’ 그리고 ‘나무를 쪼개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의 파괴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파괴적 행위는 우리를 충분히 위협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 요소가 사방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협에 빠트리려고 함정을 파고, 담을 헐며 돌을 떠내고 또한 나무를 쪼개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41편 9절을 보십시오: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울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건지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의 함정에서 건져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미련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지혜로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13장 14절과 2장 16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13:14).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2:16).

마지막 둘째로, 성공하기에 유익한 지혜는 미리부터 많이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10-11절을 보십시오: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이 부분의 말씀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려면 그 일을 위하여 미리부터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고 준비가 없는 일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박윤선). 여기서 솔로몬 왕은 2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예는 칼이 무디면 칼을 쓸 때 더 힘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칼을 미리 날카롭게 잘 갈아놓아야 힘이 들 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슬로건은 말하기를 “Don't work harder - work smarter!”(위어스비). 즉, ‘일을 어렵게 하기보다 일을 지혜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에 일을 좀 무식하게 그리고 미련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좀 영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일을 영리하게 합니다. 마치 잘 갈아 놓은 칼처럼 힘을 그리 많이 들지 않게 지혜로운 자는 모든 일을 힘을 절약하면서 일을 잘합니다.

(2) 두 번째 예는 술객이 뱀을 취급함에 있어서 자기의 방술을 먼저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술객은 방법과 기술을 먼저 잘 익혀 놓은 후, 뱀을 취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제자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증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로 한다면,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앉아서 계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 앉아서 건물을 짓는데 비용을 철저히 계산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되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희생이 요구되는지 저와 여러분은 예상하고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준비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마음으로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좇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남양주라는 곳에는 조그마한 교회당과 유치원 건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웬지 저는 성공하기에 유익한 지혜는 많이 준비한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남양주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를 생각났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준비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님은 제가 한살 때부터 약 11년간 아버님이 시무하시던 교회에서 함께 자라난 친구입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을 보면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준비된 기드온의 300명 군사와 같은 일꾼을 세워주소서’ 등등 여러 기도 제목들도 그의 다 “준비된 …”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안식월 때 그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가서 제 아버님 친구이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와 친구 목사님이 함께 공사 중인 교회당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친구 목사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몇 년을 준비시킨 과정을 좀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시는 종을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더 확고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종은 아름답고 또한 준비된 일꾼들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많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많이 준비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십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젊은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다가 실족한 한 목사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이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해 이번에 안식월 때에 더 한국에 가서 어느 청년을 통해 그 목사님은 ‘성공주의’를 지향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마 그 분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세속적인 성공주의를 지향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직접 청년이나 어른 성도에게도 듣고 ‘과연 그런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그 목사님의 성추행 사건이 터지고 나서 관심을 갖고 인터넷 기사나 사람들의 리플을 읽으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토니 벨슨이 말한 성경적인 성공에 필요한 기술 12개 중 첫 번째 인 “성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다”라는 말이 너무나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8-1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 하기 때문입니다(전10:8-10). 그리고 성공하기에 유익한 지혜는 우리 자신을 위협으로 부터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헤아려는 사탄의 역사와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함정들로 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또한 성공하기에 유익한 지혜는 미리부터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많이 준비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유명해지고, 너무나 교회가 커지고, 너무나 부자가 되는 등등하면 교만해져서 꼭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하나님께 범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함정에 빠져 범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많이 준비되지 못한

점이 바로 성품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도 많고 신학 공부도 많이 했고 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특히 겸손한 성품이 늘 준비되었으면, 꼭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범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솔로몬 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인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는 말을 우리 마음 판에 새겨서 하나님께 성공하기에 유익한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준비되지 못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입술

[전도서 10장 12-15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말의 숨겨진 놀라운 능력”을 아십니까? 한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말을 해야 하는데, 원석을 갈고 다듬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우리말도 갈고 닦고 다듬으면 보석처럼 빛나는 삶의 향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눕니다(인터넷): (1) “입에서 나오는 데로 말하지 말라. 체로 거르듯 곱게 말해도 불량 울은 생기게 마련이다.” (2) “말에도 맛이 있다. 입맛 떨어지는 말을 하지 말고 감칠맛 나는 말을 하라.” (3) “칭찬, 감사, 사랑의 말을 많이 사용하라. 그렇게 하면 사람이 따른다.” (4)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 말에는 지우개가 없으니 조심해서 말하라.” (5) “말이 씨가 된다.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12-15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우매자의 입술, 즉 어리석은 자의 입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입술”(12절), “그 입의 말”(13절), “우매자는 말을 …”(14절). 그는 어리석은 자의 입술에 대하여 4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12절을 보십시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솔로몬 왕은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운 반면에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삼킨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합니다. 어떻게 해롭게 합니까? 어떻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입술로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합니까? 성경 잠언 10장 32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줄을 알기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잠25:11).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입술을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 상대방이 상처를 입던 말던 말을 함부로 말합니다. 그것은 곧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히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신과 사람을 해하는 입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증거 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잠25:18). 잠언 기자는 이웃을 쳐서 거짓증거 하는 입술을 가리켜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이 바로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해하고 상처 입히며, 또한 파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야고보는 혀를 가리켜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약3:5-8). 이렇게 혀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미련한 자의 혀는 참 위험하고 위험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어리석은 자의 혀를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로,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점점 악화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입술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어리석은 자의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리석은 자의 입의 말의 시작이 우매라면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그 끝은 ‘광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입의 말의 끝은 악한 미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어리석은 자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다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미치광이처럼 말을 합니다. 마치 빈 깡통 소리가 처음에는 한두 번 조용히 나다가 나중에 가서는 수십번 나면서 시끄러운 것처럼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소리를 가면 갈수록 더 시끄러워져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성경 잠언 29장 1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노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므로 감정까지 폭발하여 쏟아 부는 말이 들어오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결국 사람의 어리석음이란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창대하여 미친 행동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악화되는 어리석은 자의 입술에서 선한 말이나 지혜로운 말이나 유익한 말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대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 어리석은 자와 대화를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음의 끝이 미친 행동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14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 .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마치 빈 깡통이 소리를 더 내는 것처럼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하므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어리석은 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어리석은 것을 나타냅니다(10:3). 어떻게 그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냅니까? 그는 적은 어리석음을 가볍게 여기므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자기의 주권자에 대항하므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1,4절).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14절 상반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적은 어리석은 말을 가볍게 여기므로 말미암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어리석은 말을 하되 나중에 더 큰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권자에게 말로나마 대항하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혀를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10:19). 우리는 혀를 쓰기를 좋아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 잠언 18장 21절을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오히려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는 자처럼 말을 아껴야 합니다(잠17:27).

마지막 넷째로,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14절 상반 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나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곤하게 할 뿐이랴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무도 장래 일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또는 자기의 미래가 자신의 지배 안에 있는 것처럼 떠든다는 것입니다(위어스비). 그 결과 어리석은 자는 모든 사람을 괴롭히며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15절)(박운선).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솔로몬 왕은 어리석은 자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5절).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성읍에 들어가는 길이 공개되어 있어서 사람마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는 그것도 모르는데(박운선) 어떻게 그는 장차 올 일까지 다 안다고 자기 입술로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는 미래를 아는 것처럼 떠들곤 있지만, 현재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기에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떠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자기 입술로 장차 올 일을 아는 것처럼 입을 열어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잠언 27장 1절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내일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야고보서 4장 14-16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요즘 저는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저는 ‘참 제 자신이 미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 자신의 미련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미련함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전1:25).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 자신을 해하기보다, 다른 이를 위로하고 세우므로 우리 자신도 위로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의 말의 시작도 지혜요, 끝도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의 말은 점점 선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야 합니다(잠19:19).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입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기원합니다.

지혜로운 입술을 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어리석은 자의 입술을 날마다 버리길 기원하면서)

화 받는 나라

[전도서 10장 16-20절 말씀 묵상]

어제 화요일 새벽에 인터넷 뉴스를 통하여 북한의 한국 연평도 포격 도발 뉴스를 접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하여 젊은 해병대 군인 두 명과 민간인 두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반도에서 거듭 일어날까 생각해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북한의 지도자들이 참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고 황장협씨가 주장한 인터넷 기사를 읽어 보았는데, 그 분의 주장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만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어느 면으로 생각해 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지도자에게 달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16-20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화 받는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과연 어떠한 나라가 화 받는 나라입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스리는 자가 없는 나라는 화 받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16절을 보십시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이 말씀은 나라에 다스리는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을지라도 왕은 어려서 다스릴 수가 없고, 그의 신하들(‘대신들’)은 방탕한 고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를 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박윤선). 물론 왕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유다 왕 요시야입니다. 그는 그의 나이 8살 때 왕위에 올라(1절) 8년 만인 그의 나이 16살 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3절). 그러나 오늘 성경 전도서 10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이가 어린 왕은 나이도 어리지만 미성숙하여 자기 하고 싶은 데로 하는 왕을 가리킵니다(위어스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이 어린 왕은 어린아이 같이 솔직하고 순진하기보다(childlike)어린애처럼 유치하게(childish) 자기 멋대로 방종 하는 왕을 가리킵니다(제미이슨). 만일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이렇다면 적어도 그의 신하들은 성숙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려야 하는데 대신들은 아침에도 연락하고 있습니다(16절). 즉, 그들은 일찍부터 연락에 빠진다는 뜻입니다(박윤선).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은 미성숙하고 어린 애처럼 자기 멋대로 방종하고, 그의 신하들은 아침 일찍부터 연락에 빠지니 어찌 그 나라에 있다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지도자인 제가 미성숙하여 자기 멋대로 할지라도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시는 성숙하신 윤장로님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린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는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나이도 어리고 미성숙하여 자기 멋대로 방종할 때에 만일 윤장로님 마저 아침 일찍부터 연락하며 방탕하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성숙해야 하며, 또한 그 남편을 돕는 아내도 지혜로 와서 함께 가정을 잘 다스릴 때 그 가정에는 질서가 있고 화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미성숙하여 자기 멋대로 방종하고 아내조차 아침 일찍부터 세상의 연락(쾌락)을 즐긴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가정에도 다스리는 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화를 받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에는 다스리는 자가 없습니다. 그와 반면에, 솔로몬 왕은 복 받는 나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귀족들의 아들’이란 말은 존귀한 성품의 소유자란 뜻입니다(박윤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귀족들의 아들로서 존귀한 성품을 소유했다면 어찌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 왕은 그러한 왕의 ‘대신들’, 즉 ‘신하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존귀한 성품을 소유한 왕의 신하들은 방탕하지 않고 먹는데 있어서도 절제 있게 행한다는 뜻입니다(박윤선). 이 얼마나 화 받는 나라의 지도자들과 대조적입니까? 이러한 나라는 왕이나 신하들이나 성숙하며, 성품이 존귀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기에 그러한 나라는 참으로 복 받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으로 복 받는 나라는 선한 정치가 시행되는 나라입니다(박윤선).

저는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가정의 지도자가 성품이 존귀하여 함께 섬기는 지도자들도 방탕하지 않고 절제 있는 삶을 산다면 그러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가정과 교회는 참으로 복 받는 교회요 복 받는 가정입니다. 특히 여기서 저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에 있어서 지도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품’과 ‘절제’입니다. 물론 지도자들에게는 실력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품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지도자들을 좇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성취감을 맛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선한 영향력을 받아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절제 또한 우리 지도자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사탄의 많은 유혹들과 영적 싸움하는 지도자들로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절제가 없다면 지도자들은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범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지도자이든 교회의 지도자이든 가정에 지도자이든 필요한 것은 존귀한 성품과 방탕과 연락

같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절제(력)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을 좇은 나라의 시민들이나 교회의 성도들이나 가정에 자녀들은 참으로 복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이 그러한 복 받는 나라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복 받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가정이 하나님께 복 받는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게으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화 받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18-19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플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이 말씀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으른 통치자들의 방탕한 생활을 진술합니다. 그들은 희락을 위하여 연락을 일삼고 기쁨을 위하여 포도주를 계속 마십니다. 그들에게는 민중을 위하여 봉사하는 책임감과 정의감이 전혀 없습니다(박윤선).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책임감과 정의감이 없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책임을 망각하고 그저 흥청망청 술만 마시면서 연락을 즐기고 있다면, 그 나라는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가끔 한국의 옛날 역사를 다루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왕의 신하들이 술과 여자들을 즐기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여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감당하려는 정직한 신하들을 음해하여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 중 ‘대물’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래도 대통령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반면에 야당 대표는 부패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라마들은 한국이란 나라의 역사와 현실을 좀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적인 역사와 현실의 모습은 바로 부정부패라는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서 시민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에 빠져 자기 배만 채우려고 자기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정부패를 범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드라마 뿐만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도 접합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지도자들 중 자기의 오피스를 사용(use)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저 그 오피스를 유지(hold)하는 사람들이 있다(딤후3:10).’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즐기면서 자기의 책임은 망각한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을 특권으로 알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책임을 감당한다’(위어스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오피스를 사용하는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그저 그 오피스를 유지하는 지도자가 있다는 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참 큰 문제는 그 오피스를 남용하여 시민을 섬기기보다, 자기 배만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직분은 있는데 그 직분을 잘 사용하여 교회를 섬기기보다 그저 그 직분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성숙하여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거부하는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자기의 직분을 남용하여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를 즐기는 지도자들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병들고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그의 책 '게으름'에서 게으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게으름의 정체는 실증, 게으름의 뿌리는 자기 사랑, 게으름의 발전은 정욕, 게으름의 선택은 부주의, 게으름의 결과는 고통...' (인터넷).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게으름 때 그들의 게으름이 발전하여 정욕대로 자기 사랑을 표출하므로 말미암아, 결국 방탕한 생활을 하고, 부정부패 가운데 그 나라를 화 받는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찰스 R. 스윈들(Charles Swindoll)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마음에 찾아와 삶에 대한 건전한 의욕과 열정을 앗아가곤 하는 전문적인 도둑(professional thief)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도둑의 이름은 바로 '내일로 미루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즉, 일 자체를 귀찮게 여기면서 미루는 게으른 태도가 삶에 꼭 필요한 열정과 도전 정신을 식게 만들어, 결국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앗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삶의 가치는 바로 '성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맞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필요한 덕목은 바로 성실입니다. 게으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지도자는 결코 복 받는 나라를 세우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신실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게으른 지도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고 성실한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 받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선 우리 지도자들은 성실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화 받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19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이 말씀은 화 받는 나라의 지도자들은 게으르고 방탕하여 돈이면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면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지도자들로서 하나님 보다 돈을 의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아래 게으른 생활과 방탕한 생활을 즐기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책임하면서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여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의 세금만 계속 더 올리므로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맥아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도자들은 돈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이 힘이다’(Money is power)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고 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며, 한 가정을 이끌려고 한다면 그러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은 꼭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 돈으로 인하여 그 나라와 교회와 가정은 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 지도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좇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좇아야 할 지도자들은 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풍부한데도 거해보고 궁핍한데도 거해보면서 자족의 비결을 배운 지도자들을 좇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 한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께 복 받을 것입니다.

저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습니다. 가정과 회사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할 나라(가정, 교회)의 지도자들이 게으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그 나라(가정, 교회)는 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전도서 10장 20절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우리의 지도자들이 게으르고 방탕하며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아래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부족한(또는 부적절한) 지도자들을 저주하며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몰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저주하는 것이나 비판하는 소리가 그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절제하고 우리나라의 부적절한 지도자들을 저주하고 비판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가정,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절제, 성실과 예수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나라(가정,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 받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로 세워 주시길 하나님께 기원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방탕과 돈 사랑을 경계하면서)

그 날을 생각하십시오!

[전도서 11장 1-8절 말씀 묵상]

저는 금년 한 해를 뒤돌아 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교회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김 집사님에게 삶의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장인 어르신께 삶의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을 생각할 때 부족하나마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순간은 김 집사님이 중환자실에 누워계실 때, 그 분을 방문하고 문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부인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할 뿐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 집사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제 장인 어르신도 담당의사에게 사망선고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사,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시는 것을 볼 때 참 놀랍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이나 제 장인 어르신이나 각자 담당의사에게 사망선고를 받으셨을 때를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이 만일 그 분들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일 의사가 저에게 ‘남은 삶이 6개월 미만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저는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갈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했을 때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가지는, 오래 전 대학교 때 친구를 통해 들은 예화입니다. 그 예화는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수도원장이 와서 ‘너희들 만일 내일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다들 ‘전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경을 더 열심히 읽겠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등등 이러한 답변들을 했는데 한 수도사는 ‘내일도 축구를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내일 죽는다 하여도 지금까지 해오던 것 계속 신실하게 감당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난 것이 바로 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선배이신 고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섬기시던 교회에서 설교하시다가 토하시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셨다는 소식도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자신의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신 이 목사님을 생각할 때, 저 또한 죽는 그 날까지 제게 맡겨주신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전도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찌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 찌로다 장래 일은 다 헛되도다.” 지금 솔로몬 왕은 저와 여러분에게 “캄캄한 날이 많으리라 그 날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그날’, 곧 ‘깜깜한 날’은 무슨 날을 가리킵니까? 그 날은 바로 죽을 날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지금 그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을 날이 올 것을 내다보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깜깜한 날, 곧 죽을 날을 생각하며(내다보고)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죽을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믿음으로 신중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2, 5, 6절 석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2절), “네가 알지 못함 같이” (5절), “알지 못함이니라” (6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미래입니다. 그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곤고한 날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며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미래를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7:14).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오히려 더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계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위어스비). 결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아무 계획 없이 무턱대고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번 살도록 해 주신 삶을 우리는 신중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죽을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 사랑은 특히 구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을 날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이웃을 힘써 구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구제해야 합니까?

(1) 우리는 인색함이 없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웃을 구제하되 인색함이 없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은 그 날, 즉 깜깜한 날인 죽을 날을 내다보면서

살아가되 인색함이 없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구제의 삶을 살되 아무 보상을 바라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구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박윤선). 왜 우리가 구제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심을 믿고 바라기 때문입니다(1절하).

(2)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2절을 보십시오: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주라’는 말은 할 수 있는데 까지 많은 방면에 자비의 일을 실시하라는 뜻입니다. 혹은 될 수 있는 데로 많은 사람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박윤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2절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바 주어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이웃을 구제하면서 많은 자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언제 우리가 어떠한 재앙을 만나 더 이상 다른 이들을 구제할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듯이 폭풍우로 나무가 넘어지면 그 자리에 그냥 있듯이 이 땅에 재앙이 임하면 사람은 별 수 없이 자기 당할 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3절)(박윤선). 과연 우리는 언제 이 땅에 또한 우리에게 재앙이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재앙을 걱정하면서 남을 섬기며 구제하는 일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11:4).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올 재앙을 걱정하면서 다른 이들을 구제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저런 조건을 따지다보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구제할 수 없기에 믿음으로 다른 이들을 구제하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장차 일어나 일을 모르는바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어 구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언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곤고한 날이 이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전7:14).

셋째로, 죽을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5-6절을 보십시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밴 자의 태에서 빠져 어떻게 자라든지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들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뼈가 어떻게 형성되고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 시절(‘아침’)에 의를 위하여 물질로 하나님 봉사의 일을 힘쓰고 노년 시절(‘저녁’)에도 그리해야 됩니다(박운선). 우리는 마치 농부처럼 청년 때나 노년 때나 평생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되 우리는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시126:6). 그리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즉, 우리는 청년 때나 노년 때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에, 손을 놓지 말고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주님의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저희 교회 히스패닉 사역 담당 목사님이신 고메즈 목사님을 통하여 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던 한 히스패닉 형제가 멕시코로 이사 간 후 마켓을 보다가 강도를 만나 등에 총을 맞아 하바신 마비가 되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부인은 참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섬겼던 자매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나이가 한 34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은 후 한 두어 시간 있다가 또 다른 소식을 한국에 있는 지체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이번 안식일 때도 한국 나갔을 때, 저희 가정을 식사 대접해 주시고, 집으로도 초청해 주셔서 함께 대화를 나눴던 권사님 한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권사님에 대한 제 기억은 그 권사님이 교회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목에 뭐가 걸리셨는지 크게 소리를 내시면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그 권사님의 등을 두들겨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분도 어젯밤인지, 오늘 새벽인지 잠드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죽을 일이 쌓인 세상이 아닐 수 없음을 또 다시 느끼는 오후였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그 날, 캄캄한 날, 즉 우리의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중하게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처럼 이웃을 사랑하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면서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로 아름다운 삶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쁨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죽을 날을 내다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고 원혜영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청년이여”

[전도서 11장 9-10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요즘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근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전도서 11장 1-8절 말씀 중심으로 ‘그 날을 생각하십시오’란 제목 아래 우리의 죽을 날을 생각(내다)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3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1)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남은 삶을 신중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2)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죽을 날을 내다보면서 언제 어떠한 재앙이 우리 미래의 삶에 닥칠지 모르기에 주어진 상황에서 이웃 사랑, 특히 구제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 그리고 (3)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힘써 행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죽을 날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인 것을 배웠습니다(7절).

오늘은 저는 성경 전도서 11장 9-10절 중심으로 ‘청년이여’란 제목 아래에서 솔로몬 왕이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이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만, 그 메시지의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기에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청년들은 그들의 젊음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9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 솔로몬 왕은 전도서 11장 7절과 8절에서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7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 지로다”(8절)라고 말한 후 이렇게 오늘 본문 9절에 와서 특히 청년들에게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나이가 어리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그 날”(8절), 곧 우리의 죽을 날을 내다(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제(이웃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힘써 행하므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특히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청년들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하면서도 9절 하반 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읽을 때마다 좀

혼동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 왕은 청년들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9절 후반절가서 “그러나”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니까, 청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솔로몬 왕은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에 원하는 데로 그리고 눈으로 보는 데로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했다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기 이른바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고 한 것은, 하나의 풍자적 발언입니다. 곧, 그렇게 해보려면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위험이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런데 다른 학자들의 주석을 보면 박윤선 박사님과 좀 달리 해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한 예로 어느 한 학자는 청년들이 마음에 원하는 데로 젊음을 즐기고 기뻐하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청년들의 욕구가 조절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월볼드). 어느 학자의 해석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웬지 오늘 본문 문맥인 전도서 11장 7-8절에 비춰서 생각할 때 지금 솔로몬 왕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조절된 욕구로 젊음을 즐거워하라(즐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청년들이 자신들의 젊음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한 전도서를 뒤돌아보면 솔로몬 왕은 삶을 즐거워하는 말을 여러 번 하였는데, 그것을 몇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라’ (2:24; 3:13, 8:15, 9:7), ‘부부의 행복을 즐거워하라’ (9:9), 그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라,’ (2:24, 5:18), ‘자기 일을 즐거워하라’ (3:22). 이 말은 결국 청년들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데 가운데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또한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청년들이 자신의 젊음을 어떻게 즐거워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시편 119편 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우리 청년들이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한 행실을 추구하는 것 또는 순결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청년들이 그들의 젊음을 즐거워하는 방법은 깨끗함 또는 순결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청년들은 마음의 근심과 몸의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과 행실의 깨끗함(순결)을 추구하지 않을 경우에 그들은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결국 몸으로도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이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방종하게 행하면 마침내 근심이 되는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악으로 몸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청년들에게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을 추구하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의 근심과 고통과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9절). 그러면 왜 청년들이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을 추구하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청년의 때가 속히 지나가기 때문입니다(10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속히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 청년의 시기에 즐거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젊음을 즐기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과 고통과 죄악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결한 삶을 살므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몸과 마음이 근심과 고통과 죄악으로 물든 청년의 시기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은 청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청년들은 마음에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젊음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먹고 마시며 수고(일)하며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실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젊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결코 마음의 근심과 몸의 고통과 죄악으로 물드는 젊음을 보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며 젊음의 때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주어진 젊음의 시기를 주님 안에서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마음에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사랑하는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너는 청년의 때 …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8절 말씀 묵상]

이미 우리는 전도서 11장 9-10절 말씀 중심으로 ‘청년이여’란 제목 아래 솔로몬 왕이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받았습니다. (1) 첫째로, 청년들은 그들의 젊음을 즐거워하되 방종하여 하나님께 범죄 하지 않도록 잘 조절(절제)하면서 즐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일상생활이나 부부 관계에서나 일을 즐기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한 행실을 추구하면서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둘째로, 청년들은 마음의 근심과 몸의 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젊고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젊고 힘 있는 청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곧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1절).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를 ‘곤고한’이란 어떤 날을 가리킵니까? 그 날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를 가리킵니다(1절).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언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노인이 되어 몸이 쇠퇴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2-6절까지 인간의 노쇠 현상을 풍유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2절에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기 전**”란 말씀은 팔레스틴의 겨울 기후 현상을 가리키는 말씀으로서 그곳에는 겨울철에 비가 오기 때문에 종종 겨울날이 흐리고 어두웠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와 같이 사람이 늙으면 기쁨이 없고, 자주 흐리고 비 오는 때와 같이 침울하기에 그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라는 말씀은 노인이 되면 손이 떨릴 것을 비유한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말씀은 노인이 되면 다리에 힘이 없음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또한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칠 것이**”다(3절)라는 말씀은 치아의 형편을 비유한 말씀으로 사람이 늙으면 치아가 많이 상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3절)라는 말씀은 나이가 늙으면 눈이 흐려질 것을 가리킵니다. 4절에서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란 말씀은 노인이 되면, 귀의 둔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맷돌소리가 적어질 것이**”다(4절)라는 말씀은 노인이 치아가 없어서 별로 소리 없이 음식을 먹을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4절)란 말씀은 사람이 늙으면 잠을 깊이 들지 못해 새 소리 때문에도 잠을 깬다는 말입니다. “**음악 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4절)란 말씀은 노인의 성대가 약해져서 힘 있게 발성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노인들은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다고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5절). 다시 말하면, 결국 노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청년이나 노인이나 다 죽지만 특히 노인들은 그 죽음에 젊은 청년보다 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노인들은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세월이 쏠살같이 흘러 금방 노인이 될 것이니 만큼 그들도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한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월볼드):

첫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 살면서 청년들은 결코 헛된 장래(11:8, 10)에 삶을 다 허비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들은 청년의 때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행실의 깨끗함)을 추구해야 합니다(11:10). 그리할 때 마음은 근심도 없고 몸으로도 죄악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10절).

둘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 안에서 삶을 즐기며 살되 책임 있게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전도서 11장 9-10절을 다시 보면 솔로몬 왕은 청년들에게 마음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 해두고, 마음에 근심을 떠나게 하고 몸에 악을 물러가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청년들이 누려야 할 즐거움은 책임감을 감당하는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결코 성경은 청년 때에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청년들이 어떻게 책임감에 있게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6-7절을 보십시오: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두 절 말씀은 우리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지금 솔로몬 왕은 결국 나이가 늘어 언젠가는 다 죽을 것이기에 청년들에게 젊고 힘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삶을 즐기되 책임 있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기는 삶과 책임 있는 삶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삶에는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셋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법(명령)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솔로몬 왕이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억하라’는 문구는 신명기 8장 18절과 시편 119편 55절을 볼 때, “(율)법을 지키라”는 문구와 아주 유사합니다. 또한 “기억하라”는 문구는 시편 63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신실하게 좇는 것’과 유사합니다(월볼드). 즉,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법(명령)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청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우리가 청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젊었을 때에는 시험이 많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젊음을 즐길 수 있는 특권도 있는 반면에 동시에 젊음의 때란 유혹이 많은 때이기도 합니다. 특히 젊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좇아 지켜 행하기보다 세상의 헛된 쾌락을 좇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젊음의 때에는 정신력과 체력이 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신력과 체력을 조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2) 우리가 청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젊었을 때에는 정신력과 체력이 강하므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일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우리는 젊었을 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늙으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젊음의 때도 신속히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고 체력이 될 때 우리는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11:10).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년 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더 쇠퇴해져서 더 이상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명령을 신실하게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년 때에 책임감을 가지고 삶을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성가대원 형제, 자매님들과 햄버거 집에서 야식을 한 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12장 9-14절 말씀 묵상]

저는 주로 책방에 가서 책을 사려고 할 때 주로 제가 좋아하는 저자의 책들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직 사서 읽지 못한 책이 있는 가 살펴봅니다. 그런 후 아직도 읽지 않은 책이 있으면 책을 펴서 목차를 봅니다. 그 이유는 책 내용이 어떤지 대충 짐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사기 전에 주로 보는 부분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그 이유는 결론을 보게 되면 대충 저자가 그 책에서 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전도서의 결론인 전도서 12장 9-14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전도자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마지막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권고의 핵심은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처음으로 묵상한 때가 바로 2009년 10월 17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때 우리는 ‘헛된 세’이란 제목 아래 전도서의 첫 부분인 1장 1-11절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 1년 2개월이 지난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인 전도서 12장 9-14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9-14절 말씀 중심으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란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권고의 메시지를 겸손히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경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들은 “일의 결국”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0절을 보십시오: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 왔던 사람 이였습니다(왕상3:3-28). 그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으로’ (전12:9)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가 묵상하고 궁구하는 가운데 잠언을 많이 지었습니다(9절). 그리고 그가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을 때나 잠언을 많이 지었을 때 솔로몬 왕은 힘써 아름다운 말을 찾아 사용 하였습니다(10절). 그런 그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가 기록한 전도서는 ‘정직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은 지금까지 자기의 가르친 전도서 말씀이(거짓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므로 이 책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박윤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전도서 책의 말씀을 다 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전도서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 4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도서의 말씀을 다 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1절을 보십시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 여기서 ‘채찍(goads)’은 목자가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사용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채찍질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므로 다시금 바른 길로 견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 (히4:12).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라고 물었고(37절)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 을 것이다(38절)라고 답해주었습니다. 그 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이나 되었습니다(41절).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마음과 양심을 찌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각자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전도서를 약 1년 넘도록 매주 수요기도회 때마다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찔린바 되었는가 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서 책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과 양심에 찔림이 있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만 헛된 것을 추구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다 아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저는 영원하지 않는 것, 순간적인 헛된 쾌락(전2:1-11)을 추구하므로 전도서 책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과 양심에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도서의 말씀을 다 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1절을 보십시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바니라.” 참 지혜자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은 우리 마음과 양심을 찌르는 채찍 같을 뿐만 아니라 “잘 박힌 못”같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 “잘 박힌 못”같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잘 박힌 못’이란 말은 박힌 못에 중요한 물건들을 거는 것과 같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해결된다는 의미입니다(박윤선).

우리 양 떼들은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지도와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하려는 어리석은 죄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못이 벽에 잘 박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못에 중요한 물건들을 걸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만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들을 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오늘로서 다 듣게 되었으니 그 전도서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판에 잘 새기므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다 들은 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2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이 또 경제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 합니다(딤후3:16).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책망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 전에 무엇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지만 듣고도 불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2절에서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한다면, ‘성경책 외에 다른 세상의 책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책 외에 이 세상의 책들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만족이 없고(끝이 없고) 연구자들에게 피곤을 줄 뿐이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 그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고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Sola Scriptura)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므로 그 말씀을 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근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전도서의 말씀을 다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십시오: **“일의 결구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전도서 전체 책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본분’이란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 전부’라는 뜻입니다. 곧,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지음이 되었다는 것과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박운선).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는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를 알고 그 목적과 그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달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 하신다(12:14)는 사실을 믿고 우리 사람의 본분을 이 땅에서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서 12장 9-14절 말씀을 통하여 전도서의 모든 정직한 진리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4가지로 말씀에 반응하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1)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찢린바 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2)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해결해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3)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책 외에 다른 세상의 책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4) 마지막 넷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의 말씀을 다 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헛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람의 본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전도서 책을 다 묵상한 수요일 밤에)

[여러분이 결론을 써 보세요]

■ 신앙상담

√ 카톡 ID: jamesthemoon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james.kim.58118>

√ 블로그: <http://blog.naver.com/kdicaprio74>

√ 이메일: chmonk106@gmail.com

√ 섬기는교회 : (LA)승리장로교회(www.vpcla.com)